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879
www.baekyoungju.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903-3010

ISSN 1554-6942

케이팝 스타 예선 “마지막이니까 보스톤에서도”

마지막으로 화끈하게, 문호 최대한 개방
우승자에게 YG, JYP, 안테나 공동 프로모션
처음으로 보스톤에서도 예선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서바이벌 뮤직스타 발굴 프로그램 SBS 케이팝 스타 보스톤 오디션이 오는 9월 7일 수요일 보스톤 카플리 소재 보스톤 웨스턴 카플리플레이스 호텔에서 개최된다. 케이팝스타는 현재 참가자 지원을 받고 있으며 오디션 당일까지 참가 지원의 문을 열어둔다.

케이팝스타는 오는 11월 시즌6을 마지막으로 막을 내린다. 따라서 이번 시즌에는 문호를 최대한 개방하겠다는 취지다.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보스톤 지역에서도 예선전을 개최한다. 마지막 시즌인 만큼 버클리 음대 등이 포진해 있는 보스톤에서 따로 오디션을 개최해 더 좋은 인재를 선발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케이팝 스타는 시즌3에서는 애틀란타 출신 버나드 박(JYP 소속)이 우승, 그리고 시애틀

출신 샘 김 준우승(안테나 소속)을 차지했다. 시즌4에서는 뉴저지 출신 케이티 김 우승(YG 소속)했으며, 시즌5 시카고 출신 이수정 우승(안테나 소속)해 해외파들이 강력한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

한국에서도 문호가 최대한 개방된다. 기존의 소속사 출신의 연습생, 데뷔한 이래 활동이 뜸한 가수 등에도 기회가 주어진다.

케이팝 스타 박성훈 피디는 한국에서의 기자회견에서 “YG, JYP, 안테나 세 회사 공동으로 프로모션을 한다. 세계 어느 나라 오디션에서도 볼 수 없었던, 우승자가 나오면 세 회사가 역량을 모아 데뷔 무대를 만들어주고 곡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도 케이팝스타는 YG의 양현석, JYP의 박진영, 안테나의 유희열 심사위원이 함께한다.



2015 케이팝스타5에서 우승한 이수정

케이팝스타 참가를 원하는 사람 또는 추천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 경우 boramslou2gmail.com으로 이메일하면 바로 연락을 받을 수 있다.

hsb@bostonkorea.com

최고 흥행 기대작 영화 <부산행> 무료 티켓 이벤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한국에서 역대 최고 사전예매율을 기록한 초대형 재난 블록버스터 영화 <부산행>의 보스톤 개봉을 앞두고 보스톤코리아는 무료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는 영화 <부산행>의 제목으로 삼행시를 짓거나 부산행에서 가졌던 잊지 못할 추억을 워드 100단어 이하로 작성해 댓글로 올려 참여할 수 있다. 참여작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10개의 작품을 골라 영화 티켓 2장 교환권을 배포할 예정이다.

티켓 이벤트 마감은 오는 7월 20일 오후 2시 까지이며 당첨자들은 티켓을 보스톤코리아 사무실에서 직접 픽업하거나 이메일로 전송 받을 수 있다. 이메일 전송을 원하는 당첨자들은 본인의 이메일을 editor@bostonkorea.com으로 보내야 한다. 당첨자들은 개봉 첫주 평일인 8월 1일부터 4일 사이에 관람이 가능하다.

올 여름 최대 흥행작 유력 후보인 <부산행 Train To Busan>은 정제

▶▶2면으로 계속



이민법
상법
만행사소송
이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a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law@lookjs.com



보스톤-인천 왕복항공권

From \$950
대인(항공료 포함)
(보스톤출발)

본 금액은 세금과 유류보상비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1.617-424-8956

상업지역: 929-818-8222(국제 무료) / 617-424-8956
예약문의: www.iace-travel.com *영어/중국어/한국어/일본어
보스톤 사무실: 1-877-424-8956 (미국, 캐나다, 한국에 상담 가능)

항공여행 전문
IACE TRAVEL



BERKSHIRE HATHAWAY | N.E. Frisch Properties
Real Estate Services

에나 정
최고의 전문가로서
부동산 부문의 성공을
경험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택 · 콘도 · 비지니스 · 상업 · 렌트
MA, NH Licensed
Million Dollar Guild
CLHMS, CRS, GRS, SRES, ABR

617.780.1675
ej@ung.com or jehong@ung.com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JEI 재능교육
JEI English JEI Reading & Writing
JEI Math JEI Problem Solving Math
Pre-K부터 대학까지

FDart 학문평에 뒤져
www.jeilearning.com

JEI Burlington
11 Adams St. Burlington, MA 01803
TEL: 781.362.9777
EMAIL: Burlington@jeilearning.com

영화 <부산행> 보스톤 개봉 29일로 1주 연기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한국과 더불어 전미주에서 동시 개봉에 따라 22일 보스톤에서 상영 예정이던 영화 <부산행 Train To Busan>의 개봉이 영어 자막본 준비 관계로 1주 연기됐다. 따라서 보스톤에서는 29일 금요일에 AMC 로우스 보스톤 커먼 극장에서 상영된다.

재난 블록버스터 영화 <부산행>은 한국서 22일(이하 한국시간)개봉을 앞두고 한국 최고 흥행 영화이던 영화 <명량>을 뛰어넘는 사전예매율을 기록해 올 여름 최대 흥행을 예고했다. 또한 <검사의전>을 제치고 2016년 개봉 한국 영화 최고 예매량을 기록하며 전대미

문의 예매 기록 경신에 나섰다.

<부산행>은 개봉 2일 앞두고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예매율 집계에서 7월 18일오후 1시 30분 기준 무려 사전예매량 89,079명을 기록하며 예매율 60.9%를 세웠다. 개봉 2일 전 최종 기준을 비교, <명량>(2014년 7월 30일 개봉)은 7월 28일(월) 예매 관객수 62,502명, <검사의전>(2016년 2월 3일 개봉)은 2월 1일(월) 예매 관객수 66,626명을 기록했었다.

이로써 <부산행>은 개봉 전부터 역대 최고 흥행작 <명량>의 사전 예매량 기록과 2016년 한국 영화 사전 예매 최고 기록을 동시에 갈아치웠다. <부산

행>은 영진위 통합전산망 외 대한민국 3대 멀티플렉스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에서도 압도적 예매율을 기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예스24와 진행한 슈퍼 특가 예매는 700장이 모두 1분 만에 매진되는 기염을 토했다.

한편 <부산행>은 지난 3일간 진행된 사전 유료 시사에서 주말 좌석 점유율이 평균 95%라는 전대미문 좌석 점유율을 세우며 전대미문의 기록을 추가했다. 특히 주요 극장은 모두 전석 매진이라는 기염을 토하며 폭발적 입소문과 반응을 입증한 바 있다.

hsb@bostonkorea.com



영화 부산행 배우 및 감독이 지난 5월 칸 영화제 레드 카펫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부산행>으로 삼행시, 당첨자에게 무료 티켓

▶▶1면에 이어서

불명의 바이러스가 창궐한 대한민국 서울에서 출발한 부산행 고속열차KTX에 몸을 실은 사람들의 생존을 건 치열한 사투를 그린 100억 원대 규모의 재난 영화다.

특히 <부산행>은 지난 5월 칸 국제 영화제에서 비경쟁 부문 미드나잇 스크리닝 상영에서 2,500석 만석을 기록한 것은 물론 상영후 관객들의 기립박수가 끊이지 않게 만든 작품이다. 통상 외신의 관심이 덜한 미드나잇 스크리닝 상영이었음에도 극장의 분위기는 가히 폭발적이었다고 배급사 측은 밝혔다.

초호화 캐스팅 역시 <부산행 Train To Busan>에 대한 기대감을 한 층 높인다. 장르를 불문하고 다양한 작품에서 관객들에게 사랑받아 온 연기파 배우 공유, 정유미, 마동석, 김의성, 총무로가 주목하고 있는 블루칩 최우식과 안소희, 그리고 섬세한 연기로 칸의 마음을 녹인 아역배우 김수안까지 배우들의 완벽한 호흡이 극의 몰입도를 높인다. 여기에 영화 속 제3의 주인공 100여명이 넘는 감염자들도 가세해 한국 영화 사상 전대미문의 비주연과 탁월한 연기력을 선보인다.

hsb@bostonkorea.com

<진료 과목>

*일반 치과 *잇몸 질환 치료
*신경 치료 *보철 전문
*보복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한인회장배 골프대회 성황리에 종료

이상민씨 73타, 공중이씨 77타 남녀 최저타 기록 퍼팅 대회에서는 김영기 씨와 김권필 씨 공동 수상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톤한인회 주최 한인회장배 친선 골프대회에서 이상민 씨와 전봉림 씨가 우승했다. 다만 남자부에서는 우승한 이상민 씨가 73타로 우승했지만, 여자부에서는 공중이 씨가 77타로 실제적인 최저타를 기록했음에도 신페리오 방식의 순위 결정에서는 전봉림 씨에게 우승 자리를 내줬다.

7월 17일 웨일랜드 골프 코스에서 약 50여명의 보스톤지역 골프 애호가들이 모인 가운데 치뤄진 이번 대회는 선수간 핸디를 평준화한 신페리오 방식의 점수 집계를 적용해 수상했다.

이번 골프대회 운영을 맡은 장영규 골프티칭 프로가 적용한 이 방식은 실제 점수와는 다른 의외의 결과가 도출돼 이에 익숙치 않은 참가자들은 의아함을 표시했다. 그러나 대다수는 집행부의 순위채점 방식에 수긍했으나 일부에서는 불만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한인회는 지난 6월 30일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당시 폭우로 인해 대회 일정이 연기되어 이날 경기를 개최했다.

김경원 회장은 "한인회 임원들이 골프대회의 전문 지식이 없어 매끄럽지

수상자 명단

A조: 이상민, 유대근, 김성배
 B조: 임춘택, 박진영, 전옥현
 C조: 임동욱, 김진욱, 김병국
 여자: 전봉림, 공중이, 김미숙
 시니어: 김진원, 남궁연
 주니어: 제임스 장

(신페리오 방식을 적용하여 실제 타수와 순위가 바뀔 경우도 있습니다)

못한 대회 운영으로 참가자들에게 불편함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진행을 위해 땀흘리며 수고한 한인회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아낌없이 보내 주신 참가자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전하며 "향후 한인회는 이번 일을 귀감으로 모든 행사를 철저히 준비해 모든 한인들이 함께 견고 함께 웃을 수 있는 한인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골프대회의 본 경기 전에 치러진 퍼팅경기에서는 김영기 전 한인회장, 보스톤방문 중인 김권필 교수가 공동우승을 차지해 \$500의 상금을 나



한인회장배 골프대회에 참가한 한인들 모습



골프대회의 본 경기 전에는 식전행사로 퍼팅대회가 치뤄지기도 하였다

났다.

본 경기는 오후 1시반 샷건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보스톤한미노인회와 국제선교회가 손수 찬 김밥을 제공했

다. 경기 후에는 클럽하우스에 모여 서로간의 경기결과를 주제로 담소를 나눴다.

hsb@bostonkorea.com

간호사 협회 야유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 간호사 협회는 전, 현직 간호사들과 예비 간호사들이 함께 친목을 도모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야유회를 23일 토요일 브라이튼 소재 크리스찬 허터파크(Christian Herter Park)에서 갖는다.

음식은 간호사 협회에서 불고기, 김치, 밥 등을 준비하며 나머지 참석자들은 반찬 한가지씩 가져오면 된다. 전, 현직 간호사 그리고 NCLEX(간호사 시험)를 합격하고 취업 준비중인 예비 간호사들, 간호대학 학생들, 그리고 간호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참가할 수 있다.

우천시 또는 피크닉 관련 문의는 info@KoreanNurses.org로 하면 된다.

일시 : 2016년 7월 23일

(토요일) 12pm-3pm

장소 : 1175 Soldiers Field Rd.

Boston, MA 02228

(Neighborhood:

Allston/Brighton)

bostonkorean@hotmail.com

맞춤식 교육 Mathematics • Verbal • Testing Skill

SAT Plus

SATI 및 SATII 준비 전문학원

TEL: 781-398-1881

2 Winter Street Suite 104, Waltham, MA 02451

SAT Plus Summer Schedule 2016

July 11th - July 29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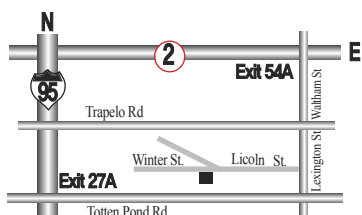
Class	Time
SAT I Prep	8:00 AM - 12:00 PM Morning Session Mon-Fri
SAT I Prep	1:00 PM - 5:00 PM Afternoon Session Mon-Fri

August 1st - August 19th

Class	Time
SAT I Prep	8:00 AM - 12:00 PM Morning Session Mon-Fri
Chemistry Preview	1:00 PM - 3:00 PM Monday, Wednesday, Friday
Biology Preview	4:00 PM - 6:00 PM Monday, Wednesday, Friday



Rocky Hill School 과학 및 수학교사 Disciplinary Committee
 MIT 생물학 학사학위
 Who's Who Teachers of America-1992년 선출
 Tandy Award Finalist(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표창)
 지난 10년간 SAT I 및 SAT II 개인교습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이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경제 영역 넓은 해외 한상 '장보고 상' 수상자 찾는다

장보고글로벌재단 공동 주관... 8월26일까지 신청서 접수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전라남도 완도군과 장보고글로벌재단이 7월 5일 해외 한인기업인을 대상으로 '장보고 한상 명예의전당 어워드' 를 수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인기업인 가운데 한국의 경제 및 문화 영토를 확장하는데 지대한 공을 세운 인물을 매년 1회 발굴해 '장보고한상 명예의전당 어워드' 를 헌정 한다.

'장보고한상 명예의전당 어워드' 는 1,200여 년 전 한중일 해상민간무역 을 주도했던 장보고 청해진 대사의 개척 및 도전정신을 알리는 상으로 '오늘의 장보고 대사' 로 예우한다.

김성훈 장보고글로벌재단 이사장은 "세계화시대의 무한경쟁체제 속에서 거주국의 차별화와 불이익을 당하면서 모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해온 한상기업인 의 삶과 업적이 '장보고 대사' 에 버금가는 가치를 내재하고 있다" 고 하면서 "모국에서 수여하는 상 중에서 '가장 명예로운 상' 이 되도록 운영 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 상은 △장보고 청해진 대사의 개척 및 도전정신을 해외에서 실천하면서 괄목한 실적을 낸 한상기업인 및 재외한인 △한민족의 후예로서 자긍심을



전라남도 완도군과 장보고글로벌재단이 7월 5일 해외 한인기업인을 대상으로 '장보고 한상 명예의전당 어워드' 를 수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갖고 거주국의 지역발전에 공헌하며 모국의 경제 및 문화영토를 확장하는데 크게 기여한 한상 기업인 △코리아인 디아스포라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앞장선 한상 기업인을 대상으로 수상자를 선정한다.

군과 재단은 7월11일부터 8월26일까지 추천을 받는다. 수상자로 선정되면 기념메달 및 기념패가 수여된다. 재단은 또 수상자와 협약을 통해 자서전이

나 만화를 제작 발간을 추진하며 완도 장보고기념관에서 헌정자의 생애 석세스 스토리(success story) 기획전시회도 열 계획이다.

신청 양식 : 재 단 홈페이지 (www.changpogo.net) 또는 모바일 사이트(m.changpogo.net)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거나 changpogof@gmail.com로 양식 요청 hsb@bostonkorea.com

2016 한미정치력신장연대 하계 애국수호 순례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한미정치력신장연대의 애국 순례 행사가 지난 6월 25일 2016년 하계 120여명의 독도수호 탐방 행사를 시작으로 한달 여간 한국과 일본에서 진행 되었다.

한미정치력신장연대의 임원진들은 아베정부의 연립여당 결성과 이를 통한 사실상의 외국 주둔을 필두로 한 침략의지에 대해 도쿄신주쿠에서 참의원 선거 기간 동안 임원진과 동포 들이 평화헌법 개정 저지를 위한 시위를 진행 하였다.

한미정치력신장연대 보스톤지부는 오사카를 방문해 김성혁 회장 김하나 변호사 등이 안타깝게 철거가

확정된 수많은 애환이 서린 제일 한국인 우토로 마을을 방문해 비록 마을의 건물 들과 주변 생활 환경은 바뀌지만 계속 민족 정체성을 지키며 안전하게 전통을 이어가도록 기원 했다.

또한 김성혁 회장 등은 정 지용 시인 등 많은 우국 지사 들을 배출한 동지사 대학교에서 7월 15일 학교 인사 들의 안내로 해방 직전 옥사한 윤 동주 시인의 기념비를 헌화 참배 하고 민족시인의 자주 애국정신의 뜻을 추모 하였다. (기사자료제공=에스더 김)

bostonkorean@hotmail.com



독도 아카데미 학생들의 단체 모습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617.871.1482

캠브리지 덴탈 어넥스 Cambridge Dental Annex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오랫동안 오랫동안

여름철 기력회복엔 역시 홍삼입니다.

여름이 되면 우리 몸은 체외로 열기를 배출해 안다고 느끼게 되지만 실제로 몸속은 열기가 차고 기력이 약해지게 됩니다. 이럴 때는 허약한 열기를 보충해주는 홍삼이 좋습니다.

NEW

여름철 여드름관리하기

홍삼 고미류 필름 / 홍삼 오버나이트 마스크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781-238-0303

MART Burlington점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화주문 서비스

FedEx 주문만 다뤄야 할까 봐요,
\$10 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한인에게 높은 차원의 부동산 서비스 제공할터”

뉴스타 보스톤지점 합병한 버크셔해서웨이 홈서비스
NE 프라이م 프로퍼티스 낸시 퀸 대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뉴스타 보스톤지점이 지난 7월 1일자로 버크셔 해서웨이 렉싱턴점, 뉴튼점으로 변신했다. 버크셔 해서웨이 홈서비스 NE 프라이م 프로퍼티스 (BHHS NE Prime Properties)와 합병 이후 전환과정으로 인해 분주하다. 그냥 부동산 회사의 상호변경 정도로 인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소비자인 한인들에게 어떤 의미일까. 구체적으로 소비자들에게는 워렌 버핏의 산하 회사 상표의 한인 부동산 회사 서비스가 탄생했다는 것이다.

버크셔 해서웨이 홈서비스 뉴잉글랜드 낸시 퀸 대표를 7월 18일 렉싱턴 오피스에서 만났다. 낸시 퀸 대표는 “견고함, 완전함, 신뢰를 바탕으로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브랜드의 힘을 누릴 수 있게 될 전망” 이라고 밝혔다. “합병이란 두 회사의 장점이 모이는 시너지로 인해 더 많은 고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버크셔 해서웨이 홈서비스 NE는 1993년 창립되어 현재 CEO인 낸시 퀸

씨가 독립적으로 소유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014년부터 버크셔 해서웨이의 산하 부동산 회사인 HSF가 운영하는 버크셔 해서웨이 홈서비스 네트워크 멤버로 가입되어 있다. 현재의 CEO 낸시 퀸(Nancy Quinn)씨 아버지인 해럴드 레저드 (Harold Ledgard)부터 시작해, 그리고 아들이자 CTMO인 앨런 퀸 (Allen Qinn)까지 3대가 일하고 있는 회사다.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와 버크셔 해서웨이 홈서비스와 구체적인 관계는?

낸시 : 버크셔 해서웨이가 Brookfield와 합작해 합자회사로 HSF라는 회사를 설립했으며 버크셔 해서웨이 홈서비스 NE는 HSF의 산하 회사 중의 하나다. 따라서 버크셔 해서웨이의 산하 회사 중의 하나로 보면된다.

버크셔 해서웨이 홈서비스 뉴잉글랜드에 대해 소개해 달라.

낸시 : 부동산 사업에 뛰어든 것은 38년전이다. 당시 부동산 회사는 나의 아버지와 일부 에이전트들이 함께 일하는 작은 부동산 회사였다. 대학을 졸업

했을 때 아버지가 아파서 회사를 맡아달라고 해서 시작했다. 1983 Gallaway Home 으로 시작했으며 1993년 NE Prime Property란 이름으로 9개 오피스로 시작했다. 이후 프루덴셜 부동산 회사에 합류했으며 프루덴셜 보험이 부동산 파트를 매각할 당시 HSF 산하 버크셔 해서웨이 홈서비스에 다시 합류했다. 현재 매사추세츠 13개, 남부 메인에 4, 로드아일랜드에 1개 지점이 있다.

어떻게 백영주씨와 만나게 됐나
백 : 아시안 부동산 협회(AAREA)의 전국 컨벤션에서 지노 블레파리 (Gino Blefari) 버크셔 해서웨이 홈서비스 CEO를 만나 이야기 하다 뉴잉글랜드 지역의 프렌차이즈 낸시를 소개 받았다.

뉴스타 보스톤 백영주 대표와 합병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먼저 우리는 서로 아주 잘 맞는다. 우리는 서로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을 공통적으로 알고 있어 잘 어울린다. 또한 버크셔 해서웨이 NE로서는 고급, 고가의 프로퍼티들이 많은 렉싱턴 지역 등으로 확장함에 따라 많은 혜택을 가질 것으로 생각했다. 셋째로 버크셔 해서웨이는 다양한 문화로의 확장을 꾀하고 있는데 이 방향



(좌로부터)버크셔 해서웨이 렉싱턴점 대표 백영주, 버크셔 해서웨이 홈서비스 뉴잉글랜드 대표 앨런 퀸, 낸시 퀸

과도 일치한다. 따라서 나는 이번 합병에 대해 아주 만족스럽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에이전트들에게 고객을 대하는 첫번째 덕목으로 삼는 것이 무엇인가

앨런 : 프로페셔널리즘과 지식이다. 서비스를 잘 제공하기 위해서는 늘 교육과 훈련이 중요하다. 교육을 강조하는 것이 결국 프로페셔널리즘을 만들어 낸다. 모든 신입 에이전트들은 10주간의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온라인을 통해 교육자료를 제공하며 교육한다. 판매자와 구매자의 심리, 상업용 부동산의 판매,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 등 여러가지를 제공한다.

백 : 그래서 저희 렉싱턴 직원들이 수요일부터 10주간의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정말 배울 수 있는 자료가 많다.

한인 소비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

앨런 : 한인 커뮤니티를 비롯한 모든 커뮤니티에게 에게 좀더 나은 서비스,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학습고대하고 있다. 곧 웹사이트에 한국어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다. 현재 열심히 준비 중이다. 백영주 대표의 도움으로 더 성장하고 커뮤니티에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백 : 이 회사는 주택이 팔리지 않을 경우 회사가 이를 구매해 재 판매하는 리로케이션 회사를 회사 내부에 보유하고 있다는 커다란 강점이 있다. 아마 한인들에게 더 좋은 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editor@bostonkorea.com



Frank Y. Shin, DMD
현 **Tofts** 치과대학 부교수



신영목치과

- 치아 이식 수술 [Implants]
- 금속 없는 크라운
- 미용 치료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 드립니다)
- 응급 환자 당일 치료
- 토요일도 진료함
- 각종 보험 지정 병원

www.drfrankshin.com

617.265.5606

1428 Dorchester Ave. Boston, MA 02122



가주 순두부

한식&일식

2013, 2014년 보스톤 매거진 선정 한식 1위 "가주 순두부"
업스톤점과 캠브리지점 두곳에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오전10시~ 밤10시까지 입니다.



업스톤 지점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 8540

캠브리지 지점
57 JFK st. Cambridge, MA 02138,
(617) 864- 6868

단체 예약과 문의 가능

갈비 한대 가격으로 10가지 고기를 마음껏

업소번호 315

수라바베큐 보스톤

29 Riverside Avenue, Medford, MA 02155

781-391-5606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고기가 고프면 수라 바베큐로 가야 한다. 주말 저녁 고기를 실컷 먹고 싶은데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은 한인 학생 및 한인들에게 좋은 레스토랑이 보스톤에 등장했다. 보스톤 근교 메드포드에 자리잡고 있는 구 청기와 자리에 로드 아일랜드에서 고기부페로 유명한 수라 레스토랑이 문을 열었다.

지난 6월 1일부터 오픈했지만 그동안 직원들의 훈련 및 여러가지 준비를 갖추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인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10가지 신선한 고기를 무제한으로 구워 먹을 수 있는 수라에서는 허리끈을 풀어도 좋다.

고기 뷔페는 A코스 와 B코스로 나뉘어 있다. A코스는 불고기, 차돌박이, 대패삼겹살, 치킨 불고기, 불닭, 돼지 불고기, 곱창 구이 등이며, B코스는 갈비, 떡갈비, LA 갈비, 흠뻑지 삼겹살, 매운 흠뻑지 삼겹살, 새우구이, 쭈구미 구이, 오징어 구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격은 저녁 가격이 A코스는 \$25.95, B코스는 \$28.95이다. 주말에도 가격은 변화가 없다. 8살 이하의 자녀는 \$8.95다.

고기는 얼마든지 먹어도 되지만 단 주문한 음식을 남기지 않는 에티켓은 지켜야 한다. 먹는 것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 대신 머무는 시간에는 2시간으로 제한을 두었다. 정확히 두시간을 체크하기 보다는 합리적인 선에서 웨이트 스태프들이 손님



고기는 얼마든지 먹어도 되지만 단 주문한 음식을 남기지 않는 에티켓은 지켜야 한다

들에게 시간이 다 됐다는 힌트를 줄 예정이다.

더 획기적인 메뉴는 캄보메뉴다. A 캄보 메뉴는 \$32.95로 몇사람이 있던 상관없이 A코스 고기 중에서 3아이템을 고를 수 있다. B 캄보메뉴는 \$39.95로 B코스 메뉴 중에서 3아이템을 고르면 각 아이템이 한 접시씩 나온다. 여기에 된장찌개, 파전 등이 함께 나온다. 술안주로도 적격이다. 소주 참이슬 한 병이 \$13이다. 맥주는 약 4불 대. 4명에서 약 \$100이면 얼큰하게 마실 수 있다.

일부 학생들은 이미 로드아일랜드까지 원정 가서 수라 바베큐 고기 뷔페를 즐겼었다. 이들 학생들은 “로드 아일랜드까지 운전하던 것을 이제 20분 운전이면 먹을 수 있다며

환호를 한다” 는 것이 김혜숙 사장의 말이다.

“정말 많은 양의 고기를 소비하기 때문에 고기값이 1불만 올라도 엄청난 부담이 된다. 고기값이 오르면 가격을 조정하겠지만 그래도 지금의 가격을 최대한 유지하겠다” 고 밝혔다.

수라 바베큐는 지난 2007년부터 로드 아일랜드에서 고기 뷔페를 시작해 10년 째 운영해오고 있다. 저렴한 가격을 바탕으로 탄탄한 고객층을 확보했기 때문이란다.

김혜숙 사장은 “보스톤의 명소로 자리잡고 싶다” 고 포부를 밝혔다.

editor@bostonkorea.com



피아니스트 김배규 카네기홀 독주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 지역에서 활동하는 피아니스트 김배규씨가 7월 7일 목요일 저녁 8시 뉴욕시 소재 카네기홀에서 독주회를 가졌다. 전석이 매진된 가운데 진행된 독주회에서 김배규 씨는 시대와 장르를 다양하게 결합시킨 선곡과 생동감 있는 테크닉이 조화를 이룬 연주를 선보였다.

이날 연주 전반부에서는 라모의 클라비상 모음곡에서 발췌된 3곡과 리스트의 순례의 해 연보에서 발췌된 3곡을 연주했다. 후반부에서는 메시앙의 아기에수를 보는 20개의 시선과 슈만의 비엔나의 사육제를 연주했다. 관중들의 요청에 따라 연주된 앙클 공연에서는 바흐의 사리방드를 연

주해 환호에 답했다.

피아니스트 김배규 씨는 중앙대학교 음악대학 피아노과를 졸업, 프랑스 Ecole Normale Musique de Paris 그리고 Conservatoire National de Versailles 에서 최고 연주자과정을 취득, 도미하여 뉴욕주립대와 보스톤대학에서 각각 석사와 박사학위를 마쳤다.

2002년 음악저널로부터 “Young Artist” 를 수상, 2008년에는 Artist International Competition in Newyork 에서 “Special Presentation Award”, 2009년에는 Boston University 주최 “Honor Competition” 에서 우승을 하였다.

bostonkorean@hotmail.com

2016년 뉴잉글랜드 목회자 가족 수양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 교역자 협의회는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2박 3일간 뉴햄프셔 윈저힐캠프(Windsor Hills Camp)에서 2016년 뉴잉글랜드 목회자 가족 수양회를 가졌다. 올해

가족 수양회는 “땅, 생명 그리고 쉼”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자녀 5명을 포함해서 전체 32명이 참석해 가족과 함께 쉼을 얻는 시간이었다.

bostonkorean@hotmail.com



617-739-2888

- 한국, 아시아, 미국내, 유럽, 남미 등
- KE, UA, DL, AA 등 모든 항공사 취급
- 항공권 특별 할인 제공
- 통역, 번역 서비스



유니버스 여행사
대표 최한길

Universe travel services
Tel 617.739.2888 / www.utsboston.net

정진수
CPA/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용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여(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보스톤의 명물 덕투어 버스는 잇따른 사고로 내년부터 승무원을 두 명으로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제공: 보스톤 글로브)

덕투어 버스, 잇따른 사고에 승무원 추가 배치

2017년 3월부터 배치 예정, 탑승료 인상될 수도
피해자 유족, 월시 시장, 보스톤 경찰국 환영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시훈 기자 = 보스톤의 명물 덕투어 버스가 차량당 승무원을 한 명 더 추가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3개월 사이에 두 건의 사고로 1명이 숨지는 사고에 대한 예방대책이다.

덕투어 버스는 지난 9일 뉴베리 @클래렌돈 교차로에서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기록했다. 지난 4월에도 비컨 힐에서 덕투어 버스는 이미 한 건의 교통사고를 기록, 스쿠터를 타고 달리던 엘리슨 워머스(28) 씨가 목숨을 잃은 바 있다.

보스톤 덕투어 버스의 최고경영자인 신디 브라운 씨는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이번 새 직원 증원계획으로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열망한다”고 밝히며, “우리는 보스톤의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최상의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고 피해자인 워머스 씨의 유족들은 보스톤 글로브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환영의 의사와 아쉬움을 동시에 표출했다. 어머니인 마사 워머스 씨는 “이러한 조치가 사고 이전에 있었다면 딸은 살아있었을 것”이라며 늦은 결정에 아쉬움을 표했다. 아버지인 이반 워머스씨는 “보스톤

덕투어 버스가 조취를 취해 준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덕투어 버스의 추가 인원의 배치는 2017년 새 시즌이 시작되는 3월에 맞춰 증원 될 계획이다. 4~5명의 새로운 스태프들이 고용될 것으로 계획된 가운데 추가 승무원이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새로운 직원의 고용으로 지출이 늘어나는 만큼 승차료의 인상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현재 7월 기준 덕투어 버스의 승차료는 37.50불이다.

덕투어 버스의 직원 추가 고용안은 마틴 월시 보스톤 시장과 찰리 베이커 매사추세츠 주지사, 보스톤 경찰국장 윌리엄 에반스등에도 보고되었다. 보스톤 경찰국의 대변인 레이첼 맥과이어는 “보스톤 경찰은 승객과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의 준비가 되어있다”고 말했다. 월시 시장도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에 박수를 보낸다. 보스톤은 도시의 치명적이고 심각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비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itshunne@bostonkorea.com

끝나지 않은 레드삭스의 트레이드와 말말말

트레이드로 넘어간 레드삭스 최대 유망주 설왕설래
최대어 그룸 영입 성공, 오티즈는 트레이드 관련 조사받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시훈 기자 = 레드삭스는 이번달에만 4건의 트레이드를 성사시켰다. 이에 따라 너무 많은 유망주를 트레이드 카드로 사용하였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데이빗 오티즈도 트레이드 관련 발언으로 MLB의 조사를 받는 등 트레이드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가장 많은 구설수에 오른 트레이드는 14일에 이뤄진 샌디에이고의 투수 드류 포머란츠(28)와 레드삭스의 투수 유망주 앤더슨 에스피노자의 일대일 트레이드였다. 2011년에 메이저로 데뷔한 포머란츠는 올시즌 전반기 102이닝동안 8승 7패 방어율 2.47의 준수한 기록을 보여주었다. 포머란츠는 지난 8일 류현진의 복귀전 맞대결 상대로 출전하고, 올스타전에는 부상선수의 대체선수로 출전하기도 했다.

문제는 샌디에이고로 건너간 에스피노자가 레드삭스의 최고 유망주 중 하나였는 것이다. 에스피노자는 레드삭스가 180만 달러의 계약금을 주고 영입해 마이너리그에서 가장 주목받는 유망주였다. 베네수엘라 출신의 에스피노자는 작년 94~98마일의 직구를 꾸준히 던져 100마일도 던질 수 있겠다는 평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수준급의 커브와 체인지업, 낮은 볼넷비율은 에스피노자가 장래의 1선발이라는 호평까지 받았었다.

이런 미래가 촉망되는 에스피노자의 트레이드는 최근 유망주를 트레이드의 협상카드로 사용되고 있어 불만이 쌓였던 레드삭스 팬들의 분노에 불을 지폈다. 레드삭스는 이미 작년에 마무리 크레이그 킴브렐(28)을 영입하기 위해 4명의 유망주를 보냈다. 7월 초에도 3명의 유망주를 보낸 상태였다. 이에 야구팬들은 “레드삭스가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눈 앞의 승리에만 급급하다”는 주장과 “성공여부가 불투명한 유망주보다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선



14일 레드삭스는 샌디에이고의 드류 포머란츠(28)와 레드삭스의 최대 유망주 앤더슨 에스피노자(18)의 트레이드에 합의했다

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레드삭스가 최고 유망주를 보낼 수 있었던 이유는 최근 올해 최고 유망주인 제이슨 그롬(18) 영입에 성공한 덕분이었다. 최고 97마일의 직구에 지난 4월에는 19탈삼진 노히트게임을 하는 잠재력을 보인 그롬의 실력에 레드삭스가 에스피노자를 트레이드를 위한 협상 테이블의 필살카드로 제시할 수 있었다는 후문이다.

한편 레드삭스의 데이빗 오티즈는 트레이드 관련 발언으로 MLB 사무국의 조사를 받았다. 오티즈는 올스타전 기자회견 중에 “보스톤은 애드윈 엔카나시온(토론토 블루제이스)과 계약해야 한다”고 한데 이어 “선발 로테이션에 호세 페르난데스(마이애미 말린스)를 추가하고 싶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CBS 스포츠는 MLB사무국이 오티즈의 이러한 발언을 템퍼링 (계약 체결 이전에 선수에게 접근하여 설득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규정 위반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행위는 징계대상이 된 사례는 거의 없고, 주로 출장정지보다 벌금으로 징계한 경우가 많다.

itshunne@bostonkorea.com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지사 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문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 (781) 932-0400 Fax: (781) 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사과 상해
 파산 보호
 비즈니스/리스

IRS/DOR/UI
 신용카드 채무조정
 이민법

전화: (781) 712-1700 CHANG & ASSOCIATES, P.C.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시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내빙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I, JI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onelaha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Office (Alewife Station)
 125 Cambridge Park Dr, Suite 301
 Cambridge MA 02140



캠튼에 개장한 공중 어드벤처 파크

12~60피트 상공의 나무 위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모험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선경 기자 = 깊은 숲속에서의 모험, 보스톤에서 불과 20마일 떨어진 캠튼의 어드벤처 파크에서 가능하다. 이번 달 초 개장한 4에이커 규모의 이 공원에는 10개가 넘는 다양한 난이도와 각기 다른 높이의 트레일이 기다리고 있다. 각각의 트레일은 가지각색의 나무 위 플랫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완주하려면 집라인이나 다리건너기 등의 정신적 육체적 모험에 도전해야 한다.

어드벤처 파크를 개장한 몰리 커(Molly Kerr)는 보스톤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이건 마치 품으로 퍼즐을 맞추는 것과 같다. 다음 단계로 가야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라고 트레일에 대해 설명했다.

몰리와 그 남편 크리스토퍼는 보스톤 인근 뉴잉글랜드지역에 야외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을 제공하기 위해 이 어드벤처 파크를 개장했다고 말했다.

그 계기가 된 것은 온 가족과 함께 방문한 버몬트에 있는 이와 비슷한 어드벤처 파크였다. "그때 정말 좋은 가족 추억을 만들었다. 요즘에는 온가족이 같이 즐길 수 있는 활동이 매우 드물다. 여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곳이다."

7세 이상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입장료는 나이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어른의 경우 30분의 안전수업을 포함한 3시간 세션을 52불을 내고 즐길 수 있다. 시즌별 패스나 단체입장 할인기도 가능하다.

금요일과 토요일에만 열리는 LED 조명 밤 등반이나 7월 31일 날 진행되는 "Glow in the Park" 등의 특별행사에 대한 정보나, 기타 자세한 정보는 tree-topadventures.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소 : 200 New Boston Drive, Canton
sun@bostonkorea.com

연방하원 통과한 GMO표기 법안, 앞으로의 행보는?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선경 기자 = GMO표기 법안이 지난 14일 연방하원에서 통과됐다. 유전자 조작 식품에 대한 표기를 의무화 하는 이 법안은 지난 몇 년간 식품회사 및 바이오테크회사들의 논란으로 통과가 지연되어 왔었다. 이제 백악관에 도착하여 오바마 대통령의 사인만을 남겨두고 있지만, 구체적 실행까지 앞으로 많은 단계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 식품의약국(FDA)은 유전자 변형 식품에 대한 표기 여부를 좀 더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카놀라 오일이나 고과당 옥수수 시럽과 같은 높은 수준의 정제유나 감미료를 포함하고 있는 식품들에 대해 이 법안이 표기 여부를 분명히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GMO식품을 직접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유전자 공학에 의해 생성된 재료로부터 만들어진 식품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GMO표기 법안을 관리 감독 할 예정인 미 농무부는 식품의약국과 의견을 달리했다. 이에 따라 법률에 의한 구체적인 실행 여부는 결국 법정에서 결판이 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는 결국 소송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그렇게 되면 가장 먼저 법령의 언어를 보게 되어있다." 라고 리차드 버멘탈(Richard Blumenthal) 코네티컷 민주당 상원의원은 2주전에 있었던 뉴스 컨퍼런스에서 말했다.

이외에도 표기방법에 대한 논란 또한 분분하다. 이는 GMO표기 법안이 식품회사들에게 몇 가지 표기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전자 조작 재료를



포함 여부를 문자적으로 표기하거나, 포장지에 GMO 아이콘을 추가하는 방법이 가능하다. 그 외에도, Q.R. 코드와 같은 디지털 링크를 통해 구매자들이 직접 자신의 스마트 폰으로 재료를 확인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GMO표기 법안의 지지자들은 문자를 통해 직접적으로 표기를 하지 않게 되면 유전자 조작 재료 첨가 여부가 모호하게 표기 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Q.R. 코드의 경우, 구매자에 따라 그 코드를 읽을 수 있는 수단인 스마트폰이 없는 경우도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상원의원들은 식료품점에서 구매자가 코드를 읽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에는 이러한 내용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다. 히시버그(Hirshberg)는 지난 14일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것은 시민들을 무지하게 만드는 다른 방법이다. 13살짜리도 Q.R.코드가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고 말했다.

7월 1일부터 시행된 버몬트 주의 GMO표기 법안은 제품의 포장에 문자로 표기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따

라 많은 회사들은 제품의 포장에 문자표기를 추가했다. 이는 미국 전역에서 실시될 표기 법안에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 법안은 버몬트 주의 법이나 다른 주의 표기 법안을 무효로 만들 수 있지만, 이미 한번 GMO표기로 제품포장에 많은 비용을 지불한 회사들이 그 라벨을 제거하기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기란 쉽지 않다. 또한, 구매자들이 점점 자신이 먹는 음식에 대한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라벨 인사이트(Label Insight)에서 실시한 1,500명의 구매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들 중 37%가 더 자세한 재료표기를 하는 회사가 있다면 그동안 구매해왔던 제품 대신 그 회사의 식료품을 선택할 의사가 있다고 대답했다.

이 외에도, 홀푸드마켓(Whole Foods Market)은 앞으로 2년 안에 GMO표기를 요구할 것이라 밝혔으며, 다농(Danon)은 미국에서 판매하는 모든 요구르트 제품에 대해 올해 말까지 GMO 재료에 대한 표기를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sun@bostonkorea.com

**광어,우럭
사시미에
한잔 생각하시면
오빠 스시로
오세요**

185 Harvard Ave. Allston
617 202 3808

김성애(Seong Ae Kim) Realtor

Newton, Brookline, Boston, Cambridge, Belmont, Lexington, Waltham, Yarmouth

보스톤에 처음 오시거나 내 집 마련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보스톤 일대의 아파트/콘도/주택 매매 렌트를 성심 성의껏 세심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을 통해 고객님의 희망사항에 맞춰 찾아드립니다.

김성애(Seong Ae Kim) Realtor
Coldwell Banker Residential Brokerage

1261 Centre St. Newton, MA 02459
Office: 617.969.2447 Cell: 857.919.3055
Email: SeongAe.Kim@NEMoves.com

惠民 Park Acupuncture and herbal medicine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최상의 선택
혜민한의원

617-787-0789 www.acupark.com
60 Leo M. Birmingham Parkway, Suite 101, Brighton, MA 02135

[D-7] 윈도우 10 업데이트를 망설일 필요가 없는 이유

무료 업데이트 제공 마감일 일주일 앞으로
기존 문제점 대부분 해결, 사용자 선택만 남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시훈 기자 = 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가 윈도우 7과 8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윈도우 10 (Windows 10)의 무료 업데이트 제공 마감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윈도우 10은 향상된 CPU와 그래픽 카드 성능과 함께 컴퓨터와 휴대폰, 게임 콘솔, 태블릿PC 등의 다양한 플랫폼을 동일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녔다.

MS는 무료 업데이트라는 파격적인 결정으로 시장 점유율을 조기에 높여 했지만 의외의 복병을 만났다. 2016년 6월 기준 전세계 OS 점유율에서 MS의 윈도우 10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22%로 윈도우 7(42%)의 절반의 점유율에 그친 것이다. 윈도우 10으로의 업데이트를 꺼리는 이유는 “업데이트를 한 뒤 발생할 오류”에 대한 걱정보다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이유가 가장 많았다.

호환성 문제 대부분 해결

윈도우 10으로의 업데이트로 기존의 프로그램이나 주변기기를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에 불과했다. 윈도우 10의 사용자들은 한결같이 기존에 사용했던 프로그램이나 주변기기가 윈도우 10에서도 정상적으로 작동한다고 입을 모았다. 윈도우 7을 사용하다 10으로 업데이트 한 장선록 씨는 “친구가 호환성 문제가 없다고 말해서 업데이트를 했는데 친구 말대로 호환성에 전혀 문제가 없었고 만족 그 자체였다”며 “OS중 가장 진보된 형태로 일반 사용자가 쓰기에 적합하다”고 말했다. 윈도우 10 공개 초기에 발생한 오류들로 윈도우 10으로 업데이트를 한 사용자들이 다시 기존의 운영체제로 돌아가는 사례도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해결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MS는 “더 이상의 새로운 윈도우 없을것”이라 밝히며 신규 제품 발매 대신 지속적인 업데이트로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한국 금융 전산 시스템 이용도 문제 없어

한국인 사용자라면 호환성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금융 전산시스템 이용 문제였다. 그러나 2016년 7월 현재 윈도우 10에서의 금융 전산 시스템 이용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5년 8월에 한국의 100대 웹사이트 중 윈도우 10에서의 접속이 불가능 한 사이트는 18개였으나, 2016년 7월 현재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내의 은행과 보험 증권회사 등의 모든 주요 금융 사이트도 익스플로러 11에서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실행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자의 선택만 남아

기존에 제기되었던 문제가 대부분 해결된 현

상황에서 남은 선택은 사용자들이 윈도우 10 업데이트가 필요하지 결정하는 것이다. 윈도우 7의 사용을 고수하고 있는 사용자 덴 여만씨는 “새로운 운영체제를 시도하는 모험을 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우선 게이머들이나 멀티태스킹을 사용하는 고사양 유저들은 업데이트가 필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고사양의 그래픽 카드와 CPU들이 윈도우10에 최적화 된 경우가 많고, 다중코어 프로세서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되어 한층 빠른 속도로 고사양의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성능의 작업을 하지 않는 라이트유저들에게는 이러한 장점을 지닌 윈도우10으로의 업데이트가 당장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윈도우 10으로의 업데이트 계획이 없는 사용자들의 상당수는 다음 컴퓨터로의 교체 시까지 기존의 운영체제 사용을 고수 할 것이라고 대답한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MS는 구 버전 윈도우에 대한 보안 지원을 3-4년 뒤부터 종료할 계획이어서 안전한 PC 사용을 원한다면 7월 29일 까지 무료로 업그레이드 하는 게 낫다는 평가다.

윈도우 10은 마이크로 소프트 공식 스토어에서 홈버전 119달러, 프로버전 199달러에 판매중에 있으며 7월 29일 이후로 무료 업데이트 제공이 종료되면 윈도우 10은 유료구매만 가능하다. 윈도우10에 관련된 정보나 호환성 관련 정보는 www.Win10OK.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itshunne@bostonkorea.com

Grace Acupuncture and Oriental Medicine

은혜한의원에서

희망을 도와드립니다.

- ① 요통, 어깨, 목, 허리, 손목, 무릎 통증
- ② 두통, 편두통, 어지러움, 메스꺼움, 불면증
- ③ 비염, 천식, 알레르기, 위장, 소화불량, 장염
- ④ 만성 편두통, 두통, 목통증
- ⑤ 소화장애, 변비, 과민성 대장증후군
- ⑥ 심혈관 질환 예방, 비만, 다이어트
- ⑦ 만성 질환을 가진 노인에게 이상
- ⑧ 정기 예방검진으로 조기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81.862.1842

www.graceaom.com

442 Marett Rd, Suite 6
Lexington, MA 02401

“당신의 환한 미소가
마음만큼입니다.”

거의 모든 보험 받습니다
매쓰헬쓰도 받습니다

978.689.9363
(한국어문의)

465 South Broadway Lawrence MA 01849

GB Family Physical Therapy

가족 물리치료 병원

REDCORD식 치료법 도입

진료분야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어깨, 팔, 무릎, 다리 및 각종 운동 후 통증
척추 측만증 및 자세교정

교통사고/직장상해 보험, 유학생/여행자 보험,
메디케어 외 정부보험 및 미국보험

대표: 781-365-1876 한국어 781-365-1867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www.gbfamilypt.com



조기유학 및 학업지도 대표 기관

BOSEC 보스톤 유학원

www.bosec.com

보스톤유학원은 가장 오래 전통을 가진 유학원으로 많은 학생들을 명문 중/고등 사립 학교와 명문 대학에 입학 시켜온 교육 컨설팅 대표기관입니다. 보스톤 유학원은 학생들이 미국에서의 학업에서 성공하도록 최상의 컨설팅과 수준높은 학업지도를 제공합니다

중 고 대학 입학 컨설팅 (강남 사무소 운영)

1. 조기유학, 초/중/고 /대학 입학, 전학, 인터뷰 가이드 전문
2. 한국에서 갓 전학 온 학생 교육컨설팅
3. 대학 입학 상담, 지원서 작성 (College Consulting) : 하버드 입학담당관 출신이 전문위원으로 활약
4. 가디언, 홈 스테이, 여름/겨울 캠프
5. 주말 봉사활동, 특활 지원
6.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www.bosec.com

■ 컨설팅 서비스의 특징: 다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성공적 상급 학교 진학을 보장하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서울 사무소: 부모님 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 단지 내에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 참조)

■ 합격한 중, 고등 학교: Fay, Choate Rosemary, St. Paul, Milton, Groton, Kent, NMH, Loomis Chaffee, Hotchkiss, Lawrenceville, St. George, Middlesex, Concord, Governor Dummer, Eaglebrook, Cardigan Mountain, Fessenden, Cushing, Brooks, Westover, Dana Hall, Holderness, Kent, Worcester Academy, Eaglebrook, Philips Academy, Pomfret 등.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 합격한 대학: Harvard, Yale, Stanford, Cornell, Columbia, NYU, Bowdoin, Dartmouth, Trinity, Emory, U. Mich., U. Penn. Brandeis, Boston College, Bowdoin 등 다수

튜터의 자질과 경력을 보고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학업 지도 튜터링

ACT SAT SSAT TOEFL AP 전문

강사진: 전원 Harvard, MIT 등 명문 대 교수진, 박사과정,

대학원생 및 미국인 현직 교사.

튜터링 경험이 풍부한 보스톤 지역 최고의 강사진.

- 대상 학생: Native Speaker, 유학생, 보딩스쿨/데이스쿨 학생
- 한국식 엄격한 지도, 숙제 관리.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지도 함.
- 시험 요령 습득이 아닌 실력 향상 위주.
- SAT, TOEFL, SSAT수강생 전원에게 정선된 필수 단어 목록 제공

Private Tutoring

English, Essay Writing
 Math, History, Science
 Latin, French, Spanish, Chinese
 SAT II, AP, 수학 / 과학 경시

여름 방학 특강 (보스톤)

SAT ACT SSAR ISEE TOEFL 집중반 6월 - 8월
 개인 지도 전 과목 집중지도

추수감사절, 겨울방학, 봄방학 (보딩스쿨)

2001년부터 제공되어온 전통있는 프로그램

2015년 추수감사절 프로그램: 11/21-11/30

ACT, SAT, SAT II, AP, 학교 수업 과목 개인지도

프로그램 특징:

- 학생별 필요에 따른 개인지도 및 그룹지도
- 최고의 강사진 (하버드 대학 캠퍼스 옆 위치)
- 원하는 경우 호텔에서 재우지 않습니다

보스톤 유학원

미국: 545 Concord Avenue, Suite 214,
Cambridge, MA 02138

한국: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림 아크로텔 2914호
(삼성 타워팰리스 단지 내 02-579-9731)

대표: 원장 공학박사 송영두

Tel 617-491-0041
617-491-0043

* 교사 수시 모집: info@bosec.com 으로 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홈스테이 가정 수시 모집: 뉴잉글랜드 전역. info@bosec.com 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사절.

* 사무 직원 모집: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분. humanresource@bosec.com 로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주차는 보스톤유학원 옆의 Fresh Pond Mall 의 Whole Foods Market에 하시면됩니다."

아마존 풀리버 센터 오픈 전 적극적 구인

물품 분류 및 배송 준비 담당 500명 이상 채용
주 4일 근무, 급여는 최대 시간당 14.74 달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세계 최대의 온라인 쇼핑물 아마존에서 매사추세츠 주와 인근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구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아마존은 매사추세츠 주는 물론 로드아일랜드 주에서도 수 차례 설명회를 열면서 사람들을 채용하고 있다.

아마존은 현재 매사추세츠 풀리버(Fall River) 지역에 대규모 설비 센터를 건설 중이다. 120만 스퀘어 피트 규모의 이 설비 센터는 오는 9월 21일 오픈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아마존이 채용 중인 분야는 주로 이 설비 센터에서 물품 분류 및 포장, 배송 준비 등을 담당할 인력이다. 아마존 풀리버 센터에서 일을 하길 원하는 사람은 크고 무거운 짐을 운반할 수 있어야 하고 최소 18세 이상이어야 지원할 수 있다.

고등학교 졸업 이상, 혹은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사람이 지원할 수 있고 기본적인 컴퓨터 활용 능력이 필요하다. 또한 온라인 지원을 위해 개인 이메일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아마존 풀리버 센터 채용에 대한 정보는 amazondelivers.jobs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곳에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아마존에 채용이 되면 일주일에 4일, 하루에 10시간 일을 하게 된다. 근무 요일에는 주말이 포함될 수 있으며, 1년 단위로 주간 근무조와 야간 근무조가 2교대로 돌아가며

근무를 한다. 아마존은 풀리버 센터의 운영을 위해 최소한 500명 이상을 채용할 예정이다. 이곳에서 일을 하게 되면 시간당 12.75 달러에서 14.74 달러 사이의 급여를 받고, 출근 첫날에 건강 보험이 제공된다. 학교를 다니면서 일을 할 경우 근무 시간에 상관 없이 학비 보조가 가능하다. 입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반드시 약물 검사를 받고 45분 동안 진행되는 온라인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

jsi@bostonkorea.com



9월 오픈 예정인 아마존 풀리버 센터에서 500명 이상을 채용 중이다



매년 여름에 있었던 세일즈 택스 할리데이가 올해는 없다

올해는 세일즈 택스 면제일 없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매년 여름이면 매사추세츠 주에서 한시적으로 세일즈 택스를 면제해 주던 세일즈 택스 할리데이(Sales Tax Holiday)가 올해는 없다. 매사추세츠 주민들은 사고 싶었던 고가의 텔레비전이나 가구 등을 여름에 세일즈 택스 할리데이에 맞춰 구입하면 적지 않은 돈을 아낄 수 있었다.

매사추세츠 의회에서는 올해 세일즈 택스 할리데이를 제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스탠 로젠버그 주 상원의장과 로버트 들리오 주 하원의장은 주 정부의 재정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허리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행 6.25%인 세일즈 택스를 주말에 이를 동안 면제해 줄 경우 올해 예상되는 세금 손실은 약 2,600만 달러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18일 찰리 베이커 주지사와 정례 회동을 마친 후, 올해는 세일즈 택스 면제를 주 정부가 제공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매사추세츠 주는 2004년부터 1번을 제외하고 매년 세일즈 택스 할리데이를 지정해 왔다. 세일즈 택스 할리데이는 영구적으로 정해져 있는 법안이 아니며 매년 의회가 새롭게 제정해 왔다.

jsi@bostonkorea.com



서울설렁탕

한식 세계화의 종갓집이 되겠습니다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 617.505.6771





더 나은 봄, 서울설렁탕의 미역, 콩나물, 보쌈, 두육과 함께 각종 두류를 즐기세요!





서울설렁탕 in Allston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617.505.6771
BeefSoupSoup.com



서울 or Seoul in Boston
158 Cambridge St., Boston
#617.877.8888
SeoulFoxBoston.com

“고객의 이익을 늘 앞자리에 두겠습니다”



스티븐 손

SINCE 2001

수석부사장, 브로커
부동산전문, 리얼터



NEWSTAR BOSTON

주매, 임대, 사업체, 건물, 투자

617.290.0623

Stevenson@newstarrealty.com
Sun2323@gmail.com
Bostonnewstarrealty.com

"HOT" 비즈니스 매물 정보!

RT.128 & I-95 안쪽에
모든 장비 갖춘 세탁소:
부부 운영 Net \$100K이상 \$150K(강추)



Waltham 불안의 픽업 스토어:
많은 확대 가능성!
신규 또는 확장에 적격 \$149K(필건)



ISIS, 매사추세츠 공무원 260여명 "살해 명단"에 올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선경 기자 = 260명이 넘는 매사추세츠 공무원의 이름이 ISIS의 살해 명단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찰리 베이커 주정부와 주 경찰 및 보스톤 경찰은 FBI와 함께 이 명단에 기재된 사람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경찰에 따르면 "살해 명단"은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된 것으로 그 리스트에는 사람들의 이름뿐만 아니라 집주소와 전화번호도 같이 노출되어 있다. 대부분은 주 재정과 예산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이름이었다.

주 경찰은 지난 17일 저녁 성명서를 통해 매사추세츠 주내에 당면한 테러 위협은 없는 것으로 믿고 있다

고 밝혔다.

그럼에도 명단에 포함된 사람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명단에 포함된 주 상원의원인 조 허비츠(Joe Hurvitz)는 FOX25와의 인터뷰를 통해 "난 그저 매일의 일상을 살아갈 것이다. 이런 일에 너무 몰두해 있을 수는 없다"라며 이 일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반면 보건사회복지부의 마가리타 필드만(Margarita Feldman)은 이미 미국에 거주해 있을 ISIS 멤버의 존재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우린 그들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들은 어디에나 있을 수 있고 심지어 길거리에도 있다"고 말한 필드만은 한걸음 더 나아가 난민을 통해 ISIS가 이

나라에 유입되고 있다고 언급해 일부 미국인들의 난민혐오를 반영했다.

국토안보부는 이러한 "살해 리스트"가 보편적인 것이라 말한다. 과거 ISIS는 경찰과 군인 관련자들의 이름이 담긴 리스트를 만든 적이 있다. 가장 최근에는 시카고와 로드아일랜드의 공무원들을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 국토안보부의 조사자들과 FBI 및 주 경찰은 리스트에 이름이 없다고 해도 항상 주위를 살필 것과, 혹시 수상한 일을 목격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할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당부했다.

sun@bostonkorea.com



미국 플로리다 올랜도의 디즈니월드 리조트

악어에 2살 아들 잃은 부모 "디즈니에 소송 안한다"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지난 달 미국 플로리다 디즈니월드에서 악어에 잡혀가 숨진 2살 남아의 부모가 디즈니사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20일 밝혔다.

CNN에 따르면 악어에 아들을 잃은 매트 그레이브는 이날 낸 성명에서 아내 멜리사와 최근 이혼한 사실을 고백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레이브는 "우리 부부는 우리의 사랑스러운 아기 레인에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인지를 이해하기 위해 끝없이 갈등할 것"이라며 이혼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시간이 지날 수록 고통은 더욱 심해졌지만 우리 부부는 전세계에서 받은 따뜻한 위로와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레이브는 숨진 아들을 기리기 위해 그의 이름을 딴 '레인 토마스 재단'을 설립했으며, 재단을 통해 자선단체들에 기금을 기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소송을 포기한 가족의 결정에 디

즈니사는 가족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성명을 재단에 전달했다고 CNN은 전했다.

사고 후 가족에는 펀딩 사이트 '고펀드미'를 통해 약 2만 5000달러(약 3000만원)의 성금이 전달된 바 있다.

레인은 지난 6월 올랜드 디즈니월드 리조트에 있는 인공 호수 세븐시스 라군에 발을 담근 채 걷고 있던 중 악어에 물려 호수로 끌려갔다. 당시 옆에 있던 부모는 악어를 잡기 위해 현장으로 뛰어갔으나 악어에 부상을 입고 구출에 실패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레인은 이튿날 숨진 채 발견됐고, 사인은 익사였다.

당시 사고 현장 주변에는 '수영 금지'표지판만 있고 악어에 대한 경고는 전혀 없었다. 디즈니사는 이후 호수 주위에 '위험', '악어와 뱀이 있다' 등의 표지판을 설치하고 호수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시켰다.

baebae@news1.kr

"美 3개주, 폭스바겐 디젤조작 관련 추가 기소 계획"

(워싱턴 로이터=뉴스1) 신기림 기자 = 미국 메릴랜드, 뉴욕, 매사추세츠 등 3개 주(州)가 독일 자동차 폭스바겐의 디젤차량 배기가스 조작과 관련해 새로운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브라이언 E. 프로쉬 메릴랜드주 검찰총장은 18일 성명을 내고 폭스바겐을 자사 디젤 차량의 배기가스를 법적 허용치보다 40배 넘게 배출하도록 조작한 것과 관련해 또 다른 건으로 기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식통에 따르면 뉴욕과 매사추세츠의 주 검찰 역시 같은 이슈로 별도의 기소를 준비중이다.

뉴욕주는 지난달 다른 43개주와 더

불어 폭스바겐 조작과 관련해 '부분적'으로 합의하고 6억300만달러 벌금

에 합의했다. kirimi99@news1.kr



독일 자동차 폭스바겐의 디젤차량 배기가스 조작과 관련 새로운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집을 사시거나 파실때 믿겨 주시면 최선을 다해 일 하겠습니다.

2014년 뉴스타 미주 전체 3등 수상
2015년 뉴스타 미주 전체 2등 수상

집을 사고 팔면 언제든 지 승진(GINA)과 승원(PETER)을 찾아 주세요.

TEL) 978.866.3248(최승진), 617.780.7839(주승원)
ginachoi@newstarrealty.com, peterju@newstarrealty.com

트럼프 '미국에 의무 다했을 때만 동맹 지원'

NYT 인터뷰 "안보 무임승차론" 재확인한 듯
"러, 나토 발칸국 공격시 지원하냐" 질의에 답변

(AFP=뉴스1) 윤지원 기자 = 미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공식 지명된 도널드 트럼프가 '안보 무임승차론'을 이유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체제에 대한 반감을 또 다시 드러냈다. 트럼프는 20일 뉴욕타임스(NYT)와 45분간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나토 발칸국을 공격하는 경우 지원에 나설 것이냐는 질문에 "미국에 의무를 다한 국가만 지원할 것"이라고 답했다. 트럼프의 이 같은 발언은 회원국 중 하나가 공격받을 경우 모든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무력을 통한 지원을 명시한 나토법 제5조를 따르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트럼프는 그간 경선 과정에서 한국 등 동맹국에게도 방위비 분담 확대를 강조했다.

또 군부 쿠데타를 계기로 터키 당국이 무차별적으로 진행되는 반정부 세력 숙청 작업에 대해서는 "우리 나라에 일어나는 일을 봐라. 경찰을 사살하는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설교를 하느냐"면서 입장을 밝히기를 거부했다.

반면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에 대해서는 군부 쿠데타를 진압한 것에 대해 "자질을 인정한다"고 치켜세웠다.

NYT는 터키 남부 나토기지인 인시리크가 폐쇄되는 등 이번 쿠데타 진압이 미국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점을 지적하면서 "트럼프는 터키에 대해 칭찬 외에는 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yjw@news1.kr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후보와 러닝메이트 마이크 펜스 주지사(오하이오)

"양심따라 투표하라" 트럼프 끝내 지지안한 크루즈 '아유'

(서울=뉴스1) 정이나 기자 =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 연사로 나선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이 20일 "양심에 따라 투표하라"며 끝내 대통령 후보로 추대된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지지 표시를 안해 당내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오하이오 클리블랜드의 쿼린트스 아레나 무대에 오른 크루즈 의원은 전당대회에 참석한 수많은 인파를 향해 "우리에게 공동의 가치야 우리들 통합하고 증오대신 사랑을 선택하는, 원칙을 따르는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나라를 사랑하고 당신의 아이들을 사랑한다면 일어서서 목소

리를 내라. 양심에 투표하라"고 말했다. 크루즈 등장에 맞춰 환호하던 관중은 그가 트럼프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자 '아유'를 보내기 시작했다. 크루즈의 이번 전당대회 참석을 두고 일각에서는 크루즈가 트럼프의 올해 대선 패배를 예상하고 2020년 공화당 대선후보로 나서기 위한 발판으로 삼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트럼프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지 않은 크루즈의 연설 내용에 공화당 내부에서도 비판 여론이 나오고 있다. 미시건주 대의원인 매리 발케마(49)는 크루즈의 연설이 "개탄스럽다"며 "연대를 보이고 우리 후보 뒤에 서

주기를 기다렸는데 크루즈는 그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후보도 트위터를 통해 "와우, 테드 크루즈가 무대에서 '아유'를 받았다. 서약을 지키지 않았다"며 "두시간 전에 이미 그의 연설 내용을 봤지만 그래도 연설하도록 놔뒀다. 별일 아니다(No big deal)"라고 전했다.

Ichung@news1.kr



테드 크루즈 미국 상원의원



멜라니아 트럼프

트럼프 부인 연설문 작가 '표절' 사과 트럼프는 시표 반려

(서울=뉴스1) 정진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의 부인 멜라니아의 연설문 작가가 20일 영부인 미셸 오바마 연설문 일부 표절에 대해 사과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연설문 작가 메레디스 맥클버는 "멜라니아가 미셸 여사를 항상 좋아했고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말하고 싶은 부분을 미셸 여사의 연설 일부 내용을 예로 들며 읽어왔다"고 밝혔다.

맥클버는 "나는 읽어준 부분을 적었고 나중에 최종 연설문 초안에 이 가운데 일부를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미셸 여사의 연설을 확인하지 않았다"며 "내 실수이며 내가 일으킨 혼란을 끄적하게 여긴다"고 말했다. 맥클버는 이번 과문과 관련해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트럼프가 "사람은 악의 없는 실수를 한다"며 반려했다고 밝혔다.

맥클버는 "내 실수로 일어난 혼란과 히스테리에 사과한다"며 "개인적으로 이번 상황을 처리하는 트럼프의 방식을 존경하며 그의 이해에 대해 감사한다"고 말했다. 표절 의혹이 제기된 부분은 미셸이 8년 전 언급한 어린 시절 부모에 관한 내용이다. 멜라니아는 연설에서 "어린 시절 부모님은 삶에서 원하는 것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라는 것과 자신이 내뱉은 말은 반드시 지키고 늘 존경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라고 가르쳐주셨다"고 말했다. 이는 미셸 여사가 8년 전 연설에서 "버락과 나는 많은 가치를 공유하며 자랐다"며 "삶에서 원하는 것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라는 것과 자신이 내뱉은 말은 반드시 지키고 늘 위엄과 존경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라는 것"과 내용만 아니라 단어까지 빼닮았다.

jitan@news1.kr



태양자동차

Body & Repair / States Inspection

모든 차량 정비 서비스
유법, 미국, 일본, 한국


STATES INSPECTION


사고가 났습니까?

사고가 난 차를 원상 복구해 드립니다.
인슈어런스 바디워크 합니다.

617.868.2500
617.868.2600


48 NEW ST. CAMBRIDGE, MA 02138
Harvard Sq. 5 min / Lexington 10 min / Newton 20 min
E-mail: sunautobody@yaohoo.com






Eileen Park (마일린 박)
REALTOR®
RE/MAX Unlimited

주택 | 콘도 | 커머셜
점심점 도와드리겠습니다




Tel: 617.935.3241 | 카카오톡: Eileen0311
Email: EileenBostonRE@gmail.com
420 Harvard Street, Brookline MA



손영권 치과

좋은 치과, 좋은 치아



Young K Son, DMD
youngdentistrypc.com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포켓몬 고' 흥행에 관련주 급등... 배터리 케이스株 25% ↑

(서울=뉴스1) 황윤정 기자 = 일본 게임업체 닌텐도 주가가 '포켓몬 고'의 흥행에 힘입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스마트폰 배터리 관련주도 덩달아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19일 도쿄 증시에서 닌텐도 주가는 13% 급등세로 개장했다. 이후 우리시간으로 10시30분 현재 상승폭은 8%로 다소 축소된 상태이다.

'포켓몬 고'의 흥행에 미국 ZAGG의 주가도 웃었다. 최근 한 주간 ZAGG의 주가는 25% 이상 급등했다.

ZAGG은 스마트폰용 액세서리를 판매하는 업체로 올해 초 배터리케이스 제조업체인 '모피'를 1억달러(1140억원)에 인수했다.

IT 전문 매체인 PC매거진은 '포켓몬 고'가 전 세계적인 열풍을 보임에 따라 보조 배터리나 배터리케이스 업체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매체는 '포켓몬 고' 게임을 즐기

는 사람들 중 아이폰6를 가진 사용자들에게 모피의 '주스팩에어'를 추천했다. '주스팩에어'는 아이폰6 전용 배터리 내장 케이스이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ZAGG 주가 급등과 같은 '포켓몬 고' 관련 종목의 강세도 '주식 버블'일 수 있다고 경고하며 경계감을 늦추지 말라고 조언

한다.

닌텐도의 주가가 일주일 사이 80% 이상 폭등하는 등 버블 징후가 짙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CNN머니는 "포켓몬 고'의 흥행에 따라 관련 종목 주가도 당분간 강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yung@news1.kr



포켓몬의 캐릭터 '피카츄'

"생산성 하락 수수께끼 풀렸다...주범은 포켓몬 고?"

스테이트 스트리트 풍자 "SNS에 과도하게 열중"

(서울=뉴스1) 박병우 기자 = 글로벌 경제의 도약을 위해서는 스마트게임 '포켓몬 고'를 끊어야 한다(?).

경제전문가들은 글로벌 경제의 부흥을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할 항목으로 생산성 둔화 해소를 꼽고 있다.

이에 대해, 글로벌 투자은행 스테이트 스트리트는 마침내 생산성 수수께끼가 풀린 것 같다고 19일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이 그 주범으로 '소셜 미디어'를 지목한 것이다. 풍자가 섞였으나 어찌 보면 사실에 가까울 수 있다고 스

트릿은 평가했다.

인터넷 데이터 수집업체 시밀러웹(similar web)에 따르면, 미국에서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으로 메신저나 왓츠앱 등 소셜미디어에 사용하는 시간은 2시간을 넘고 있다. 그중 으뜸은 단연 닌텐도의 '포켓몬 고' 게임이다. 40분 이상 열중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회사의 생산성이 안좋다면...

parkbw@news1.kr



승자 없는' 유가 전쟁... 사우디와 美세일 모두 '출혈'

(서울=뉴스1) 황윤정 기자 = 올해 상반기 국제유가는 30% 가까이 상승했다. 현재 국제유가는 2월 저점 대비 75% 이상 뛰어오른 상태이다. 전문가들은 유가 상승으로 미국 세일오일 생산업체들이 한시름 덜었다고 진단한다. 지난 2년간 이어진 유가 급락기에서 세일오일업체들이 최대 피해자로 비쳐졌지만 사우디아라비아도 출혈을 피하지 못했다는 진단이다.

시장조사업체 글로벌리스크인사이트(GRI)는 18일 석유 전문매체 오일프라이스에 게재한 "유가 전쟁의 진정한 승자는 누구?" 제하의 기고를 통해 현 상황에서 뚜렷한 승자는 없다고 강조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치킨게임에 주도하며 미국 세일업체에 막대한 출혈을 야기했으나 세일업체들도 비용 효율화로 점유율 경쟁에 뛰어 들며 글로벌 석유업계 전체에 충격을 줬다고 분석했다.

미국 세일산업의 피해는 명약관화했다. GRI는 원유를 생산하는 미국의 시추공 수가 지난 수년 사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미국 세일업체들에게 있어 '생존의 핵심 열쇠'는 새로운 생산 활동을 재개하기 위한 자본 조달 능력에 달려있다. 그러나 미국 석유기업들은 여전히 버는 돈보다 많은 규모의 돈을 쓰고 있다.

원유 전문가인 닉 커닝엄에 따르면 미국의 주요 상장 석유 및 가스 업체들의 올해 1분기 자본지출 규모는 149억달러(17조2400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자본 지출 규모가 줄어들었음에도 영업현금흐름은 100억달러(11조6000억원) 순유출을 나타내고 있다.

GRI는 "석유 수출 국가기구(OPEC)는 앞으로도 원유시장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할 것이지만 과거 5년간 석유업계의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일오일의 영향력 확대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따라 OPEC 회원국들은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yung@news1.kr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FIVE YEAR ANNIVERSARY

BOSTON FISHERIES FOUNDATION 주최

BOSTON SEAFOOD FESTIVAL

오전11시 부터 오후 7 까지

2016년 8월7일 주일

역사적인 보스톤 어항

해산물 판매대들 // HARPOON 맥주 판매대 // 요리사 시연회 // 교육지 들과 강연자 들
 종일 랍스터 요리 // 장인들과 기능인들 // 껍질 벗기는 이들의 경쟁
 생선자르기 경연대회 // 현장음악 // 어린이들을 위한 오락!



BOSTONSEAFOODFESTIVAL.ORG

[f BOSTONSEAFOODFESTIVAL](https://www.facebook.com/BOSTONSEAFOODFESTIVAL) [@BOSTONSEAFEST](https://twitter.com/BOSTONSEAFEST)

우병우, 불어난 의혹에 직접 설명...4대쟁점과 해명 총정리

처가부동산 · 몰래변론 · 아들꽃보직 · 진경준 부실검증

(서울=뉴스1) 윤태형 기자 =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은 2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을 찾아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을 일일이 해명하며 결백을 주장했다.

이날 우 수석이 직접 출입기자들이 상주하는 춘추관을 찾은 건 지난 18일 재산 관련 의혹이 처음 제시된 이후이틀 만에 각종 의혹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입장자료로 일일이 해명하는 차원을 넘어섰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만나 '처가부동산' '몰래변론' '아들 꽃보직' 등 그동안 불거진 의혹들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진 것이다.

우 수석은 "아침에 보도자료 쓰고 저녁에 고소하고 이제 안하겠다. 너무 다방면으로 퍼져나가고 있다"면서 "마치 굉장한 의혹이 있는 것처럼 돼 있는데, 사실 관계를 보면 제가 해명할 수 없는 부분이 대부분이다. 일일이 해명 안하겠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먼저 자신의 장인이 네 딸에게 물려준 서울 강남역 인근 1000억 대 부동산을 검사로 재직 중이던 2011년 넥스코리아가 매입했고 이 과정에서 구속된 진경준 검사장이 개입

했을 의혹이 있다고 전한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해명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우 수석은 지난 2008년 장인이 작고한 뒤 처갓집이 500억원이 넘는 상속세를 내지 못해 애를 먹던 중 2011년 문제의 부동산을 넥스코리아에 1326억원에 매각했다.

조선일보는 당시 넥슨은 서울 사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 땅을 매입했지만 9개월 만에 금융비용을 포함 30억 손해를 보고 팔았다면서, 넥슨이 우 수석 처가의 편의를 봐준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회장과 친분이 두터운 진 검사장이 다리를 놔준 게 아니냐는 의혹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우 수석은 "그 땅에 대해 김정주 회장에게 사달라고 한 적이 없다. 진경준을 통했든 말았든 간에 아예 그런 사실이 없다"면서 "진경준을 통해서 김 회장에게 부탁한 적도 없고, 다리를 놔줬다는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한 한겨레신문은 20일 부동산 중계인에게 수수료 10억원을 주고 계약했다는 우 수석의 해명과 달리 당사자 간 거래로 신고돼 있다면서 다운계약

서 의혹 등을 제기했다.

우 수석은 "성실하게 세금 내기 위해 그 땅을 팔았는데 '세금 줄이려고 다운계약했다'는 의혹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넥슨이 우 수석 처가로부터 부동산을 매입한 시점이 부동산 침체기인 2011년 3월인 점을 들어 넥슨이 우 수석 측에 편의를 제공한 게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그 땅은 대체 불가능한 강남역에 위치해 있고, 깨끗하고 심플하게 살 수 있는 땅이어서 많은 문의가 있었다"면서 "기사를 보면 400명이 보러왔다고 했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또한 법조비리로 구속된 흥만표 변호사와 함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의 변론을 수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맡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른바 '몰래 변론 의혹'에 대해 우 수석은 사실무근임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 경향신문은 19일 우 수석이 정식 수임계를 내지 않고 법조비리로 구속된 흥만표 변호사와 함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의 변론을 맡았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또한 이 매체는 우 수석이 흥 변호사와 정 전 대표를 이어준 의혹을 받으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법조브로커 이민희씨와도 어울려 다녔다고 알렸다.

이에 대해 우 수석은 "정운호, 이민희 모두 모르는 사람이다.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수임했다는 (의혹은) 말이 안된다"면서 "또 모든 사건에 선임계를 냈고 다 신고 했다. 전화변론한 적 없고 다 찾아가서 직접 설명하고 의견서도 냈다"고 밝혔다.

또한 우 수석은 자신의 아들이 의무경찰(의경) 복무 2개월여 만에 전보대상 의경들의 선호도가 높은 서울지방경찰청(서울청)으로 전출된 데 대해서도 해명했다.

우 수석은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가슴 아픈 부분"이라며 "유학 가 있던


아들에게 들어와서 군대 가라고 해서 집에 와서 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더 나아가 "아들의 상사라고 하는, 그 사람 얼굴을 본 적 없다"며 "만난 적도, 전화한 적도 없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모르는 사람"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우 수석은 자신이 구속된 진경준 검사장 승진 당시 청와대 인사담당 책임자였다는 이유로 '부실 검증' 의혹이 제기된데 대해 "(청와대) 인사 검증 과정에서 차명재산, 차명계좌를 들여다 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birakoca@news1.kr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Hammond Residential

Real Estate


40 Grove Street, Wellesley 781.235.5115
•
506 Boston Post Road, Weston 781.893.4466

Kalin Bae (배 경은)




617-981-1542


Umi Cho (우 효희)



508-641-8924



LEXINGTON ... \$ 2,985,000



WAYLAND ... \$ 1,825,000

보스톤코리아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전화: 617.792.6876 이메일: bostonkorean@hotmail.com

H MART

CUSTOMER SERVICE

TOLL FRE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BURLINGTON WEEKLY SALE JULY 22 - JULY 28, 2016

4WAYS TO UPGRADE YOUR GRILLED CHEESE!

Grilled cheese sandwich can get more flavorful, without the work. Here, we upgrade your grilled cheese sandwich with our pre-marinated meats! Share it facebook.com/hmartofficial Learn to cook it pinterest.com/hmartusa

H마트 양념육으로
그릴드 치즈
샌드위치를
더욱 맛있게
즐거보세요!



Crown Broccoli 크라운 브로콜리 \$0.99 lb	Lychee 리치 \$1.99 lb	Korean Melon 참이 박스 \$16.99 box	Organic King Oyster Mushroom 유기농 새송이 버섯 \$3.99 8oz / pkg	Kobocha 단호박 \$0.79 lb
White Peach 백도 \$1.79 lb	ZESPRI Sun Gold Kiwi 제스프리 선골드 키위 \$22.99 box	Ginger 생강 \$0.99 lb	Korean Concord Grape 안양 피루포도 4lbs/pkg \$10.99	아이 러브 두부 MANNA Love Tofu Firm/Soft/Silken - 14oz \$0.88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Boneless Beef Rib Eye Steak 동심 스테이크 \$9.99 lb	Thinly Sliced Beef Brisket 냉동 저지방육 \$9.99 lb
Pork Baby Back Rib (Whole Piece) 돼지 등갈비 \$4.99 lb	Sliced Pork Single Belly for BBQ 비빔균용 생삼겹살 \$6.99 lb
Whole Chicken 통닭 \$1.49 lb	Marinated Boneless Chicken Thigh 양념 닭사슴 \$2.99 lb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Assalone 냉동 전복 \$19.99 lb	Ikuwa Wild Salmon Roe 자연산 연어알 \$20.99 lb
Chilean Cooked Mussel Meat 칠레산 용합살 \$3.99 lb	TONGTONGBAY Mackerel Pike 통통배 The 맛있는 공치 \$2.99 1lb/pkg
TONGTONGBAY Small Yellow Croaker 통통배 참조기 \$4.99 8oz-10oz 1/2 lbs - pkg	WEST BAY Squid Rings 웨스트베이 오징어링 \$3.99 1 lb/pkg

SMART CARD Get smart and save more & big.

Kyong Gi Medium Grain Rice 경기미 43lb \$25.99	KOKUHO Extra Fancy Medium Grain Rice (Yellow) 국오 품 (황포도) 15lb \$9.99
대진 김 건분 DAEJUN Roasted Seaweed Layer All varieties - 0.7oz x 10ea/bag \$9.99	HARIM Instant Ginseng Chicken Stew 익힘 육이 닭계장 21.21oz \$9.99

H MART NOW HAS AN APP & REFRESHED WEBSITE!

THE H MART APP IS NOW LIVE. DOWNLOAD IT AND VISIT OUR REFRESHED WEBSITE FOR ALL H MART SALES, PROMOTIONS, AND EVENTS. H마트의 각종 세일 이벤트와 할인 쿠폰들을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는 H마트 모바일 앱과 더욱더 보기 편리해진 웹사이트를 새롭게 출시되었습니다.

Download on the App Store | Get it on Google play

CJ 맛찬 박스 CJ Cooked White Rice 7.4oz x 12ea/bag \$12.99	NATURE'S Sweet Rice 자연유근 4lb \$4.99	CHORP DUNG Tteobokki with Sauce 조림떡볶이 떡볶이 1.23lb \$3.99	NATURAL GARDEN Organic Pomegranate Juice 배달할 거든 유기농 석류주스 33.8oz \$2.99	DONG WON Canned Bai Top Sori 동원 쌀떡볶이 14.1oz \$5.99
아지노모토 김장 AJINOMOTO Doi All Varieties 9.87 - 11.25oz \$2.99	HAOKUEN Banana Flavored Milk 베오름 바나나맛 우유 200ml x 200/1kg \$4.99	MAEL Biofap Yogurt Flavored Soft Drink 개업 바리오일 요구르트 620ml x 23ea/1kg \$2.99	해미 부리보온 HAMI Bravo Ice Cream Cone White Vanilla Choco Drink 140ml x 4ea/pkg \$4.99	MARUKYO Japanese Snack Wagashi 마루고 일면식 파과자 180ea/8.1oz - pkg \$3.99
세라커우 라몬에 드링크 SERAUKE Ramune Drink All Flavors 1.68L \$0.99	HAAGEN-DAZS Ice Cream 하겐다즈 아이스크림 146g 3\$10	2 Way Microfiber Nap 2 Way Microfiber Nap 410x500 \$12.99	2 Way Magic Nap 2 Way Magic Nap 410x500 \$12.99	2 Way Vetro Nap 2 Way Vetro Nap 410x500 \$11.99

During the editing process, there may be misprints/typo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H마트 판매처에서 H MART BURLINGTON STORE 42 Middlesex Turnpike, Burlington, MA 01803 / TEL: 781-221-4270 / STORE HOURS: Sun - Thu: 9am - 9pm / Fri - Sat: 9am - 10pm

'우병우 수석 고소 · 고발 사건' 모두 조사부 배당...수사착수

檢 "30억원 이상 재산범죄 관련은 조사부에 배당"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검찰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49)의 조선일보 · 경향신문 고소 사건과 우 수석에 대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의 고발 사건을 일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같은 사건을 조사1부(부장검사 이진동)에 일괄 배당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형사1부에 배당했던 '부동산 매각' 의혹과 관련한 우 수석의 조선일보 고소건도 이르면 21일 조사1부에 배당할 예정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9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우 수석과 황교안 국무총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센터는 우 수석의 처가 부동산을 매입해준 김정주 NXC(넥슨 지주회사) 대표, 서민 넥스코리아 대표에 대해서도 배임 및 뇌물공여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18일 우 수석의 장인이 네 딸에게 물려준 서울 강남역 부근 부동산을 넥스코리아가 매입해줘 우 수석 처가가 수십억원의 가산세를 물지 않게 됐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조선일보는 보도를 통해 우 수석의 대학 · 검찰 후배인 진경준 검사장(49 · 구속)이 중간에서 다리를 놔줬고, 이 대가로 우 수석은 진 위원의 승진 인사 검증 때 넥슨 주식 보유를 지적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센터는 이와 관련해 고발장에서 "우 수석은 재산형성에 문제가 있는 진 검사장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해 인사검증을 통과하게 했다"며 "또 (주식거래에 관해) '뭐가 문제냐'고 발언해 검찰의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김 대표, 서 대표와 관련해 "매입할 필요가 없는 (우 수석 처가의) 건물을 매입함으로써 뇌물을 건넨 것"이라고 고발장에 기재하기도 했다.

경향신문은 19일 우 수석이 2013~2014년 변호사로 활동할 당시 정식 수임계를 내지 않고, 검사장 출신 흥만표 변호사(57 · 구속기소)와 함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 · 수감 중) 등의 '몰래 변론'을 맡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흥 변호사와 정 전 대표를 이어준 의혹으로 변호사법 위반혐의 등

으로 재판에 넘겨진 '법조브로커' 이 민희씨(56)와도 어울렸다고도 했다.

우 수석은 이같은 의혹을 전면 반박하며 해당 언론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정정보도 청구와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다.

우 수석은 부동산 매매 의혹과 관련, "매매에 관여하지도 않았고, 처가에서 정상적으로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고 이루어진 부동산 거래에 대해 진 검사장에게 다리를 놔달라고 부탁할 이유도 없고, 부탁한 적도 없다"고 해명

했다. '몰래 변론'과 관련해서는 "정 전 대표를 전혀 알지 못하고 따라서 사건을 수임한 적도 없다"며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전혀 없는 정 전 대표를 '몰래 변론'했다고 보도한 것은 명백한 허위 보도"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진 검사장의 '넥슨 공짜주식' 사건을 수사 중인 이금로 특임검사팀에 우 수석을 둘러싼 고소 · 고발건을 배당하지 않은 것은 검찰의 수사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우

수석은 이 정권 최고 실세로 꼽힌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내규상 고소 · 고발내용에 30억원 이상의 재산범죄 관련 사항이 담겨 있으면 조사부로 배당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센터의 고발 사건에 담긴 배임 관련 내용이 여기에 해당돼 조사1부에 배당된 것"이라면서 "나머지 두 사건도 사안의 관련성을 고려해 함께 조사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cho84@news1.kr



넥스코리아가 우병우 수석의 아내와 자매들로 매각한 부지 위에 새로 지어진 강남역 센트럴푸르지오시티 조감도

여권서도 "우병우 자진사퇴" 요구 확산 조짐

정병국 · 이주영 당권주자들 "책임" "자진사퇴" 주장
나경원도 "거취표명 필요"...공수처 도입도 거론

(서울=뉴스1) 박선미, 이정우 기자 =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야권에서 경질 압박이 거세게 제기되는 가운데, 여권에서도 '책임론', '자진 사퇴'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주영 의원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책임을 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실관계가 어디까지인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솔직하게 다 털어놓고 책임지는 자세가 참된 공직자의 바른 자세"라고 지적했다.

역시 당대표에 출마한 정병국의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스스로 해임(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런 저런 구설에 오르는 것 자체가 대통령께 엄청난 부담이 된다"며 "본인이 좀 억울한 점이 있어도 일단 이런 문제제기가 되면 시시비비를 가리기 전에 스스로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수석이 전날(20일) 기자회견을 통해 '몰러날 뜻이 없다'고 시사한 데 대해서는 "그 자체를 본인이 판단해야 할 부분이지만 대통령을 모시는 자

가 어떤 건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이 자진 사퇴에 무게를 뒀다. 그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일련의 어지러운 상황이 결국 대통령의 힘을 빠지게 하는 부분이 있어 일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본인은 억울한 부분이 있을 거다. 또 억울해 보이는 부분도 있다"면서도 "대통령께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우 수석이 거취를 (표명)해주면 정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주장했다.

이 문제와 관련, 야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요구가 확산되는 데 대해 정 의원은 "이미 2010년 스폰서검사 문제가 발발했을 때 저는 당시 한나라당 사무총장으로 공수처를 비롯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는 꼭 필요하다고 본다"며 "현재 검찰 권력을 견제할 방법이 없어 이런 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비박계 김성태 의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에 나와 관련 질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만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gsm@news1.kr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군인권센터 "우병우 아들 특혜는 평등권 침해"...인권위 진정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우병우 민정수석의 아들인 우모 상경(24)에 대한 특혜 문제에 대해 군인권센터가 '의무복무 병사의 평등권 침해'라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군인권센터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 우 상경의 병역특혜 문제와 관련해 이상철 현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의 의무복무 병사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에 관한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진 우 수석 아들의 특혜의혹에

대해 "전출조치는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이상철 차장의 요청으로 이뤄졌다"며 "이는 의무경찰 배치규정에 위배되는 조치로 이 차장이 규정을 위반하면서 고위공직자의 아들을 전출시키는 '특혜'라고 주장했다.

이어 센터는 이러한 특혜는 자신의 위치에서 묵묵히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다른 병사들에게 모욕감과 박탈감을 줄 수 있다며 사안이 중대함으로 인권위가 이른 시일 내에 직권조사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potgus@news1.kr

보스톤 **코리아**
+
facebook.

=

Like 

www.facebook.com/bostonkorea1
혹은 페이스북 검색창에서 bostonkorea를
검색하세요

매일 업데이트되는
보스톤 소식을
보스톤코리아
페이스북에서
만나 보세요



고품질의 수업을 저렴한 비용으로!

ASC : Boston's #1 ESL School (F1 Students 환영)

CSI 학생이
트랜스퍼할 경우 10% 할인
WhatsApp us Now
617-407-2336



- 1** • ESL Class (6 Levels)
• TOEFL
• Public Speech
• Idioms
- 2** ASC가 특별한 이유! 아래의 대학에 입학하실 수 있습니다.

- IELTS
- Business English
- Daily Conversation

3 Bridgewater State University Pathways Program ASC Pathways Program에서 level 5 이상을 이수하시면 BSU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The Level 5 "TOEFL/IELTS Waiver" applies for	
Northeastern Univ.	Ph-MBA Program
Cambridge College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Lesley College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Lesley University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Merrimack College	Undergraduate (lv. 5) Graduate (lv. 6)
Boston Architectural College	Bridgewater State University
Ragis College	Worcester College
New York Film Academy	

The Level 4 "TOEFL Waiver" applies for
Benjamin Franklin Institute of Technology
Quincy College
Middlesex Community College

The Level 6 "TOEFL Waiver" applies for
Southern New Hampshire University



Main: 1106 Commonwealth Ave. Boston, MA 02215 T. (617) 730-3705
Downtown: 65 Harrison Ave. 6th Fl., Boston, MA 02111 I. (617) 338 5288
Website: www.ascenglish.com

與 前대 새국면... 녹취록 파문으로 '비박 우세' 전환?

친박 구심점 상실에도 비박 선부른 안도 자제

(서울=뉴스1) 서승희 기자 = 새누리당 전당대회를 20일 앞둔 20일 친박(親박근혜)계의 핵심 인사들이 지난 4·13 총선 공천 개입 논란에 휘말리면서 '비박(非박근혜) 우세'로 전대 판세가 전환되는 모습이다.

친박의 끈질긴 당권 도전 요청을 받아온 8선의 '친박 만형' 서청원 의원은 친박 거물의 공천 개입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다음날 불출마를 선언했다.

앞서 '친박 실세'로 불리는 최경환 의원이 불출마를 결정했고 당권 도전 의사를 밝힌 이정현 의원은 세월호 관련 KBS 보도개입 논란을 겪으면서 상처를 입은 상태다.

'거물'들이 빠진 가운데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까지 공천 개입 논란에 휩싸이면서 친박계 전체가 도덕적 상처를 입으면서 구심점을 잃었다. 친박 안팎에서는 '이러다 폐족된다'는 위기감에 빠져있다.

친박이 쑥대밭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비박 후보의 존재감이 높아졌고 대선을 앞둔 여권의 당권 구도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비박 후보들이 전당대회 호재를 맞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비박계 대표적인 당권 주자인 정병국 의원은 "서청원 선배님의 당대표 출마 포기가 계파 해체와 당화합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비박 대표주자로 꼽히고

있어 친박이 이대로 분열되고 비박계 의원들의 후보 단일화를 통해 당 대표로 올라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 다른 비박 김용태 의원도 친박의 공천 개입을 비난하며 검찰 수사 의뢰까지 거론하며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서 의원 불출마를 촉구해온 주호영 의원도 전당대회 주도권을 쥘 기회를 노리고 있다.

한편 비박 당권 후보들은 선불리 안도할 수는 없다고 느끼고 있다. 당내 주류 세력인 친박의 표심이 비박 후보로 바로 넘어올 가능성은 낮다는 현실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초 비박 후보의 난립으로 표가 나뉘면서 비박이 득세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무산될 상황에 직면했다.

여기에 친박 출신인 이주영, 한선교 의원이 친박과 거리를 두고 있어 비박 표를 깎아 먹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친박계는 당권을 비박에 넘겨줄 수 없다는 위기감에 차선이나 차차선 후보를 물색 중이다. 친박인 흥문

표 의원이 당권에 도전할 수도 있고 일각에서는 친박이 범친박계인 이정현 의원 또는 이주영 의원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가능성도 남아있다고 지적한다.

song65@news1.kr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에서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이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기로의 새누리당 또 위기... 공천개입 파문 '대형약재' 만나

(서울=뉴스1) 박선미, 김영신, 김정률, 이정우 기자 = 새누리당이 또 위기를 맞았다.

최경환·윤상현 의원의 4·13 총선 공천 개입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당이 발칵 뒤집어졌다. 특히 비박(非박근혜)계는 '친박 해체 선언'을 주장하는 등 맹공을 가하고 있다.

4·13 총선 참패 후 지도부가 총사퇴하며 휘청이던 새누리당은 정진석 원내대표가 방향타를 잡고 김희옥 혁신비대위 체제를 출범시키면서 50여 일만에 가까스로 안정을 되찾은 듯했으나 또 다시 대형 약재를 정면에 마주한 셈이다.

더구나 최·윤 의원의 공천 개입이 사실상 서청원 의원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서 의원이 이날 당대표 도전의 뜻을 접는 등 8·9 전대도 크게 요동치고 있다.

잇단 약재 앞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당은 출구전략도 요원한 상황이다.

우선 비박계 당권주자들이 19일 친박계의 공천 개입 의혹 파문을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당 차원의 진상조사와 함께 사법기관을 동원한 수사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당대표에 출마한 비박계 정병국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녹취록 파문) 새누리당 일각의 계파 패권주의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어 부끄럽고 창피하다"며 "친박들은 계파 해체를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역시 대표 경선에 나선 주호영 의원도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번에 (공천개입의) 보이지 않는 손이 뭉통까지 드러난 것"이라며 "(녹취록) 언급된 분들이다. 정무수석, 서청원 의원, 최경환 의원"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당이 먼저 공천과정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진상조사를 시작해

야 하나 당이 가진 조사수단이 제한돼 있다"며 "그것으로 충분치 않다면 수사를 의뢰해서라도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김용태 의원은 "지난 막장공천은 당원과 국민에게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대통령과 청와대를 병풍삼아 딱 주무르듯 공천권을 좌우한 권력 농단 사건"이라며 "김희옥 비대위원장은 당장 총선 백서를 폐기하고 만천하에 드러난 막장공천의 주역들을 당의 이름으로 검찰에 고발하라"고 촉구했다.

원조 친박이었으나 최근 결을 달리하며 독자 노선을 걷고 있는 한선교 의원은 총선 백서를 예로 들며 "특정 세력에 의해 조정받은 게 아닌가"한다며 "이번 전화 (녹취록) 사태를 보니 그런 흔적이 보이는 듯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 속에서 서 의원은 이날 오전 당대표 경선 불출마를 돌연 선언했다.

표면적으로 그는 "저의 결론은 지금제가 (당대표에) 나서기보다 후배들에게 기회를 줘야 할 때"라고 했지만 당 안팎에서는 녹취록 파문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높게 제기됐다.

이런 상황 전개 속에 수세에 몰린 친박계에서는 원색적인 단어까지 사

용하며 격양된 감정을 감추지 못했다.

서청원 새누리당 의원의 최측근인 이우현 의원은 공천 개입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한 김성희 전 의원을 겨냥해 "인간 쓰레기같은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서 의원은 공천 과정에서 어떤 개입도 한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친박계 김태흠 의원은 "그런 총선 개입이라고 볼 수 없다"며 "각별한 선·후배 동료의원들이 서로 정보를 주고 받는 그런 수준"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로 친박계의 세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한 예민한 반응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비박계와 친박계가 공천 개입 파문으로 충돌하면서 출구없는 싸움에 돌입하는 형국이다.

정진석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 의총에서 "호가호위하는 공천개입은 여의도에서 사라져야 한다"며 "대통령 이름을 팔아 개입한 사람들은 자숙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하는 등 한동안 잡음은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gsm@news1.kr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

보폭 넓히는 김무성 오늘 퓨처라이프포럼 2기 출범

8월 한달간 전국 '민심투어'...대권 몸풀기

(서울=뉴스1) 이정우 기자 = 8·9 전당대회를 앞두고 추락하는 친박계와 주춤대는 비박계 사이로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가 보폭을 넓히고 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아침 일찍 자신이 대표로 있는 퓨처라이프 포럼 2기 출범식에 참석하며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재개한다.

퓨처라이프 포럼은 19대 국회 당시 김 전 대표의 대표적인 정치 모임 중 하나로,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 위협 요인에 적극 대응하자는 취지로 2013년에 결성됐다.

김 전 대표는 포럼 2기 출범을 위해 지난달부터 여야 의원 300명 전 원에게 가입 권유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대표의 이같은 '보폭 넓히

기'가 주목받는 이유는 그가 여권의 대표적 대권주자인 탓이다. 또한, 전대를 앞둔 비박계 후보들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김 전 대표는 앞서 지난 14일 전대 승리 기념 지지자모임에서 "변화의 선봉에 서겠다.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하며 사실상 대권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또 8월 한달 동안은 전국 배낭여행에 나선다.

전라남도 해남 땅끝마을에서 출발할 그의 이번 '민심 투어'는 사실상 대권을 앞둔 몸풀기로 해석된다. 아울러 다음달 9일 열리는 전당대회를 자연스럽게 피하겠다는 의도도 읽힌다.

krusty@news1.kr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



PROSPECT

DENTAL GROUP, LLC
Advanced Restorative Dental Clinic

프로스펙트 덴탈의 진료는 미래의 당신을 위한 가장 값진 선물이 될 것입니다

- 한국어 가능
- 응급환자 당일진료
- 주말 진료
- Walk-ins Welcome
- 각종 보험



Eugene Khang DMD (강유진)

원장: Eugene Khang DMD (강유진)
진료시간: 월-금: 9AM ~ 6:30PM
토: 9AM ~ 5PM

TEL: 617.576.5300
30 Prospect St. Cambridge, MA 02139 (Redline Central Sq.역)
www.prospectdental.com



Dedicated to
Your Health

Icon Dental

아이콘덴탈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백성편과 톱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마이클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성형 및 소아 치열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여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57 Bedford S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d. Suite A8, Concord MA 033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ndentallexington.com
www.icondentallexington.com

Dr. 차영주
치과 일반의
Dr. James Kim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ov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및 잇몸 수술 전문의
Dr. 모용현
교정 전문의

BELLA NAILS

GRAND OPENING

이제 캠브리지에서
한인 네일샵을 경험하십시오
(프리스트웨이 소라 화장품 내 위치)

발라, 코팅지 펠, 네일 아트, 각질 제거, 푸피 마사지 등 다양한 로러로인료

SORA

소라 화장품
SHISEIDO

20년 전통 보스톤 시세이도 1호점



SHISEIDO ULTIMUNE

노화방지, 수분공급, 푸른빛, 피로회복, 탄력, 밝은 오묘 기능을 갖고 있는 제품. 피부에 탄력을 지켜주는 효과로 인기가 높은 제품

A GIFT FOR YOU



최대용 시세이도
컨설팅/교육/모형
홍은희

檢, 진경준 '140억대 재산' 추징보전 청구

(서울=뉴스1) 구교은 기자 = 넥슨 비상장 주식을 공짜로 받아 100억대 시세 차익을 올리는 등 혐의로 구속된 진경준 검사장(49·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140억대 재산에 대해 검찰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진경준 주식대박' 사건을 수사중인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19일 진 검사장이 넥슨 주식 매각을 통해 얻은 재산 등 범죄수익을 묶어두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을 적용해 현재까지 확인한 진 검사장의 예금 채권과 부동산 등 140억 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

구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전날 열린 전국 고검장 회의에서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밝히고 진 검사장의 신분과 불법적 수익을 박탈하는 등 엄중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특임검사팀은 지난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진 검사장을 구속했다.

특임검사팀에 따르면 진 검사장은 김정주 NXC(넥슨 지주회사) 대표(48) 측으로부터 넥슨비상장 주식 1만주, 제네시스 차량 등을 뇌물로 건네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진 검사장은 2005년 무렵 넥슨비상장 주식 1만주를 4억2500만원에 사들

였다가 이듬해 이를 넥슨 측에 10억 원 을 받고 팔았다. 진 검사장은 그 돈으로 다시 넥슨재팬 주식 8537주를 사고 일본 증시 상장 후인 지난해 처분해 12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올렸다.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이 넥슨 주식 매입 자금을 사실상 공짜로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의 주식 매입·교환 과정을 하나의 수뢰 범행으로 파악하고 2006년 넥슨재팬 주식의 시가인 8억5370만여원을 수뢰액으로 보고 있다.

또 진 검사장은 2008년 넥슨회사돈으로 리스한 3000만원 상당의 제네시스 차량을 처남 명의로 제공받은 혐의

도 받고 있다.

kukoo@news1.kr



진경준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野3당, 'KBS MBC 지배구조 개선안' 발의... "여야 7대6으로"

이사회 특별다수제 도입, 회의 비공개 사유 제한 등 담야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野)3당은 21일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안을 함께 발의했다.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미래부)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문미옥·권미혁·이재정 의원, 국민의당 김경진·신용현 의원 등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을 소개했다.

이들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공영방송은 홍보 방송으로 전락했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낙하산 사장·이사들이 임명되고 정권의 비위에 거슬리는 뉴스는 보도되지 않는 등의 행태가 그치지 않았다.

이에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과 방송의 공공성·공익성, 보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법안이 마련됐다.

미래부·더민주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법안 발의에는 3당과 무소속 의원

등 160명이 참여했다"며 "이처럼 많이 참여한 법은 최초일 것으로 방송을 방송답게, 공정하게 회복시키자는 뜻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률안에 따르면 공영방송사(KBS·MBC·EBS) 이사 추천 및 임명권을 대통령에게 주는 한편 방송사마다 제각각인 이사 수를 여야 7대6(총 13명)으로 통일했다.

또 공영방송 사장 선임방식은 재적 이사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이사회 특별다수제'를 도입하되 사장추

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을 뒀다. 이는 설치되는 강제하되 구성과 운영 등 세부사항은 이사회가 권한을 갖기로 했다.

이외에도 노사가 추천하는 각 5명(총 10명)의 편성위원으로 꾸려진 편성위원회 구성 및 이들이 방송편성규약제·개정, 방송편성책임자 임명제정 등을 할 수 있게 했고 △비공개회의의 사유 제한 △회의록 공개원칙 △임원(이사)의 직무상 독립 및 신분보장 등의 내용을 담았다.

parksj@news1.kr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野)3당은 21일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안을 함께 발의했다

김영란법 부패척결에 영향 52%... "긍정 평가"

(서울=뉴스1) 박선미 기자 = 김영란법 시행에 대해 국민들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18일 나타났다.

서울신문이 에이스리서치와 지난 12~14일 창간특집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김영란법 시행이 부패 척결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2.4%로 과반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답변은 34.2%를 기록했다.

성별로는 여성(46.1%)보다 남성(58.9%)이 김영란법의 영향을 더 크게 본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 김영란법이 '선출직 공직자에게 공격적인 목적의 민원을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 예외조항'으로 두고 있는 데

대해 이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비율은 49%,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비율은 35.9%로 나타났다.

농어민 보완 대책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가 56.8%, '현행 법규대로 시행해야 한다'가 31.7%로 각각 조사됐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2~14일 전국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이뤄

졌다.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지역·성, 연령별 인구수에 비례 할당된 무작위 표본을 추출해 전화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조사를 병행했다. 신뢰수준은 95%이고 최대 허용 표본 오차는 ±3.10%포인트다.

gsm@news1.kr



지난 8일 서울 중구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김영란법 시행 저지 및 중소상공인 발전대책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파면... 중앙징계위 의결

최고 수위 징계... 퇴직금·연금 절반 감액

"국민신뢰 실추·고위공직자 품위 손상 고려"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 '민중은 개·돼지' 등 막말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에 대한 '파면' 징계가 19일 의결됐다.

인사혁신처는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징계위원회(위원장 인사혁신처장)를 열어 나 전 기획관에 대한 파면 징계를 의결했다.

중앙징계위는 의결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의결 배경에 대해 "이번 사건이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킨 점, 고위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점 등을 고려해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중앙징계위는 징계의결 결과를 교육부에 송부할 예정이며 교육부장관은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

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

앞서 교육부는 나 전 기획관이 한 중앙언론사 기자들과의 식사자리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해 파문을 일으키자 그를 직위해제하는 한편 자체 감사를 벌여 최고 수위의 징계인 '파면'을 요구하는 징계의결 요구서를 지난 13일 중앙징계위에 제출했다.

공무원에 대한 최고 수위의 징계인 파면은 해임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 처분이면서도, 퇴직급여와 연금을 절반밖에 받지 못하고 향후 5년간 공무원 재임용이 금지된다는 점에서 해임보다 징계 강도가 높다.

이와 달리 해임은 3년간 공무원 임용이 금지되며, 퇴직급여·연금의 감액은 없다.

true@news1.kr



'민중은 개·돼지' 막말 논란을 일으킨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19일 오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입장하고 있다



한 차원 높은 고국방문 의료서비스 이제 휴람을 통해 이용해보세요!

휴람이 인하국제의료센터와 한진관광과 함께
의료·관광 토탈 서비스로 거듭났습니다!



인하국제의료센터 · 휴람 해외동포 특별가이드 (단독 8수거)			합인비용	해외비용
Huram Transit	남/여	반려동물수거진 (인하+시외+국제+수거) + 복귀실비+수거비 + 수면약제시금(2박+7박) + 구급약품	49만원 43만원	43만원
Huram Basic	남	TRANSIT + CHEST X-RAY + 동맥경화 합착검사 + 초음파 (심근벽, 심방) + 구급약품	79만원 73만원	73만원
	여	TRANSIT + CHEST X-RAY + 방방X-RAY + 사정경부안 + 동맥경화 합착검사 + 초음파 (심근벽, 심방) + 구급약품	100만원 94만원	94만원
Huram Detail	남	TRANSIT + CHEST CT + 심장혈관스캔(가동) + MRI (뇌, 척추, 목, 흉, 복, 골반) + 스키인질	180만원 148만원	148만원
	여	BASIC + CHEST CT + 심장혈관스캔(가동) + MRI (뇌, 척추, 목, 흉, 복, 골반) + 스키인질	199만원 157만원	157만원

* 국내에 대한 검진비 포함입니다. 합인 시에 대한 검진비 포함될 수 있습니다.



新 한국기행 /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그 외 지역도 여행가능

신한국기행은 대한민국의 인기 관광지인 제주도, 강원도, 경북 등 전국에 퍼져 있는 한국내 시골의 깨끗한 여행입니다.

- 1 **한진관광 단독**: 신한국기행은 7년 차 한국여행 전문여행사입니다. 전문 여행사와 함께 하는 여행입니다.
- 2 **100% 출발**: 40%의 출발률, 100%의 만족도, 100%의 안전, 동포선호 여행.
- 3 **최고급호텔**: 고급호텔이 포함된 패키지, 호텔, 리조트, 컨벤션, 등 다양한 숙박 시설이 있습니다.
- 4 **전용차량**: 신한국기행은 고급 전용차량으로 편안하게 여행합니다.
- 5 **별마식제공**: 신한국기행은 고급 별마식 제공으로 여행의 즐거움을 높여줍니다.
- 6 **모든비용포함**: 호텔, 교통비, 식사, 음료, 관광지 입장료, 여행자보험, 여행비 제공합니다.



- ▲ 전국여행 2박3일
- ▲ 강원도 여행
- ▲ 일본 여행
- ▲ 중국 여행
- ▲ 동남아시아 여행



● 집권과 여행은 필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문의하세요!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82-70.4141.4040
 카카오톡 : 010.3469.4040 / ID: huramkorea
 huram@huram.kr / www.huramkorea.com

미국 내 상담문의
 보스톤코리아
 Tel. 617-955-9112



**BERKSHIRE
HATHAWAY**
HomeServices

**N.E. Prime
Properties**



Clara Paik
617.921.6979



김형진
781.956.0409



주승원
617.780.7839



박성종
617.304.7001

안녕하세요?

그동안 보스톤 뉴스타 부동산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저희 회사가 이렇게 크게 성장했습니다. 저희는 다음의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 미국 경제계의 대부인 웨렌 버핏이 소유하고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 (Berkshire Hathaway)와 새로 손을 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보다 폭 넓은 정보와 질 높은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시게 됨을 약속 드립니다.

저희의 새 얼굴인 버크셔 해서웨이 뉴잉글랜드 프라임은 매사추세츠와 로드아일랜드에만도 20개의 지점을 가지고 있고, 미 전역에 연결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넓은 세상에서 일하실 큰 꿈을 키우고 계신 에이전트 선생님을 모십니다.

감사합니다.

대표 백영주 올림



Allen Quinn
978.897.2781



이현주
401.935.3397



제니스 리
978.806.6023



Michael Yoon
617.459.5985

Berkshire Hathaway HomeServices N.E. Prime Properties
4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Tel 781-259-4989 Fax 781-259-4959

보스톤 뉴스타가 버크셔 해서웨이로 다시 태어납니다!



Steve Son
617.290.0623



이제봉
781.654.5281



Shell Yu
781.526.2416

OFFICE LOCATIONS



Sara You
617.899.3566



OT Kim
617.620.8242



Massachusetts
Corporate HQ
Belmont
Concord
Easton
Hudson
Littleton
Methuen
Norwood
Plymouth
Wareham
Westborough
Whitinsville
Yarmouth Port

Maine
Farmington
Portland
Saco
Sanford

Rhode Island
Norwott

LEXINGTON/BOSTON OFFICE



애나 정
617.780.1675



Gina Choi
978.866.3248



Sue Rong Tsai
617.792.8842

Good to know:

18 Offices in Maine, Massachusetts & Rhode Island
Find your next home with us online at bhhsneprime.com

브래디에 대한 처벌을 패츠의 기회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의 쿼터백 팀 브래디가 더 이상의 항소를 포기하면서 디플릿게이트는 사실상 종료되었다. 브래디는 최초로 내려졌던 징계에 따라 올해 첫 4경기에 출전할 수 없게 되었고, 패트리어츠는 리그 최고의 쿼터백 없이 시즌 초반 경기를 치러야 한다.

브래디의 명성에는 금이 갔고 패트리어츠는 전력 손실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브래디의 4경기 출전 금지 처벌이 패트리어츠 팀에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패트리어츠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1 브래디는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브래디는 나이에 걸맞지 않는 실력을 보여주고 있고 아직까지는 노화에 따른 경기력 저하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오는 8월 3일에 39세가 되는 브래디는 지난 7시즌 동안 126경기에 연속으로 선발 출전했다. 브래디가 마지막으로 뛰었던 지난 AFC 챔피언십 경기를 포함해 2015 시즌 동안 브래디는 불안정한 패트리어츠의 오피시브 라인 때문에 38번 상대 수비수에게 색을 당했다.

브래디가 경기장에 나설 수 없다고

해서 마음가짐이 흐트러지지 않는 것이다. 경기를 쉬는 동안 복귀전을 준비할 것이고, 육체적으로 충분히 회복하면서 남은 시즌을 치를 수 있는 체력을 비축할 수 있다. 브래디의 나이를 감안하면 시즌 후반까지 브래디가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이 1월과 2월의 경기까지 내다봤을 때 패트리어츠에게 더 좋은 기회를 줄 수도 있다.

2 패트리어츠의 미래에 도움이 된다

누구보다 풋볼을 사랑하는 브래디는 나이를 먹어도 계속 쿼터백으로 활약하고 싶겠지만 영원히 현역 선수로 뛸 수는 없다. 브래디의 시대가 머지않아 끝날 것이라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다. 패트리어츠는 브래디 이후를 준비하기 위해 2014년에 드래프트 2라운드에서 지미 거라폴로를 선택했다. 거라폴로는 브래디의 백업으로 3번의 오프시즌을 보내면서 패트리어츠의 공격 전술을 익히고 NFL 쿼터백으로서 지녀야 할 스킬을 익혔다.

2008년 시즌 개막전에서 브래디가 심각한 무릎 부상을 당하면서 시즌 전체를 결장하는 일이 없었다면 패트리어츠는 거라폴로를 선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러나 패트리어츠는 2008년 이후 브래디 없이 경기를 할 가능성을 대비했고, 지금의 거라폴로는 그 역



브래디가 빠지고 거라폴로가 이끄는 패트리어츠의 공격은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다

할을 충분히 해낼 준비가 되어 있다. 브래디가 복귀 후에 계속 패트리어츠의 선발 쿼터백이 되더라도, 거라폴로가 이번 시즌에 자신의 가치를 증명한다면 자유계약 선수가 될 때 몸값을 크게 올릴 수도 있다.

3 패트리어츠는 이전보다 더 예측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패트리어츠는 거라폴로의 신체적인

능력을 충분히 활용할 것이다. 브래디에게서는 기대할 수 없었던 부분이다. 패트리어츠의 상대팀들은 그 동안 브래디의 손 끝에서 실행되는 패트리어츠의 공격을 막기 위해 전략을 짜왔다. 물론 상대팀들의 전략은 그 동안 실패해 왔다. 브래디가 작은 틈새를 비집고 수비를 파고들었기 때문이다.

거라폴로는 실전 경험이 부족하지만 패트리어츠의 공격 전술을 충분히

익혀 왔고, 브래디에게는 없는 운동 능력을 갖고 있다. 빌 벨리치 감독과 코칭 스태프는 거라폴로의 이러한 능력을 충분히 활용할 것이다. 상대방이 예상치 못한 전략과 경기 운영에 탁월한 벨리치 감독이 거라폴로라는 변수를 실험적으로 이용한다면 패트리어츠의 공격은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다.

jsi@bostonkorea.com

최지만, 6G 연속 안타 행진...추신수 · 이대호 무안타 침묵

(서울=뉴스1) 이재상, 김지예 기자 = 최지만(25·LA 에인절스)이 6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갔다. 반면 추신수(34·텍사스 레인저스)와 이대호(34·시애틀 매리너스)는 무안타로 침묵했다.

강정호(29·피츠버그 파이어리츠)는 결장했고 오승환(34·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은 경기가 우천취소돼 휴식을 취했다.

최지만은 1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의 에인절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6 메이저 리그 텍사스전에서 7번 1루수로 선발 출장해 4타수 1안타를 기록했다.

지난 11일 볼티모어 오리올스전부터 6경기 연속 안타를 때린 최지만의 시즌 타율은 0.167에서 0.175로 올랐다.

최지만은 이날 유일했던 안타를 두 번째 타석에서 뽑아냈다. 3-3으로 팽팽했던 4회말 1사 1루에서 상대 선발 카일 로시의 6구째 시속 90마일(약 145km) 싱커를 받아쳐 우전 안타를 날렸다.

최지만은 2회말 2사 1루에서 로시에게 1루 땅볼로 돌아섰고, 6회말에는 선두타자로 나가 교체 투수 셸리에게 중견수 뜬공으로 잡혔다. 이후 8회말 첫 타자로 맞은 마지막 타석에선 매트 부시에게 우익수 직선타로 물러났다.

텍사스의 추신수는 5타수 무안타 2삼진을 기록했다. 대타로 출전했던 전날에 이어 1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장한 이날도 안타를 만들지 못한 추신수의 시즌 타율은 0.271에서 0.260으로 하락했다.

추신수는 1회초 선두타자로 나가 상대 선발 팀 린스컴에게 좌익수 뜬공으로 잡혔다. 2회말 2사 후에는 삼진을 당했고, 4회말 1사 후에는 2루 땅볼로 돌아섰다.

6회말 1사 후에는 구원 투수 데올리스 게라에게 좌익수 직선타로 처리됐고, 8회말 1사 1루에서는 캄 베드로시안에게 삼진으로 물러났다.

경기는 에인절스가 텍사스를 상대로 8-6 승리를 거뒀다. 5연승을 달린 에인절스는 42승52패를 기록했고 2연패한 텍사스는 55승40패가 됐다.

이대호는 지난 17일 휴스턴 애스트로전부터 최근 4경기 연속 안타를 때리지 못하면서 부진이 길어지고 있다.

이대호는 시애틀 세이프코필드에서 열린 시카고 화이트삭스전에서 5번 1루수로 선발 출전해 3타수 무안타 1볼넷 2삼진을 기록했다. 시즌 타율은 0.279에서 0.275로 떨어졌다.

이날 이대호는 안타를 때리지는 못했으나 볼넷으로 한 차례 출루에 성공해 위안 삼았다.

1-1로 팽팽하게 맞선 4회말 1사 1루에서 상대 선발 호세 퀴타나와 8구째 실랑이를 벌인 끝에 볼넷을 얻어 나갔다. 그러나 후속타 불



최지만(25·LA 에인절스)이 19일 텍사스전에서 7번 1루수로 선발 출장해 4타수 1안타를 기록했다

발로 득점할 기회는 없었다.

이대호는 2회말 무사 1루에서 퀴타나에게 삼진을 당했고, 6회말 무사 1루에서도 삼진으로 돌아섰다. 8회말 1사 후에는 네이트 존스에게 3루 땅볼로 물러났다.

시애틀은 화이트삭스에 1-6으로 패하며 47승47패를 기록했다. 5연패를 끊은 화이트삭스는 46승47패를 마크했다.

피츠버그는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PNC파크에서 열린 밀워키 브루어스와의 홈 경기에서 3-2로 이겼다. 강정호가 전날에 이

어 이를 연속 결장한 가운데 팀은 연승을 달렸다.

피츠버그는 2-2로 팽팽하게 맞선 9회말 선두타자 조쉬 해리슨이 타일러 손버그를 상대로 우중간을 가르는 3루타를 때렸다. 이어 상대 2루수의 실책을 틈타 그대로 홈을 파고 들어 승리를 챙겼다.

2연승을 거둔 피츠버그는 48승45패를 기록했고 밀워키는 39승52패가 됐다.

hyillily@news1.kr

POSPay

worldpay

EMV 도입이 시급합니다



아직도 카드를 긁고 계십니까?
고객님의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EMV 도입이 시급합니다!
지금 바로 문의해 주십시오!



본손: Boston



돼지곰: NJ



Mr. Sushi: Arlington



VIP Nails: RI



Queena Nails



Great Nails: GA



My Cleaners: CT



Classic Cleaners: Boston



Professional Cleaners: GA

<고객 절약 사례>
본손: 20% 절약
돼지곰: 16% 절약
Mr. Sushi: 19% 절약
VIP Nails: 22% 절약
Queena Nails: 24% 절약
Great Nails: 37% 절약
My Cleaners: 41% 절약
Classic Cleaners: 13% 절약
Professional Cleaners: 23% 절약

www.pospay24.com



Agent / 상담원 모집

TEL **617-466-2212**

TOLL FREE **888-604-2190**

150 Eastern Ave #2FL Chelsea, MA 02150



성양두안 다블뤼 보스턴 한인성당
 St. Andrew's Korean Church of Boston
 Weekend Sunday 10am (English) 11:30am (Korean) 4:30pm (Korean)
 Weekday Tuesday 10:30am (Korean), Thursday 7:30pm (Korean)

하느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서고자 하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성 양두안 다블뤼 보스턴 한인성당은
새임교자를 위한 교리반을
9월부터 시작합니다.

미사안내
 No Mass Sunday 10 am (English)
 2016년 6월 12일 - 2016년 8월 28일까지
 2016년 9월 18일 - 본당의 날

New Mass Sunday 8:30 am (Korean)
 6월 12일부터 8월 28일까지

45 Ash St. Newton, MA 02466
 617-558-2711, 617-244-9685
 office.kccb@gmail.com
 www.stdaveluychurch.org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삶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십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턴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임목사 유 경 일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보스턴은혜장로교회
 BOSTON GRACE PRESBYTERIAN CHURCH

이 길은 살아가신 하나님의 길이고 권리와 가정의 비니막 (행 2:10)

주일예배 / 오후 2시 | 금요기도회 / 저녁 7시
 음악 / 찬양 / 찬송 / 영요봉부설회 / 생전부요행
 Grace Bible Study / 수 7시 | LIFE 모임 / 주일 8시

담임 목사 / 우시환

7 Clarendon Road, Lexington, MA 02421
 (In the Trinity Covenant Church)
 Tel: (781) 715-0571 / Fax: (781) 645-0407
 bostongracechurch.org

보스턴 밀알 한인 장로교회

가르치고
전파하라
(막 4:25)

예배시간:
 주일 1부 9:30, 2부 11:00
 금요일 9:00

밀알한국학교 운영(주일 오후)

담임목사: 박일종

주소: 15 Alpha Rd,
 Chelmsford MA 01824
 전화: 978.571.9117
 www.millal-church.org
 Lexington에서 25분,
 H-I49에서 15분 거리

유체부: 임성경 목사
 유년부: 임경숙 목사
 청소년: 데이비드 김 목사
 영년/50+: 에렌 김 목사

성경대로 열으며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실천하는 교회

사랑제일교회
 Love First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권종성
 Faith Theological Seminary, M.Div.
 New York Univ. M.A.
 안양대학교 대학원
 한겨울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노회 소속

교회 예배 안내

주일 예배	오후 2시
주일 학교	오후 3시
전도인 공부	오후 4시
목요 공부	오후 7시
수요 예배	오후 7시
구별 예배	각 구역별

* 모든 예배는 영어로 동시에 열립니다.
 All services are translated in English simultaneously

461 King St. Lynn, MA 01904 Tel: (978) 985-0225, (978) 944-2404
 www.lovethefirstchurch.com

보스턴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 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 주일학교: 오후 2시
 중고등부: 오후 2시 | 대학부모임: 주일 12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임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93
 교회: 781.894.3958 목사관: 817.969.5809

골프 레슨

US GTF 최성조 프로
 Master Golf Professional

최성조 프로
 US GTF 월드 리저 프로
 sj.usgtf@gmail.com

857.600.6755

코리아 여행사

617.267.7777
 1.800.473.1922

보스턴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508-740-9188

CHOISIGNS & DESIGN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 Car Sign, Lighted Box, All Types of Signs.

간판 및 사인

617.470.1083
 e-mail choisigns@yahoo.com

보스턴코리아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전화: 617.792.6876 이메일: bostonkorean@hotmail.com

‘성령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

하나님과 나사렛에 대해 진리 말씀 배우하며 무너져나갑니다.
 그 사랑으로 주께 사모 사모하며, 그 사랑으로 열린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같은, 같은, 같은, 사랑, 사랑, 사랑, 부활날에 영광찬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예배를 준비합니다.

금요찬양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찬양 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금 오후 8: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6:30, 토 오전 7:30
 영년모임 주일오후 12:30
 속회모임 수-주일 속회별
 영년모임 화, 목 오후 8:00, 주일 오전 9:30
 성령공부 주일 오후 12:30, 수 오전 6:50, 목 오후 9:30

비전교회
 The pastor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80 Mt. Auburn St., Westtown, MA 02472 Tel: 617.744.8587
 www.growwithus.org

UMS
 신용카드결제 전문 기업 SINCE 1994

15년동안 한인 비즈니스의
크레딧 카드 솔루션을 책임져 왔습니다.

전문성과 기술력으로
 타협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UMS

flex 2it UP SOLUTION

내외는 뉴저지주 법세 관련 카드결제 관련회사로서 미 정부에 세무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Flex2it 신용카드 결제, 가짜서 UP Solution을 통한 POS 시스템, 모바일 결제 시스템 등
 필요한 모든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 최적의 경쟁력까지 패키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내외 비즈니스가 필요할 때 **이선호**
781.266.7245



메사추세츠주 태권도 협회

Massachusetts State Taekwondo Association



고문단장: 안 남 열



고문: 이 강 원



고문: 구 경 회



고문: 조 형 구



회장: 정 제 형 부회장: 허 훈 부회장: 리치안 사무총장: 전 명 호 회계: 김 희 용

웹사이트: 강 창 남
 시범단장: 홍 순 우
 경기위원장: 강 민 석
 심판위원장: Michael Agosti
 홍보부장: Maureen Maher-Killelea

www.masta.us



2016년 메사추세츠 주 태권도 협회원 가입현황
 *단체회원(\$200/년): 정제형, 허훈, 리치안, 홍순우, 김희용, 전명호, 강민석
 *정회원(\$100/년): 강창남

370 Boston Tpk., Shrewsbury, MA 01545
 Phone 508-792-5534 . FAX 508-767-0113



크라우저 앤 서 로펌

MIAMI - BOSTON - D.C.

이민법 / 국제법 전문 로펌 Specializing in Immigration / International Law



Henry Crouser
 변호사

스티브 서
 변호사

전문 분야

- 전문인력 취업비자 (H-1B)
- 단기연수원 비자 (H-3)
- 주재원 비자 (L-1)
- 특가자 비자(O-1, P-1)
- 취업이민 (EB-2, EB-3, EB-4)
- 종교비자 (R-1)
- 투자이민 (EB-5)
- 투자비자 (E-2)
- 교수 및 연구직 (EB-1, NIW)
- 가족초청이민
- 시민권 신청
- 추방제안

VISIT US AT :
www.stevesuh.com / www.suhlawyer.com

Crouser & Suh PLLC

251 Harvard Street Suite 6, Brookline, MA 02446

Tel: 617.566.7979 Fax: 617.566.7982

Email: info@stevesuh.com

여름철, 답답한 앞머리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헤어라인 교정하세요!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루트모발이식센터' ... "헤어라인 교정은 모발이식보다 정교한 기술 요하므로 전문의에게 받아야"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거리에 나가보면 무더운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답답한 앞머리를 포기하지 못하는 여성들이 여럿 보인다. 그러나 이 여성들에게도 말 못할 고민이 있다. 직장인 K씨(여성, 28세)는 더운 여름 답답해 보이고 지저분해 보이는 앞머리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말한다. 특히 습기가 많은 장마철이 되면 힘없이 처진 앞머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이다.

시원하게 이마를 드러내지 못하는 K씨의 고민은 무엇일까? 그 이유는 바로 이마 때문이다. K씨의 이마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넓고, 헤어라인도 남자를 연상케 하는 M자형이다. 이마가 넓으면 시원하고 깔끔한 인상을 준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도 적당히 넓은 이마일 때 이야기다. K씨의 경우엔 앞머리를 들추면 헤어라인이 눈썹보다 한참 위에 있어 우스꽝스러워 보이기까지 한다. K양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모발이식을 이용하면 자연스럽게 헤어라인 교정이 가능하다. 모발이식이라고 하면 남자들, 그리고 탈모환자들의 전유물이라는 생각이 일반적일 것이다. 그러나 최근 헤어라인 성형을 꿈꾸는 여성들이 모발이식을 찾는 경우가 늘고 있

다. 루트모발이식센터(루트의원) 이학규 원장은 "이마가 너무 넓거나, 헤어라인이 여성스럽지 않은 경우 모발이식을 통해 헤어라인을 정리할 수 있다. 대부분 여성은 헤어라인을 교정할 때 3000모 정도 모발이식을 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여성 헤어라인 이식의 경우 남성 모발이식보다 비교적 적은 모수로 헤어라인 수술이 가능하다. 따라서 헤어라인을 교정하는데 드는 비용이 더 저렴하며, 시술 시간도 남성에 비해 짧은 것이 특징이다. 또한 남성과 여성의 이마라인에는 차이가 있으니 헤어라인 교정 후기 등을 통해 여러 사례의 헤어라인 시술을 찾아보는 것도 좋다.

모발이식은 탈모의 영향을 받지 않는 머리 뒤쪽의 모발을 채취하여 이식하는 수술이다. 그러나 이마 부분의 머리카락은 뒷머리보다 가늘기 때문에 여러 개의 모발을 한꺼번에 이식하면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다.

여성 헤어라인을 자연스럽게 디자인하기 위해선 가장 앞쪽부분은 한 가닥씩, 그 뒤쪽은 2개짜리, 가장 뒤쪽은 3개짜리 모발을 이식하여 뒤로 갈수록 점차 볼륨이 있어 보이게 해야 한다. 또한 자신의 모발 방향과 각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식해야 수술 후 자연스럽게 헤어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다.

헤어라인 수술은 일반적인 모발이식보다 고난도의 기술을 요한다. 그만큼 헤어라인을 교정할 땐 무작정 저렴한

비용이나 광고에 혹하지 말고 모발을 잘 이해하는 전문 의료진이 있는지, 수술 경험이 풍부한지 등을 확인해 보고 그 후에 합리적인 가격대의 모발이식병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루트모발이식센터' 및 휴람의 전반적인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문의는 보스톤코리아(전화 617-955-9112)로 하면 된다.

내 얼굴에 맞는 이마 비율, '작은 얼굴' 효과 볼 수 있어

최근 넓은 이마와 헤어라인 때문에 고민하는 여성들이 많아지고 있다. 크고 또렷한 이목구비가 미의 기준이었던 과거와 달리 작고 가름한 얼굴형에 오목조목한 눈, 코, 입이 새로운 뷰티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얼굴을 커 보이게 하는 넓은 이마로 많은 여성들이 고민을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내 얼굴에서 적당한 이마의 비율은 어느 정도 일까? 이마는 미관에서부터 머리가 자라는 헤어라인 사이를 의미한다. 이상적인 이마의 길이는 얼굴을 턱선에서 코 끝까지, 코 끝에서 미간까지, 미간에서 헤어라인까지 나누었을 때 1:1:1의 비율을 유지할 때라고 알려져 있다. 즉, 이마가 얼굴 전체의 3분의 1 비율을 유지할 때 안정감 있

고 작아 보이는 얼굴이 되는 것이다.

얼굴 길이의 3분의 1보다 이마가 넓은 경우 헤어라인 교정을 통해 이상적인 이마가 될 수 있다. 헤어라인 교정 후기에서도 볼 수 있듯 헤어라인 성형을 하게 되면 기존 얼굴형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수술 전보다 이목구비가 또렷해 보이며 시각적으로 얼굴이 가름해 보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헤어라인은 모발이식 수술을 통해 교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모발이식수술은 탈모환자의 전유물로 아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 들어 헤어라인, 눈썹, 체모라인을 가꾸는데 모발이식 수술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모발이식은 탈모환자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뒷머리를 모낭단위로 채취하여 헤어라인에 이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머리 뒤쪽의 모발은 이마 부분의 잔머리보다 굵기 때문에 숙련된 의료진에게 시술을 받아야 보다 자연스럽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루트 모발이식 센터 이윤주 원장은 "헤어라인 시술을 할 땐 지그재그 형태로 자연스럽게 메워야 하며 얼굴형, 모발 경계선, 심은 모발이 생착 후 자라날 방향까지 계산해서 이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원장은 "앞쪽 헤어라인은 단일모로 심고 뒤로 갈수록 보다 굵은 2~3개의 모낭군을 이식해 점차 볼륨이 있어 보이도록 시술하면 자연스럽게 헤어라인을 정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HAPPY
해피돌상

고품격 전통상 대어 (백일상, 들상)
한국보다 더 한국적인 품격한 전통상차림,
소중한 내 아기에겐 한국의 미를 보여주세요!
저렴하고 무심하게!

- 꽃식을 더하는 화전도 현수막
- 다양한 수공예 소품들
- 열매의 마음으로 만든 기저귀 케이크
- 국나산 유기견시와 찬기, 공기
- 화려하고 우아한 나비꽃더
- 풍성한 상차림 세트

문의 Happydolsang@gmail.com

한인 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긴급 주요 전화

가정폭력상담소(Ex. 33) 견인	617-338-2352 800-632-8075
고등교육위원회	617-727-7785
고등교육정보센터	800-442-1171
공중위생국	617-624-6000
구세군	617-536-7469
국제청	800-829-1040
날씨문의	617-976-6200
로간국제공항	800-235-6426
미아찾기	888-477-6721
백배이역	617-345-7958
보스턴공립학교	617-635-9000
보스턴수도	617-989-7000
보스턴시청	617-635-4500
보스턴총영사관	617-641-2830
사우스익	617-345-7958
사회보장국	800-772-1213
성폭행	781-237-9110
성폭행	617-492-8300
시간문의	617-637-123
이동보호	617-418-2000
아동학대	800-792-5200
알고올/마약	617-445-1500
여성학대	617-248-0922
온전연허	617-351-4500
펠러버	617-348-8500
자원봉사	800-522-8086
적십자	800-564-1234
전화신청 (Verizon)	800-941-9900
전화교정선교 (Verizon)	617-555-1515
택시	617-343-4475
AAA	800-222-4357
FBI	617-741-5533
MBTA	800-392-6100
NSTAR가스	800-572-9300
NSTAR 전기	800-592-2000
RCN케이블TV/전화	800-746-4726

한인회

뉴잉글랜드 한인회	781-933-8822
뉴햄프셔 한인회	603-767-1356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401-368-0467
메인 한인회	207-756-0092
버몬트 한인회	802-734-2521

주요 단체

국제결혼자정신건강협회	978-407-7554
국제결혼자정신건강협회(NE)	603-889-8201
뉴잉글랜드골프협회	617-438-9763
뉴잉글랜드공군전우회	978-902-8305
NE교역자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신문협회	978-688-3137
뉴잉글랜드신약회	774-270-1948
뉴잉글랜드신문협회	508-962-2689
뉴잉글랜드교회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해병대전우회	617-833-1360
대사추세초대권도협회	603-894-5425
민주평통보스톤협의회	413-535-0916
보스톤 대한체육회	781-326-9009
보스톤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미노인회	978-994-5490
재미교과기술자협회	857-998-7043
재향교인회	339-298-7187
세탁인협회	508-826-5270
이북5도도민연합회	978-514-3399
한인학교연합회	781-424-5269
FH인간재단연합회	401-481-4900
한국인양아동회(메인)	207-878-5652
625참전유공자회	978-725-9597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781-367-5993

동창향우동호회

건국대학교동창회	401-738-8735
경기고등학교동창회	508-995-7242
경기여고동창회	781-861-0437
경북고등학교	617-921-8799
고려대학교 교우회	617-795-1779
뉴잉글랜드신약회	774-270-1948
배재중고등학교동창회	978-474-4780
보스턴신약회	978-569-3256
보스턴한인사회관	617-789-4964
산사람	774-270-1948
서강대동문회	617-599-9869
서울고 동문회	617-792-2635
서울대학교동창회	978-821-9434
서울신학대학교동창회	
성균관대동창회	802-734-2521
영등포고등학교동창회	508-541-6969
이화여고동창회	617-277-0730
이화여대동창회	978-390-1552
중앙대학교동창회	603-622-8883
강원도민회	617-875-1801
충청향우회	678-717-8800
한양대동문회	781-708-3160

언론

보스톤코리아	617-254-4654
한인일보	781-933-8822
한국일보(뉴욕)	718-482-1111
Grapevine Times	781-548-9945

종교

기독교	
구세군 물동교회	617-792-8780
그린랜드 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글로벌 미션 보스톤교회	617-913-3074
나사렛사람의교회	781-439-1840
낮아짐교회	781-832-2014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갈보리교회	413-789-9888

구세군물동교회	617-792-8780
그리스연합감리교회	203-459-8517
그리니치한인교회	203-861-1134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나사렛사람의교회	781-439-1840
내슈아한마음교회	603-888-80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잉글랜드한미교회	413-567-9142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뉴햄프셔감리교회	617-990-7619
뉴햄프셔장로교회	603-437-5134
뉴햄프셔한인교회	603-264-6799
라이코스교회	978-387-1115
라이스한인침례교회	508-926-8236
로드아일랜드성동교회	401-353-0983
로드아일랜드제일교회	401-944-0520
대생명의길장로교회	401-821-2311
메리맥 교회	978-806-1363
목양교회	617-223-1690
무지개교회	207-774-1617
밀양한인교회	978-244-0691
렉싱턴 풍성교회	617-953-0856
버클랜드 침례교회	617-864-5948
보스턴 국제교회	978-844-2404
보스턴 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턴 사랑교회	617-285-8870
보스턴 사랑제일교회	978-844-2404
보스턴 은혜장로교회	781-715-0571
보스턴 새로남교회	617-947-6765
보스턴 새생명교회	978-777-1800
보스턴 생명의 교회	978-578-6987
보스턴서부장로교회	781-894-3958
보스턴 성결교회	781-275-8233
보스턴 한울교회	781-396-1004
보스턴 소망교회	781-686-5526
보스턴시온성교회	978-758-4541
보스턴안식일교회	781-279-3270
보스턴 온누리교회	781-933-7044
보스턴웨슬리장로교회	781-393-0004
보스턴 장로교회	508-435-4579
보스턴 제일교회	617-458-2733
보스턴 주님의교회	617-966-9608
보스턴 중앙교회	617-230-5004
보스턴필그림교회	857-636-9985
보스턴 한인교회	617-739-2663
보스턴 한우리교회	978-454-0454
보스턴한인연합교회	617-923-9581
북부보스톤감리교회	978-470-0621
비전교회	617-308-2391
새빛교회	781-652-0001
새세루살렘교회	774-249-0022
선한목자장로교회	904-400-9386
성요한 교회	781-861-7799
순복음 보스톤교회	617-413-5372
스프링필드한인장로교회	413-789-4522
스프링필드제일교회	413-781-2477
사온감리교회	401-739-8439
781-834-3394	
시온교회	617-620-3352
열방교회	978-274-2369
에이여 벨렘교회	413-549-6495
엘리스 한인장로교회	413-549-9200
엘리스 시온교회	413-549-9200
올스타한인교회	617-642-7403
우스타교회	508-799-4488
우스타장로교회	781-354-1843
워싱턴프린더 교회	918-876-2815
위마뉴엘 연합교회	978-514-3399
자연교회	603-437-6151
좋은땅교회	978-930-6613
지구촌방주교회	617-838-6434
케임브리지한인교회	617-491-1474
케임브리지연합장로교회	781-861-3877
켄싱턴성교회	617-770-2755
하바드 한인교회	617-441-5211

불교	
문수사	781-224-0670
서운사	508-755-0212
심광사	617-787-1506
원불교	
원불교보스톤성당	617-666-1121
천주교	
보스톤 한인천주교회	617-558-2711
로드아일랜드한인천주교	401-499-8258

간판

초이스간판	617-470-1083
-------	--------------

건강식품

보스톤 정관정 브랜드스터어	781-238-0303
----------------	--------------

건축

글로벌건축	617-645-6146
김원태 건축사	617-620-8242
미남건축	508-650-8844
선아건축	508-230-5878
솔로몬 DRYWALL	978-761-0623
신중축 루핑사이드 청문	617-999-9616
아놀드 건축	617-833-1360
파인원건축	617-688-6833
한센(주)	781-487-0101
ECO Construction	781-608-2971
E/Y 건축	617-590-3472
J.C건축	781-738-7871
J&D 인테리어	617-645-6661
LEE'S건축	617-538-0558

골프개인

골프레스	617-458-2733
골프스쿨	617-775-5527
남궁연골프교실	978-474-4780
ABC골프	603-401-7990

최현주 골프 레슨

339-223-4700	
--------------	--

공인 회계사

김양일 회계사	617-901-0707
김창근 세무사	781-935-4620
노성일공인회계사	781-863-2232
이현주 회계사	781-944-2442
이명원 회계사	617-455-8073
정진수회계사	508-584-5860
한미선회계사	617-792-2355
한성애회계사	617-283-7151

꽃

미스틱화원	617-666-3116
대교플라워	617-875-0648
앤더슨꽃집	781-894-1843

금융/모기지

인디펜던트(류영욱)	617-777-2929
에이저리	781-591-2722
이중수파이낸스	617-799-6158

냉동/에어콘/히팅

JK 플러밍	978-303-7000
Nirvana Air	508-473-3429

노래방

진 노래방	617-782-9282
-------	--------------

도서관

뉴햄프셔한인도서관	603-644-1991
보스턴공립도서관	617-539-5400

당구장

올스타당구장	617-782-0969
--------	--------------

동물병원

김문소 동물병원	978-851-3626
윤상대 동물병원	978-343-3049
제임스김 동물병원	978-658-5282

떡/잔치/반찬(주문)

형제떡집	978-975-3303
참음식주문	781-648-0584
한아름	617-547-8723

미용실

가위소리	617-782-8111
그레이스스킨케어	978-468-0039
그레이스커팅클럽	617-331-1011
단오 헤어살롱	617-206-4650
뉴비즈 헤어살롱	978-239-0141
세리 미용실	781-676-7374
압구정동알굴방	617-437-0378
순옥유니부동산	508-734-0446
신현철부동산	617-947-6293
에이비부동산(채해경)	617-868-2253
오성희부동산	617-523-3109
이경해부동산	800-867-9000
이정선	617-535-7851
이도경(condo & rental)	781-771-0047
정혜윤부동산(EXT.125)	603-770-3491
정윤숙부동산	617-236-8600
조현경부동산	508-249-5838
프루멘셜(이호숙)부동산	203-255-2800
프루멘셜(김종미)부동산	603-845-2138

대상 대여/폐백

해피대상	617-583-2339
폐백	978-688-0929

방승국

엔티비보스톤사업국	617-955-9112
-----------	--------------

변호사

김공식특허변호사/변리사	617-239-0839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박현중특허변호사	978-474-8880
성기주변호사	617-504-0609
스티븐지 변호사(이민법)	203-852-9800
워드랜드/액커맨변호사	203-324-6155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정선진변호사	617-230-0005
피터전변호사	203-386-0503
JOHN DOWNEY 법률사무소	647-964-5809
STEVEN S. KIM 변호사	617-879-9979
Joy Lee 변호사	617-624-0292
Young Lee Danesh	617-367-4949

병원

가정의	
그레이스 김 가정의	978-475-5656
송민근	617-696-7600
허버드뱅크(이재용)	617-421-2282
한서동내과	401-722-0305
산부인과	
최의웅산부인과	401-726-0600
이윤노산부인과	508-427-3000
소아과	
장경이 소아과	978-687-2119
심리상담	
배주은심리상담사	617-566-1055
심리상담	

현재 한인업소록의 각종 전화번호를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혹 누락된 번호가 있으면 617-254-4654나 bostonkorean@hotmail.com으로 바로 연락 주십시오. 즉각 반영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자향심리치료사 781-769-8670 x6080
양미아헤일리카운셀링 508-728-0832
임나경심리상담사 617-738-9622

재활의학
가족물리치료병원 781-365-1876
닥터스통증병원 617-731-1004
상진우정주신경전문 978-688-6999
추 남남 D.C. 617-230-4250

치과
김동원치과 978-689-9363
김정규 치과 860-623-2601
브라이언윤치과 978-655-1583
신영록 치과 617-265-5606
안 치과 781-647-8000
엑셀패밀리덴탈 617-471-6970
이영란치과 508-987-8228
이요셉치과 781-431-7295
케임브리지덴탈 617-492-8210
켄브리지덴탈 617-871-1482
켄지오치과 617-471-2184
손영권치과 978-459-0594
프로스펙트덴탈그룹 617-576-5300
한은애정치과 781-894-1127
아이콘덴탈 781-861-8978
ASHLAND FAMILY DENTAL 508-881-7272
장승희보철임플란트 617-489-1470
전문치과 401-729-2711
Smart Dental 781-322-4914

기타
메모리클리닉(병리) 203-330-8080
문히어링 보청기 781-573-3277

보석

국제보석상	617-523-2553
메타판보석	617-298-6661
우리보석	781-272-2400

▶광고 마감: 매주 화요일 오후 5시 (신문) ▶수표 보내주소: Payable to: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 Suite 13 Allston, MA 02134

사업의 시작은 이경해 부동산

Tel 800.867.9000
Cell 508.962.2689
email: kayleebrokers@aol.com
www.leebrokers.biz

알뜰 나눔터 안내

보스톤코리아는 2013년 5월 1일부터 새로운 알림광고 요금정책을 적용합니다. 보스톤 코리아 네이션 와이드 광고를 선택하시면 LA, 애틀란타, 뉴욕, 시카고, 애틀란타, 달라스, 시애틀 및 보스톤까지 총 미주 8개 지역의 오프라인 신문을 통해 광고를 동시에 내보내도록 합니다. 네이션 와이드의 광고는 총 5줄까지 가능하며 한 달 광고료는 \$50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N**은 보스톤 지역 외 네이션 와이드 광고임을 알려 드립니다. 만약 보스톤 지역 광고만을 원하실 경우 한 달에 \$30입니다. 결제는 그레딧카드로 하실 수 있으며 개인수표 또는 머니 오더 등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신문 광고 마감은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입니다. 보스톤코리아닷컴 광고는 신청 당일 업데이트 가능합니다.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청소하실 분 부부 구함.
영주권 소지자.
T. 617-504-8283

웨슬리 지역 세탁소에서 카운터 보실분 구합니다.
T. 978-995-3725

세탁소에서 일할 분 구함

렉싱턴 소재 세탁소에서 테일러와 셔츠프레스 그리고 어셈블리 하실 분 구합니다.
- 테일러: 1명 풀타임/파트타임
- 셔츠프레스: 1명 풀타임
- 급여: 협상 후 결정
* 경험자와 영어 가능자 특별 우대
연락처: 617-319-4134

홈스테이 패밀리 구함

한국인 또는 한국계 미국인 홈스테이 패밀리 찾습니다
알링턴 카톨릭하이스쿨 다니는 남학생 2명 (1명당 \$1,850)
info@colibriboston.org 또는 617-301-1237 로 문의

사고 팔고

광고 문의 617-254-4654

렉싱턴소재 한국식당 (한식/일식) 풀타임 웨이트레스/웨이터 구함.
T. 781-860-0171 (Kay)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 781-648-0584

룸렌트 및 매매

광고 문의 617-254-4654

4989 부동산매매는 **뉴스스타부동산**
617-969-사구팔구
www.newstarrealty.com


없는데 없습니다!

BOKO MART

BOKOMART.COM

bostonhanjin.com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한진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T: 617.782.2424 F: 617.782.2421

귀국이사 / 로컬이사 / 포워딩 / 택배 서비스

여권사진 / 이벤트 사진 / 영상 촬영 및 편집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 디지털 포도 & 포도상 튜터링 **Nabis Studio**

쌀쌀한 가을을 보내기 위한 필수품! **가족들에게 엔티비를 선물하세요!**

하루 \$1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대로!



아직도 불법 다운로드 하세요? 아직도 비디오를 빌리세요?

합법적인 엔티비를 적극 추천합니다!

지금바로 전화주세요! 617.955.9112 / 617.254.4654

NEWS CHANNEL, MBC, SBS, KBS, Mnet, OCN, etc.



'구르미 그린 달빛' 박보검♥김유정

(서울=뉴스1스타) 강희정 기자 = '구르미 그린 달빛' 박보검, 김유정의 티저 포스터가 베일을 벗었다.

KBS2 새 월화드라마 '구르미 그린 달빛' (극본 김민정 임예진/연출 김성윤 백상훈) 측은 19일 오후 왕세자 이영(박보검 분)과 위장 내시 흥라온(김유정 분)의 다정한 모습이 담긴 티저 포스터를 공개했다.

공개된 포스터에서 영은 라온의 무릎을 베고 누웠고, 라온은 영에게 부채를 부쳐주고 있다. 두 사람의 얼굴엔 더위도 잊을 만큼 청량한 미소가 담겨 보는 이들을 흐뭇하게 한다.

이 같은 완벽한 케미스트리는 포스터 촬영 때부터 조짐이 보였다. 시안을 꼼꼼하게 체크한 배우 박보검, 김유정은 촬영에 들어가자 여름 나들이를 나온 커플처럼 자연스럽게 포즈를 취했다. 김유정은 누워서 촬영해야 하는 박보검을 배려해, 자세를 이리저리 바꿔가며 편안한 무릎베개를 만들었다. 그 위에 눕자마자 박보검은 "정말 편하

다. 촬영하는데 이렇게 편해도 되나"며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제작진은 "왕세자 이영과 (위장)내시 흥라온이 궁에서 만나 감정을 쌓아가며 그려나가는 예측 불가능한 로맨스를 이번 티저 포스터에 함축적으로 담았다. 방영 시기인 여름을 배경으로 두 남녀의 풋풋하고 싱그러움 감성을 표현하고자 했다. 두 배우의 사랑스러운 '케미'가 포스터의 완성도를 높였다. 드라마가 방영되는 8월까지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구르미 그린 달빛'은 왕세자 이영, 위장내시 흥라온, 꽃선비 김윤성(진영 분), 조선판 헤라 조하연(채수빈 분), 비밀병기 김병연(곽동연 분) 등 역사가 기록하지 못한 조선 시대 청춘들의 성장 스토리를 다룬 궁중 로맨스다. '연애의 발견' 김성윤 PD와 '태양의 후예' 백상훈 PD가 공동 연출을 맡아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오는 8월 방송 예정.

hjk0706@news1.kr



'부산행', 개봉 첫날 87만 명 동원..누적 관객 143만

(서울=뉴스1스타) 유수경 기자 = 영화 '부산행'이 대박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유료 시사를 통해 개봉 첫날 누적관객수가 이미 143만 명을 넘었다.

21일 영진위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부산행'은 지난 20일 87만 2389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누적관객수는 143만 8003명이며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다.

'부산행'은 연일 새로운 흥행 기록을 세우고 있다. 역대 한국영화 개봉일 기준 최대 예매량을 보유하고 있던 '검사와전'(26만), '명량'(26만), '설국열차'(21만)의 기록을 모두 갈아치웠다. 예매 점유율이 80%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다.

한편 '부산행'은 전대미문의 재난이 대한민국을 뒤덮은 가운데, 서울역을 출발한 부산행 열차에 몸을 실은 사람들의 생존을 건 치열한 사투를 그린 재난 블록버스터다. 공유, 마동석, 정유미, 김수안 등이 출연한다.

uu84@news1.kr



'W', 웹툰이 잡아먹은 현실 '흥미진진 x 100'

(서울=뉴스1스타) 유수경 기자 = 이렇게 흥미진진할 줄은 몰랐다. 'W'가 웹툰 속 세계를 현실로 옮겨놓으며 시청자들의 상상력에 불을 당겼다.

21일 밤 10시 방송된 MBC 'W'(극본 송재정/연출 정대윤)에서는 웹툰과 현실을 오가며 이종석과 줄다리를 벌이는 한효주의 모습이 그려졌다.

'W'는 현실 세계의 초짜 여의사 오연주가 우연히 인기 절정 웹툰 'W'에 빨려 들어가 주인공 강철을 만나 로맨스가 싹트면서 다양한 사건이 일어나는 로맨틱 서스펜스 멜로 드라마다. 독특한 스토리와 배우들의 몰입도 높은 연기력이 시청자들의 흥미를 돋우고 있다.

이날 방송에서는 사라졌던 웹툰 'W' 작가 오성무(김의성 분)가 강철(이종석 분)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오연주(한효주 분)는 아버지 오성무가 강철을 죽이려한다는 걸 알게 됐고 아버지에 전화를 걸어 웹툰 안에 두 개의 세계가 있음을 재차 알렸다.

그럼에도 오성무의 뜻은 강경했고 오연주는 그건 살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때 웹툰 세계와 현실이 또다시 연결됐고 오연주는 강철이 있는 웹툰 세계로 빨려들어갔다. 오연주는 강철을 구했고, 오성무는 자동으로 완성되는 그림판을 보면서 경악했다.

이후 오연주는 웹툰 세계에서 경찰조사를 받을 위협에 처했다. 그는 강철에게 병원에서 탈출하게 도와달라고 말했다. 오연주는 "제가 공범 아니라는 거 그쪽은 잘 알잖아요"라고 애원했고 강철은 "왜 안다고 생각하냐"라고 물었다. 오연주는 "직감으로요, 직감으로 알잖아요"라며 "대표님에 대해 잘 안다. 내가 대표님 인생에 키가 될 거란 생각도 하지 않냐"라고 말했다.

강철은 당황한 듯 그를 바라보다가 정체가 뭐냐고 물었다. 결국 오연주는 강철을 설득하는데 성공했고 의사 가운을 버리고 탈출에 성공했다.

오연주는 버스 정류장에 앉아서 숨을 돌렸다. 30분의 시간이 흐른 뒤 웹툰 속 세계는 갑자기 밤

에서 아침으로 바뀌었다. 강철은 오연주에게 전화를 걸어 "벌써 두 달이나 흘렀다"고 말했다. 오연주는 속으로 '이건 만화잖아. 주인공을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병원에 누워있는 시간을 건너뛴 건가. 그럼 나는 어떻게 된 건가. 두 달 동안 실종된 상태인 건가'라며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강철은 두 달간 노숙을 했던 거냐며 오연주에게 새 옷을 사줬다. 오연주는 탈의실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다. 그는 '이건 연재 만화야. 그럼 다음 회로 넘어가는 계기가 있어야 하는 건가. 엔딩이 될만한 사건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떠올리기에 이르렀다.

오연주는 무턱대고 걸어와 강철의 따귀를 때렸다. 엔딩을 만들기 위함이었지만 강철은 의외로 태연했다. 강철은 "사람을 때릴 땐 무슨 맥락이 있어야죠"라고 말했다고 오연주는 또 다른 엔딩을 상상하며 입을 맞췄다. 이로 인해 현실세계로 돌아올 수 있었다.

하지만 웹툰 속 시간의 흐름과 상관없이 현실에서는 30분만 지나 있었다. 간호사와 동료 의사는 키스 장면으로 끝난 웹툰을 보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저절로 완성된 웹툰 때문에 작가들 역시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화가 난 오성무는 자신이 보낸 원고가 아니라 당장 웹툰을 내리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오늘 웹툰이 최종회가 될 거라고 선언했다. 오연주는 오성무에게 전화를 걸었고, 오성무는 "그놈은 괴물이다. 내가 몰랐는데 괴물이더라. 잘못 만든 피조물이라서 심판을 하는 거다"라며 "그놈은 진작 끝났어야 했다"라고 소리쳤다.

그는 딸에게 위험하다고 경고하며 더이상 끼어들지 말라고 말했다. 하지만 오연주는 이를 납득하지 못했다. 오성무는 강철을 죽이기 위해 트럭에 치이는 설정을 했지만 강철은 가까스로 차를 피했고 그림은 저절로 지워졌다. 더이상 웹툰을 조정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던 것. 강철은 "당신 누구야?"라고 오성무에게 역으로 질문을 던지며 숨통을 죄었다.

uu84@news1.kr

한주간



시청률 순위

2016년 7월 11일 ~ 2016년 7월 17일

Nielsen Media TV 지상파 주간시청률

1	KBS2	주말연속극(아이가다섯)	28.1%
2	KBS1	일일연속극(별난가족)	24.1%
3	MBC	창사특별기획(옥중화)	19.0%
4	SBS	월화드라마(닥터스)	18.7%
5	MBC	주말드라마(가화만사성)	17.9%
6	KBS1	KBS9시뉴스	17.3%
7	KBS2	일일드라마(여자의비밀)	15.0%
8	MBC	무한도전	14.0%
9	SBS	주말특별기획(미녀공심이)	13.1%
10	KBS2	해피선데이	13.0%

Tbo Play 주간시청률

1	KBS2	주말연속극(아이가다섯)
2	MBC	MBC아침드라마(좋은사람)
3	KBS1	일일연속극(별난가족)
4	SBS	TV소셜(내 마음의 꽃비)
5	MBC	일일연속극(다시시작해)
6	SBS	주말특별기획(미녀공심이)
7	KBS2	일일드라마(여자의비밀)
8	SBS	일일드라마(당신은선물)
9	SBS	월화드라마(닥터스)
10	MBC	주말드라마(가화만사성)

* 한국 TV KBS, MBC, SBS를 월 \$37.99에 볼 수 있는 티보 (617-955-9112) 지금 신청하세요!

한주간 흥행 차트 순위 10

01	Day Day (Feat. 박재범)	BewhY
02	Why So Lonely	원더걸스
03	너 그리고 나 (NAVILLERA)	여자친구
04	Forever (Prod. By GRAY)	BewhY
05	Shut Up (Feat. 유희열)	언니쓰
06	I Like That	씨스타
07	CHEER UP	TWICE
08	맘 편히 (Comfortable)	사이먼 도미닉
09	미친놈 (Feat. 제시)	샵건
10	니가 알던 내가 아냐 (Prod. By GRAY)	사이먼 도미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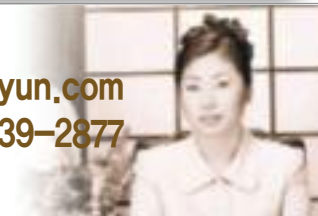
숫자 퍼즐 (Sudoku)

				3	9			
			2	4				8
	7						2	4
				9			3	6
9	4	3				5	8	2
6	8			2				
3	1						7	
7			6		9			
		2	7					

7월 24일 - 7월 30일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p>쥐띠 계획이나 선택을 잘해야</p> <p>●운수:기분이 최상인 상태입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숨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중요한 사람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금전:새도 가치를 가려서 않는다고 합니다. 계획이나 선택을 잘해야 그에 따른 이익을 볼 것입니다. ●애정:독신자는 삶을 같이 할 배필을 만날 수 있는 주입니다. 소신껏 밀고 나가면 좋은 결과가 올 것입니다. 84, 72, 60, 48, 36년생은 18, 21일 길일, 20, 23일 주의.</p>	<p>소띠 경제적으로 호전되는</p> <p>●운수:작은 복은 자신이 만들고 큰 복은 하늘이 준다고 합니다. 열심히 한 가지 일에 몰두하면 좋은 성과를 얻을 것입니다. ●금전:경제적으로 호전되는 운입니다. 바쁜 만큼이나 짭짤한 수입이 따라주는 주입니다. ●애정:사랑의 파동이 급상승하는 중입니다. 마음에 두고 있는 상대가 있다면 이번 기회에 말을 걸어보세요. 85, 73, 61, 49, 37년생은 26, 29일 길일, 24, 27일 주의.</p>	<p>범띠 과감하게 결정해야</p> <p>●운수:조바심을 내지 않도록 하세요. 성공하게 행동할수록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 여유롭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금전:작은 손실에 연연하다가 더 큰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대범하게 생각하고 과감하게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애정:너그로움으로 상대의 잘못을 받아줄 때입니다. 서로간의 애정이 더욱 돈독해질 것입니다. 86, 74, 62, 50, 38년생은 27, 30일 길일, 25, 28일 주의.</p>
<p>토끼띠 예상외의 수입이 따라주는</p> <p>●운수:한가지로 열 가치를 알게 됩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판단도 잘되는 시기이니 기대한 만큼 보람이 있겠습니다. ●금전:예상외의 수입이 따라주는 주입니다. 나갔던 돈이나 그동안 받지 못해서 고심하던 돈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애정:부부의 화목을 다짐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마음을 타놓고 한 주를 보내주세요. 87, 75, 63, 51, 39, 27년생은 24, 28일 길일, 26, 29일 주의.</p>	<p>용띠 서로에 대한 감정이 싹트는</p> <p>●운수:느긋한 자세가 뜻하지 않게 작은 행운을 부를 수 있습니다. 신경을 쓸 일이 많아지겠지만 조금씩 하지는 마세요. ●금전:자기 주관 없이 남의 생각이나 행동을 덩달아 따르면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애정:어느덧 서로에 대한 감정이 싹트는 주입니다. 헤어질 때 돌아서려는 발걸음이 무겁고 아쉽지만 서로 내색하지는 못하고 있군요. 88, 76, 64, 52, 40, 28년생은 25, 29일 길일, 27, 30일 주의.</p>	<p>뱀띠 주머니 단속을 철저히</p> <p>●운수:자영업자나 사업가는 주위 사람들에게 신용을 얻는 일이 중요합니다. 독단을 버리고 협력적인 체제를 취하도록 하세요. ●금전:수입은 있으나 지출이 늘어나는 때입니다. 주머니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세요. ●애정:자기 눈으로 자기 눈을 못 보듯이 자신의 결함을 잘 알지도 못하고 스스로 찾아내기도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26, 30일 길일, 25, 28일 주의.</p>
<p>말띠 상대의 관심과 애정을 얻게 되는</p> <p>●운수:전문가의 판단이라고 전부 옳은 건 아닙니다. 자기 소신껏 밀고 나가는 것이 현명한 때입니다. ●금전:자금은 일을 추진하기에 적기는 아닙니다. 매매는 어려움이 따르겠으니 시일을 늦추는 것이 좋겠습니다. ●애정:지금까지 끌려온 상대에게 무관심한 태도를 보여 보세요. 그러면 도리어 상대의 관심과 애정을 얻게 됩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24, 27일 길일, 26, 29일 주의.</p>	<p>양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p> <p>●운수:가까운 사람과 상의하고 많은 사람에게 조언을 구한다면 쉽게 일을 매듭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금전:눈높이를 낮춰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세요.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만족해야 하는 주입니다. ●애정:사랑이 넘치는 시기입니다. 연인에게 사랑 고백은 자신이 먼저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25, 28일 길일, 27, 30일 주의.</p>	<p>원숭이띠 깊은 배려를 아끼지 않도록</p> <p>●운수:좋은 말을 마음에 간직하지 못하고 흘려버리기 쉬운 시기입니다. 주위의 조언을 새겨들어서 하고자 하는 일에 밑거름을 만들도록 하세요. ●금전:계획한 일은 늦게 이루어지겠습니다. 여러 사람과 상의하여 일처리를 해야 뒤탈이 없을 것입니다. ●애정:사랑은 표현함으로써 완성되는 것입니다. 배우자에게 보다 깊은 배려를 아끼지 않도록 하세요. 92, 80, 68, 56, 44, 32년생은 26, 29일 길일, 27, 28일 주의.</p>
<p>닭띠 다시 한 번 생각해볼게 되는</p> <p>●운수:지나친 욕심으로 밀어붙이면 허탈한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특히 건강문제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때입니다. ●금전:자신의 분수에 맞지 않는 사업을 진행시키거나 욕심이 너무 지나쳐서 확장한다면 금전적인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애정:아무런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는 사랑도 다시 한 번 생각해볼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25, 30일 길일, 26, 29일 주의.</p>	<p>개띠 때로는 돌아서 가는 것이</p> <p>●운수:무모하게 정면대결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때로는 돌아서 가는 것이 결국에 가서는 더 빠른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금전:현실을 직시하도록 하세요. 조건이 맞지 않을 때는 좀 더 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애정:아쉬운 마음을 뒤로한 채 헤어진 사람과 또다시 만나 행복할 한 때를 보내게 되는 주입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25, 27일 길일, 24, 30일 주의.</p>	<p>돼지띠 차분하게 때를 기다려야</p> <p>●운수:지나친 욕심으로 무리한 변화나 확장은 시기상조이니 차분하게 때를 기다리며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금전:쇼핑이나 레저 계획을 세워두더라도 자금사정을 체크해 보면서 미루는 자세가 필요한 때입니다. ●애정:사소한 문제로 부부가 다들 수 있습니다. 한발 양보하여 가정의 평화를 깨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24, 29일 길일, 25, 28일 주의.</p>

'슈스케 2016' 심사위원 확정

(서울=뉴스1스타) 강희정 기자 = '슈퍼스타K 2016' 이 7인의 심사위원을 공개했다.

20일 오전 Mnet 측은 " '슈퍼스타K 2016' 에 거미, 길, 김범수, 김연우, 용감한 형제, 에일리, 한성호 (FNC 대표)까지 총 7명이 합류하게 됐다" 고 알렸다.

'슈퍼스타K' 는 지금까지 선보였던 3~4인 심사위원 체제와 달리 새롭게 7인 체제를 도입했다. '슈퍼스타K 2016' 제작진은 분야별로 강화된 심사위원 7인 체제를 통해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심사위원을 '레전드 보컬', '트렌디 아티스트', '스타 메이커' 등 총 세 개 분야로 나눠 가창력뿐만 아니라 스타성, 대중성, 가능성 등을 다각도로 심사할 예정이다.

먼저 노래로 감동을 선사하는 새로운 스타를 찾아낼 '레전드 보컬' 심사위원에는 거미, 김범수, 김연우가 호흡을 맞춘다. 거미는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참가자들의 감성을 아우르고, 잠재된 실력을 간파하는 심사를 선보일 예정이다. 김범수



는 2년 간의 '슈퍼스타K' 경험을 살려 다시 한번 매의 눈으로 원석을 발굴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김연우는 최정상 보컬답게 가창력에 대한 예리하고 섬세한 심사를 보여줄 계획이다.

최신 가요계 트렌드를 심사에 반영하고 참가자들과 소통할 '트렌디 아티스트' 심사위원에는 인기

합합아티스트이자 프로듀서인 길과 가수 에일리가 확정됐다. 길은 Mnet '보이스코리아', '쇼미더머니' 에서 보여줬던 친근하면서 개성 강한 심사를 기대케 한다. 에일리는 무대 위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참가자들에게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할 예정이다.

hjk0706@news1.kr



'무도' 박명수 VS 하하, 변호사들과 히트 유행어 주인 가린다

(서울=뉴스1스타) 장아름 기자 = '무한도전'에서 유행어 '히트다 히트'의 저작권 싸움을 중재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린다.

지난 16일 방송된 MBC '무한도전'에서는 자신이 말한 '히트가 단초가 돼 탄생한 유행어 '히트다 히트'로 하하가 광고를 찍자 분개하는 박명수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에 멤버들은 '히트다 히트'의 진짜 주인을 찾기 위한 제1회 '무한도전'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었다.

이번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저작권과 엔터테인먼트의 전문가인 6명의 변호사들이 함께했다. 6인의 변호사들은 예상 밖의 의견을 거듭 내놓으며

분쟁조정 내내 반전을 만들기도 했다. 분쟁의 당사자인 박명수와 하하는 열띤 토론을 펼치다 폭로전까지 벌이기도 했는데, 하하는 '광고 사건' 이후 둘 사이 오고 간 긴밀한 메시지까지 공개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한편 '릴레이툰'에서는 조선 시대로 간 '무한도전' 멤버들을 그린 4회에 이어 광고와 윤태호 작가가 함께한 5회가 공개된다. 몇 주간 윤태호 작가의 문하생 생활을 한 광희가 어떤 그림을 그려낼지, 또 '나쁜 기억 지우개' 특집에서 큰 울림을 줬던 윤태호 작가가 '릴레이툰'에서는 과연 어떤 메시지를 줄지 기대가 모아진다.

aluem_chang@news1.kr

'해투3' 박명수 "GD · 지코 · 찬열, 과시용 인맥 아냐"

(서울=뉴스1스타) 강희정 기자 = 박명수가 빅뱅 지드래곤(GD), 블락비 지코, 엑소 찬열과 인맥을 언급했다.

21일 밤 11시10분 방송된 KBS2 '해피투게더3'는 소원도 특집으로 꾸며졌다.

이날 본격적인 게스트 등장에 앞서 유재석은 박명수에게 "과시용 인맥이 있느냐"라고 물었다. 박명수는 "과시가 아니라 진정한 인간관계"라며 "지디, 지코, 찬열, 아이유... 그 정도"라고 나열했다.

이를 든든 MC들이 "잘 되는 사람

만(친하다)"이라고 의문을 제기하자 박명수는 "아니다. (이상하게) 잘 되더라"고 응수해 웃음을 자아냈다.

그런가 하면 전현무는 같은 질문에 "예전엔 사이니, 엑소 그랬는데 요즘은 유재석 따라가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hjk0706@news1.kr



천지보살

운명사주궁합신점

전화예약 617-947-6799

전화로도 상담해드립니다

Korean speaker : Sales Representative Wanted

True World FOODS

True World Foods is a leading food wholesaler delivering fresh related products to restaurants throughout New England. We are expanding into the Korean markets and need a rep who can speak Korean, but who is also competent in English. The job starts at 6am Monday through Friday (work a half day every other Saturday). Need to maintain customer accounts and opening new accounts, visiting customers. Should have a valid driver's license with a relatively clean driving record, adequate office skills including computer literacy, and familiarity with the restaurant business and/or wholesale food business would be a plus.

Compensation will be based on your experience and abilities. Benefit package and/or green card sponsorship may be available.

To apply please send your resume to: True World Foods Boston c/o 스페리 김, 22 Foodmart Road, Boston, MA 02118. Or email to stevkim@trueworldfoods.com Tel: 617.596.1377

김원태 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 (EA & NY) • BOA000 - GDT - LMS AP
MA REALTOR • EA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건축 & 시공

15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
박사후세출와 뉴욕 건축사 전문 라이선스 보유
특별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기법 - 설계 - 허가 - 시공 - 관리
각종 건물 신축 - 통축 - 개축
We can Design Build Buy Sell your home!
상용건물 - 콘도 - 주택 - 사업체 매매 도와드립니다

otk212@gmail.com 617.620.8242

New name for &TV

TBO PLAY RATINGS

티보 시청률

TBO Play는 한국 방송 및 영화 콘텐츠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정식 라이선스를 받아 북미지역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티보플레이 7월 2째주 시청률 BEST10

- | | | |
|----|-----|----------------|
| 1 | KBS | 아이가 다섯 |
| 2 | MBC | 좋은사람 |
| 3 | KBS | 별난가족 |
| 4 | KBS | TV소설(내 마음의 꽃비) |
| 5 | MBC | 다시시작해 |
| 6 | SBS | 미녀공심이 |
| 7 | KBS | 여자의 비밀 |
| 8 | KBS | 당신은 선물 |
| 9 | SBS | 닥터스 |
| 10 | KBS | 가화만사성 |

티보플레이 7월 2째주 신규 방송

- | | | |
|---|-----|----------|
| 1 | CJ | 바벨250 |
| 2 | CJ | 싸우자 귀신아 |
| 3 | SBS | 인생게임 상속자 |

티보플레이 7월 2째주 최신 영화

- | | | |
|---|--------------|-----|
| 1 | 특별수사 사형수의 편지 | 김명민 |
|---|--------------|-----|

'특별수사', 배우들이 쏟아낸 펄떡이는 에너지

(서울=뉴스1스타) 유수경 기자 = "출연배우가 관람 포인트다"라는 김명민의 말처럼 '특별수사: 사형수의 편지'는 캐릭터들이 살아 숨쉬는 영화다. 개성이 뚜렷한 각각의 인물들을 노련한 배우들이 연기하면서 영화에 생동감을 불어넣었다

이 영화는 권력과 돈으로 살인까지 덮어버린 재벌가의 만행을 파헤치는 사건브로커의 통쾌한 수사극을 그린다. 김명민과 성동일이 각각 전직 형사인 브로커 필재와 검사 출신 변호사 판수로 분해 갑질하는 금수저 사모님(김영애 분)을 잡기 위한 특별수사를 펼친다.

김명민과 성동일은 작품에서 처음으로 만났지만 환상의 호흡을 보여준다. 두 사람이 등장하는 매 신마다 웃음이 터져나온다. 평소 성동일은 애드리브의 제왕으로 알려져 있다. 김명민 역시 이를 인정하며 "형은 어떤 상황에서든 심각하지 않다"고 성동일에 대해 설명했다.

극은 전체적으로 빠르게 전개된다. 특히 초반에 관객들을 압도하는 에너지가 좋다. 김명민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일들이나 각 인물의 성격들이 속도감 있게 설명되며 지루할 틈을 주지 않는다. 다만 극 중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사건에 비해 후반부로 갈수록 영화가 가벼워지는 느낌은 있다.

연출을 맡은 권종관 감독은 "무겁지만, 무겁지만은 않은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고 털어놓았다. 물론 더 무거웠다면 지나치게 현실과 결부시켜 생각을 하게 만들어 오히려 상업영화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면 좋겠다. 가볍지만, 가볍지만은 않은 영화.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사이다 같은 통쾌함이 있다.

uu84@news1.kr



김상중, '상속자' 기획안 보자마자 출연 결정

(서울=뉴스1스타) 권수빈 기자 = 배우 김상중이 SBS 파일럿 프로그램 '인생게임-상속자' 기획안을 보자마자 출연을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작진에 따르면 김상중이 맡은 '마스터' 역할은 기존 MC와는 개념이 다소 다르다. 마스터는 별도로 마련된 마스터룸에서 출연자들의 인생게임을 모니터링하면서 상황에 출연자들과 독대하게 된다.

김규형 PD는 "김상중씨가 마스터로서

출연자들에게 다양한 욕망을 표출하게 하고 선택을 하게 하는 신을 직접 촬영하고 진행했다. 일종의 제로섬 게임을 하며 출연자들이 느끼는 딜레마와 고민, 허탈함 등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아주 절실하게 표출됐다"고 촬영 후기를 들려줬다.

'인생게임-상속자'는 17일 밤 11시10분, 24일 밤 11시10분에 2회에 걸쳐 방송된다.

ppbn@news1.kr



TBO PLAY

보스톤권역 MA, RI, NH 지역 공식 딜러

무제한 시청 월: **\$39.99**

이동 고객 특별 할인
타 방송사에서 티보 플레이로 갈아 타시는 분에 한해 월 \$30도 특별 우대해 드립니다

KBS, MBC, SBS, SBS Plus, tvN, XTV, Mnet, O'live, OCN

The Best Underpaid, TBO

이정선 부동산

kw BOSTON-METRO KELLERWILLIAMS

CHUNG S. LEE

Mobile: 781.883.5984
Office: 617.535.7851
Fax: 617.542.0016
chunglee7@gmail.com
chunglee.kwrealty.com

607 Boylston Street, Suit 500
Boston, MA 02116



Premier Realty Group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LISTINGS

1. Full Plant 클리너 : 렉싱턴에 위치. 부동산 포함 \$1.39M SOLD	9. Single family : 22 Willow park, Wellesley SOLD
2. Full Plant 세탁소 : Marlborough 좋은 위치. Asking \$65,000	10. Condo : 20 Hosmer st. unit 1, Watertown SOLD
3. Full Plant 세탁소 : 보스턴 북부 인근. Asking \$150,000	11. Multi family : 23-25 Baker St., Belmont SOLD
4. Full Plant 세탁소 : Tewksbury 큰 Mall 안에 위치. 넓은 주차공간. Asking \$30,000	12. 마림 식품 : Allston SOLD
5. 드롭오프 스토어 : Sharon에 위치. \$40,000	13. Single Family : 4 Bed, 2 Full Bath, 2,130 SF, 64 Oak St., Newton SOLD
6. 드롭오프 스토어 : Norwell에 위치. \$20,000	14. Condo : 47 Homer ave Unit 5-3 Cambridge SOLD
7. 보스턴 인근 일식당 : Asking \$225,000 SALE PENDING	15. Condo : 47 Gordon St. Unit 1 Allston SOLD
8. 렌트 : 701 Hammond St. Unit 2, Brookline \$3,400 RENTED	

급매

NEW LISTINGS



렌트

12-16 Ellery St. Unit 603 Cambridge
2 Bed 2 full bath, 하버드 sq.에서 5분
Rent includes heat, hot water,
snow removal, one assigned parking.
9월1일 입주 가능.
월 \$3,000



렌트

11 Hibbert St. Lexington
Single Family
3Bed 1Bath
월 \$2,700



렌트

156 Porter St. Unit 236 East Boston.
Loft style 1Bed.
좋은위치 다운타운에서 15분
월 \$2,400



세탁소

보스턴 북부 세탁소
안정적인 매출
Asking \$180,000



비즈니스 리스

51 Union Square
Somerville, 1,400s.f.
월\$2,500 + NNN



Single Family

6 Sorens Way Bedford
4Bed 2.5Bath 3,580 s.f. 0.6 Acre
Cul-de-sac lot.
UNDER AGREEMENT



델리&컨비니언스

좋은위치 성업중
Asking \$120,000



일식당

Beer and wine 포함
Lawrence 지역,
좋은위치
Asking \$190,000

Price Reduced



컨비니언스 스토어

Cambridge에 위치
Asking \$140,000



비즈니스 콘도

Brookline
현재 세탁소영업중.
좋은 렌트수입
Asking \$509,000

Price Reduced

나원태: 617.642.3156
제이슨전: 617.642.5670

신영의 **세상 스케치**

554회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혼란스러울 때는 기본으로 돌아가라

너무 빨리 돌아가는 문명 앞에 정말 골이 흔들린다. 뭔가 제대로 보려 할 때쯤이면 저 만치 가있는 요즘 현대과학과 의학 그 외의 것들이 그렇다. 그야, 발달한 만큼 인간의 건강과 수명에 관련이 있으니 더욱 좋은 일이다. 그런데 요즘 더 빨리 돌아가는 것이 IT 분야이지 않던가. 올봄에 S사에서 출시한 새로운 휴대전화를 구입하였다. 기계라면 정말 문외한인 내가 사용하는 것이라고는 통화와 사진 담기 그리고 카카오톡과 한국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과 보이스 톡 정도밖에는 뭐 할 줄 아는게 없다. 휴대전화를 이용한 유용한 정보들도 많았는데 몰라서 놓쳐버리는 것이 많다.

가끔 아는 것이 없어 혼자 휴대 전화 매뉴얼을 찾아보다가 모르겠기에 남편에게 물어보는데 몇은 한국 언어를 선택해 올린 것이 있었다. 한국말이 서툰 짝꿍이 제대로 일 처리를 못 해주니 속상하고 말았다. 그리고 가끔 가깝게 지내는 동생에게 물어보면 한국어와 영어가 섞여 있어 힘들다며 아예 한국말로 다 바꿔놓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필요에 따라 영어가 편한 부분이 있기에 모

두를 한국어로 바꿔놓을 수도 없으니 말이다. 남편이나 동생이나 모두가 내 마음에 썩 들지 않지만, 또 몰라서 물어보는 것을 어쩔까. 얼마 전의 하루, 휴대 전화가 갑자기 먹통이 된 날이 있었다. 내가 저장한 비밀번호가 갑자기 틀리었다며 다시 시도해보라는 것이다. 몇 번을 반복해도 안 열린다. 한 번씩 시도하면 할수록 다시 시도해보라는 시간은 길어지는 것이다. 처음에는 3분 후에 해보라는 것이 나중에 30분 후에 다시 시도 해보라는 것이다. 그때는 당황했는지 휴대전화의 전원을 꺼 볼 생각마저도 나질 않았다. 휴대전화의 내 비밀번호는 분명한데 안 열리는 것이 이상해 계속 반복시도를 해본 것이다. 그렇게 반나절을 전화를 손에서 떼지 못하고 들고 있었던 기억이다.

그렇게 반나절을 보내고서야 어떻게 되었는지 전화가 열렸었다. 그런데 그제에 또 똑같은 일이 발생했다. 방금 전에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열었던 휴대폰이 갑자기 또 먹통이 되는 순간이었다. 그래도 미련이 남아 두 번은 다시 비밀번호를 입력해 보다가 문득 생각이 떠올랐다. 그래, 전원을 꺼 보면 제대로

열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웬걸, 전원을 끈 다음 잠시 후에 다시 전원을 키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니 열리는 것이 아닌가. 아하, 이제는 알것 같았다. 그것은 지난번 반나절을 끄고서 전화기를 열어보려 했던 무지에서 나온 지혜 덕분인 것이다.

어디 휴대전화뿐일까. 우리네 삶의 여정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니던가. 무엇인가 내 생각과 마음대로 계획했던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앞이 보이지 않아 답답하고 혼란스러울 때를 만나지 않던가 말이다. 그럴 때 멈추지 않고 계속 앞을 향해 가다가는 낭패를 당하기 쉽고 실패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옛 어른들의 말씀처럼 급한 일일수록 돌아가라는 지혜의 말씀이 바로 이런 일을 두고 한 말씀인 게다. 삶에서 급한 일을 만날수록 잠시 깊은 심호흡으로 생각과 마음을 가다듬고 차분히 일과 마주할 수 있다면 여유의 마음이 생겨 일을 그르치지 않을 것이다.

모르는 것이 죄(잘못)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자랑은 더욱이 아니라는 생각을 한다. 모르는 것이 죄가 아니라, 모르는 것을 배우려 노력하지 않는 게으름이 죄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 이처럼 작은 일상에서 겪는 경험들을 통해 조금 더 나 자신에게 배울 기회가 주어지니 고마운 일이 아니던가. 더도 덜도 말고 내가 노력한 만큼만이라도 배울 수 있다면 시간을 내어 배워보고 싶어졌다. 무작정 어렵다고 뒷전에 놔두지 말고 더딘 걸음이지만, 조금씩 아주 조금씩 앞으로 전진하며 걸을 수 있다면 이것은 또 하나의 아주 특별한 선물이 되는 이유이다.

이제는 더욱 무수히 쏟아져나오는 정보들이 많을 것이다. 그 정보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으려면 아무리 기계가 싫더라도 친해지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겠는가. 모르면 배우고 알면 가르치며 사는 삶이 우리네 나눔의 삶이 아닐까 싶다. 네가 있어 내가 있고 내가 있어 네가 있는 우리가 되는 세상 말이다. 모른다고 움츠러들지 말고, 안다고 밀어내지 않는 그런 삶이면 좋겠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배웠다고 조금 더 가졌다고 으스스대지 않는 겸손과 다른 사람보다 덜 배웠다고 덜 가졌다고 움츠러들지 않는 자신감이려면 서로가 서로에게 꼭 필요한 삶이고 존재인 까닭이다.



한담객설閑談客說: 몽당연필 냄새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민학교에서 가르친다. 하긴, 컴퓨터에 익숙한 애들에게 연필을 쥐라 하는건 과한 요구인지도 모르겠다. 내 아이도 예외는 아니다. 연필을 쓰기는 쓴다만, 천연연필이 아닌 샤프펜슬을 쓴다. 아이가 연필로 쓰는 연애편지를 본 일도 없다. 다른 애들은 나무 연필을 쓰는지? 그건 모르겠다. 몽당연필을 볼펜대에 끼워 쓰는지? 버리기는 아깝고 쓰자니 너무 작아 쓸 수 없는 것 아닌가. 이것도 추억이라 해야 하나?

철지난 유행가 가사의 한 대목이다. 사랑은 연필로 쓰라 했던가. 사랑도 쓰다가 틀리면 지울수 있다 했다. 몽당연필로 쓰면 더 정취가 삼삼했을터.

사랑을 쓸려거든 연필로 쓰세요
...
사랑을 쓰다가 쓰다가 틀리면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야 하나
(전영록,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내 형님은 연필을 무지 잘 깎았다. 연필깎이

로 깎은 건 아닌데, 면도칼로 깎았다. 연필깎이는 구경조차 해 볼수 없었으니 말이다. 형은 두어자루 잘 깎아낸 연필을 고등학생 교복 윗주머니에 꽂고 사진을 찍었다. 사진은 그렇게도 폼이 나더니, 나이 어린 나야 도저히 깎아볼 엄두도 내지 못했다. 몽툰한 연필들은 필통 안에서 뒹굴고 있었다. 갱지 공책에 쓴 속제와 함께, 세월이 한참 흘러 내 스스로 연필을 깎을 수있었다. 깎을 적엔 향나무 냄새에 취하고는 했다. 잘 깎은 연필을 내 교복 윗 주머니에 넣어도 보았다. 형이 했던 걸 따라 해봤던 거다. 뽀족한 연필심에 손을 찔릴뻔 했다. 그 향나무 냄새는 아직도 코를 간지린다. 연필을 코에 대고 숨을 깊게 들이 마시는 거다.

잘 깎인 연필촉은 송곳처럼 뽀족하다. 영화은교의 대사 한 대목이다. '할아버지, 뽀족한 연필은 슬퍼요.' 뽀족한 연필은 향나무 냄새가 나기때문에 슬플게다. 그윽한 향나무 냄새는 어린시절 그 냄새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요한 계시록 1:19)

연필의 추억이란 제목이 어색하다. 자주 쓰는 건 아니지만 여전히 연필을 쓰고 있으니 말이다. 시인 박목월은 늦은 밤이면 사각사각 연필을 깎았다고 했다. 시를 쓰기 위한 신성한 준비의식이었으리라. 소설가 김훈도 연필로 원고를 쓴다고 했다. 그는 독일제 연필을 쓴다

고 하던가. 참, 그가 연필을 쥐 손 사진을 봤다. 영성하게 쥐었는데 내가 놀랐다. 연필을 그렇게 연필을 쥐고도 작가는 잘 쓴다.

요새 아이들, 연필을 쥐는것, 젓가락 쥐는것, 모두 내 성에 차지 않는다. 그래서 '국민학교'를 좋은데서 나와야 하는가 보다. 이런건 국



BOSTON GONSTEAD
CHIROPRACT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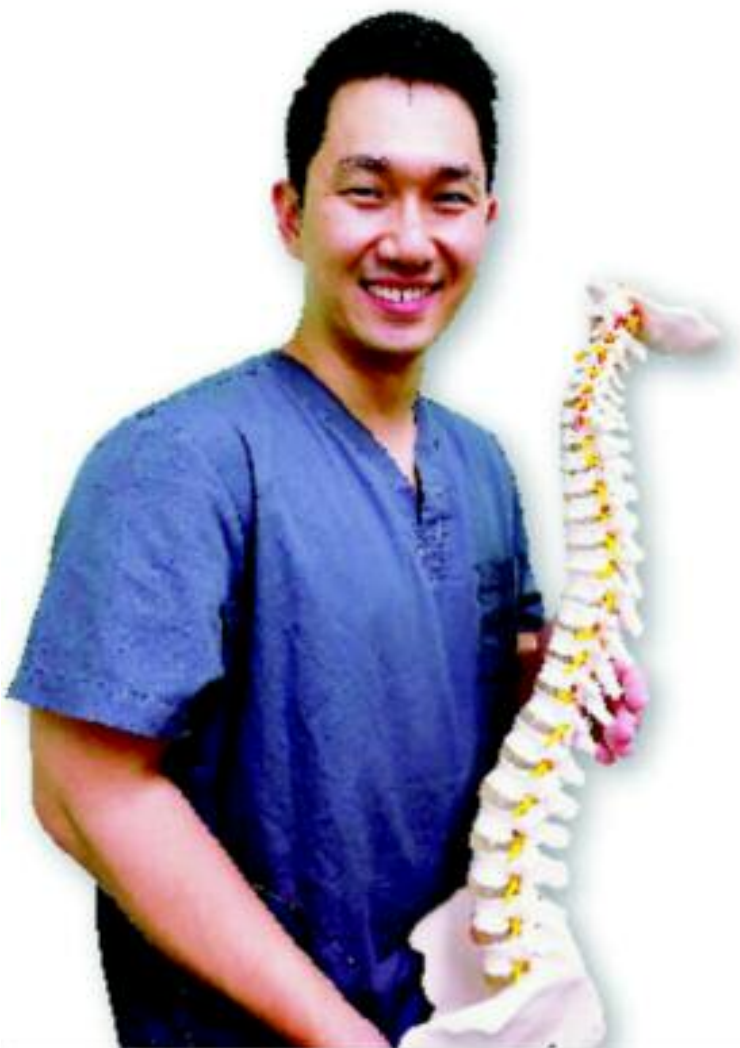
보스턴 건스테드 카이로프랙틱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Dr. 건스테드의 정통 카이로프랙틱 철학을 이어 받은 보스턴 건스테드가 개원을 기념하여 스페셜 이벤트를 준비하였습니다.

개원기념 스페셜

- 카이로프랙틱 상담
- 정밀 척추 검사 \$20(reg. \$250)
- 7월18일 - 8월31일



진료과목

- 척추계통
급성 목 / 허리 염좌 및 통증, 디스크 질환
- 사지계통
어깨, 무릎, 손목, 발목 통증
- 신경/순환 계통
손발 저림, 방사통, 만성 통증, 알러지, 소화불량
- 교통 / 직장 / 운동 관련 사고
- 학생 / 성인 자세 관련 통증 및 척추측만 교정

진료시간

월-금(M-F) : 8am-5pm
토(Sat) : 9am-12pm
일(Sun) : Closed

원장 : Dr. 유정호, D.C.
(Dr. Jeongho Yoo, D.C.)

Tel. 617.277.0648

Boston Gonstead Chiropractic
77 Pond Ave. Suite 101, Brookline, MA 02445
Email: info@bostongonstead.com
Web: www.bostongonstead.com



독자기고
김철

북미대륙 인디언의 역사 16. 기숙학교를 통한 인디언 동화정책 (5)

짐 소프(Jim Thorpe) (계속)
소프가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1911년부터이다. 당시 NCAC(National Collegiate Athletic Association; 미국전국대학체육협회) 최고의 팀으로 인정받고 있던 하버드대학 미식축구팀을 칼라일이 18대 15로 눌렀는데 18점 모두를 소프가 한 번의 터치다운(touchdown)과 네 번의 필드골(field goal)을 성공시켜 얻어냈던 것이다. 1912년에는 칼라일이 소프의 맹활약에 힘입어 전국 대학 챔피언에 올랐다. 그 해에 올림픽에 출전하여 2관왕이 되었으나 몇 년 전 여름방학 동안 프로 야구팀에서 아르바이트 선수생활을 하면서 약간의 급료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아마추어 자격이 상실되어 올림픽 금메달을 박탈당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소프가 죽은 지 30년이 되는 1983년에 소프의 메달 수상자 지위를 회복시켜 주었다.

소프가 프로선수로 분류된 후 1913년부터 1919년까지 프로야구팀에서 활동하였으며 동시에 프로 미식축구팀에서도 선수와 코치로 활약하여 1928년 그의 나이 41세로 은퇴할 때까지 대단한 성적을 올렸다. 1920년에 결성된 NFL(National Football League)의 초대 회장으로 추대되기도 하였다. 그는 또한 프로 농구선수로도 잠시 활동하였다고 한다.

선수생활을 그만둔 뒤 그의 후반기 인생은 어려운 시간이 계속되었다. 여러 직장을 전전

했지만 벌이는 신통치 않았다. 그는 몇 편의 서부 영화에서 인디언 주정역의 엑스트라로 출연하기도 하였으며, 건설노동자, 외항선원 등으로도 일했다. 만년에는 알코올중독자가 되었으며 1953년에 6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버펄로 빌의 와일드 웨스트 쇼(Buffalo Bill's Wild West)

라코타 인디언들이 리틀 빅혼 전투 등 일부의 전투에서는 미군에 이겼지만 인디언 전쟁이라는 큰 틀에서는 완전히 패하여 환경이 지극히 열악한 좁은 인디언보호구역 안에서 전쟁 포로처럼 연금생활을 하고 있던 시절에 한 가닥 희망은 칼라일학교와 버펄로 빌의 와일드 웨스트 쇼(Buffalo Bill's Wild West)이었다. 쇼의 책임자인 버펄로 빌은 과잉릿지에 거주하는 라코타 인디언들에게 자신의 쇼에 출연할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 출연한 인디언들에게는 백인과 똑 같은 조건으로 대우를 해주었다. 쇼 단원이 된 인디언들은 미국 내의 주요 도시와 유럽으로 순회공연을 다니면서 견문을 넓힐 수 있었는데, 이런 영향으로 자녀들을 칼라일학교로 많이 보냈다.

버펄로 빌의 본명은 윌리엄 프레드릭 코디(William Frederick Cody)로서 캔사스태평양철도회사(Kansas Pacific Railroad)에 버펄로 고기를 납품하기로 계약을 맺게 되어 버

펄로 빌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것이라고 한다. 빌은 1846년 아이오와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어릴 때에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10대 중반에는 특급우편배달제도인 포니 익스프레스(Pony Express)의 기사 생활도 하였다고 한다. 17세가 되던 1863년에 입대하여 1865년에 제대하였다. 1868년부터 1872년까지 인디언들을 찾아다니는 미군의 정찰병 생활을 하였는데 이 기간 중에 미군과 철도회사에 고기를 납품하기 위하여 수많은 버펄로를 죽였다고 한다. 그는 8개월 동안 4,280마리의 버펄로를 사냥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 1872년 1월에는 러시아 왕자(Grand Duke Alexei Alexandrovich of Russia)가 버펄로 사냥 여행을 왔을 때에 안내역할을 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버펄로 빌은 1873년부터 10년간 서부를 주재로 한 쇼에 출연하다가 1883년에는 자신의 쇼(Buffalo Bill's Wild West)를 직접 제작하였다. 당시의 시대 분위기는 인디언이야말로 사라져가는 종족(vanishing race)으로 인식되어 이들이 역사에서 없어지기 전에 그들을 직접 만나보고 인디언 문화를 경험해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한편 라코타 인디언들은 자신의 전통과 문화를 백인들에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이 쇼를 이용했다. 이때부터 와일드 웨스트 쇼는 30년간 미국 전역을 돌고 여러 차례 유럽순회 공연을 가졌다. 교황도 만나고 여

러 나라의 왕들도 만나게 되었고 빌 코디는 일약 세계적인 명사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 빌 코디는 인디언에 대하여 항상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빌은 인디언의 전통문화는 유지 발전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으며 “인디언과 백인간의 갈등은 백인들이 약속과 조약을 안 지키기 때문에 발생한다” 고 늘 말했다.

라코타 인디언들은 미국의 정책에 따라 인디언 보호구역 안에서 전통 춤이나 종교의식을 마음대로 행할 수 없는 시절에도 서부 쇼에 출연하여 마음껏 전통문화를 즐길 수 있었으며 이러한 출연기회를 그들의 전통을 더욱 갖고 닦는 데에 활용하였다. 시팅볼도 잠시 이 쇼에 출연하였다.



(버펄로 빌의 와일드 웨스트 쇼(Buffalo Bill's Wild West))

(다음 호에 계속)

강병조 변호사의 법률칼럼 - 미국세법 및 상법

연구 또는 교육을 목적으로 한 J 비자 소지자의 면세 혜택

강병조는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문학과를 1997년에 졸업했고, 동대학원에서 석사(1999)를 취득한 후, 동대학원 박사 과정 중 미국으로 이민, 하버드 대학교에서 동아시아학으로 석사(2002)를 취득했으며, 다시 카톨릭 대학 콜럼버스 로스쿨을 졸업(2011)했습니다. 강병조는 메릴랜드, 버지니아 주 변호사 자격증 이외에 현재 버지니아 주 회계사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Tel 703.595.2836, Ext. 101 | Fax 703.722.9168 | Website www.bjkanlaw.com 로 하시면 됩니다.

매사추세츠 주는 수많은 대학, 연구기관, 병원이 존재하는 까닭에 이곳에 계신 많은 한인분들이 연구자 또는 학생으로 임시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런 까닭에, 통상 납세자로서 지켜야 할 의무에 관심을 두시는 분은 흔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막상 세무 당국에서 통지서를 받고, 혹은 해당 학교나 연구소에서 관련 정산양식을 발급받아 부랴부랴 관련 내용을 챙기시지만 관련 업무나 내용의 복잡성이 녹녹치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입장에 계신 분들 중, J 비자를 갖고 연구 혹은 교육을 목적으로 임시 체류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검토로 제 첫 칼럼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J 비자는 미국무부가 문화 교류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비자인 만큼, 그 소지자들이 연구 혹은 교육을 목적으로 입국한 경우, 관련 보수에 대해 면세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러한 면세 혜택은 통상 비자 소지자들의 국적국과의 조세 조약에 근거

합니다. 한인 연구자들에게 친숙한 내용 이긴 한데, J 비자 소지 연구원 혹은 교원일 경우, 2년동안 무조건 면세라고 왜곡되어 알려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미국과 조세 조약을 체결한 국가에서 온 학생, 교원, 연구원들은 대부분 이러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그 혜택은 철저히 조세 조약에 준거합니다. 한미 조세조약 제 20항은, 2년 이하의 체류 기간을 “기대” 하고 (for a period not expected to exceed 2 years) 미국에 연구나 교육 목적으로 해당 기관에 초청되어 입국한 자가 교육과 연구를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주 명료한 듯 보이는 이 조항은 그러나 이 “기대” 가 비자 소유자의 것인지, 아니면 비자 스폰서인 초청 기관의 것인지는 확인해 주지 않았습니. 많은 대학이나 연구 기관들은 이런 애매함 때문에, 미 이민국의 행정 서류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DS2019와 같은 비자서류

가 조세 조약상 정한 체류 기간, 즉 한국인의 경우 2년을 넘는 경우라면 초청기관들은 해당 조세 조약 적용을 거부하고 지급하는 보수에서 원천징수를 한 후 연말에 일반적인 납세자를 위한 W2를 발행해 주는 게 현실입니다.

얼마 전 미국의 조세법원은 그러나 비자 만료일이 곧 이 체류 기간의 기대치와 등가라는 공식은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Santos v. Commissioner of Internal Revenue Service (35 T.C. No. 22)). J 비자를 소유하고 있던 원고가 본인의 비자가 2년 이후 갱신된다는 보장이 없고, 또 본인의 고용 계약도 1년 단위를 들어서 본인의 미국 체류 계획이 2년 이내였으며, 따라서 조세 조약의 조건을 충족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모든 적합한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기간이 2년 이하였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의 주장에 의해 기각된 것입니다. 요컨대 2년 이하의 체류기간

을 기대하고 입국하는 것은 비자 소유자 본인이나 혹은 초청 기관, 혹은 발급기관의 일방적 기대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본인이 비자를 받게 된 해당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어 왔고, 또 전임자들은 얼마나 미국에 체류했으며, 그를 토대로 본인과 초청기관이 공유하고 있던 체류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러한 조세 조약상 면세 조약의 수혜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혜 여부를 결정짓게 되었다면 그에 준거해 본인의 초청 기관에 납세인 신분을 확인하고, 그에 맞게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면세 혜택 수혜 여부를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알리지 않는 경우 연말에 정확한 정산양식을 발급받지 못하게 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연말 세무 보고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쌀쌀한 가을을 보내기 위한 필수품!

가족들에게
앤티비를 선물하세요!

하루 \$1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대로!



아직도 불법 다운로드 하세요?

아직도 비디오를 빌리세요?

합법적인 앤티비를 적극 추천합니다!

지금바로 전화주세요! 617.955.9112 / 617.254.4654



양미아의 심리치료 현장에서

양 미아 Licensed Psychotherapist

Private Practice: 1330 Beacon St.
Brookline, MA 02446
37 Fruit St. Worcester, MA 01609,
508-728-0832
yeungmiaj@gmail.com

‘잘 쉬는 것을 아는것, 그 보다 더한 능력은 없다! (2)’
-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XII -

살아가면서 힘이 들수록 쉬어, 쉬어 가야 하는 필요성을 잘 알지만, 제대로 쉬기 위한 지혜를 터득하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새마을 정신’ 을 강조하며 자라났던 386시대의 부모님,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술이 들어가야 휴식이라는 습관 속에 자라난 한국사람들에게 휴식이라는 단어는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다. 자영업을 하는 한 한국인은 우스갯소리로 “미국 공휴일은 한국공휴일이 아니니까 일을 한다” 라고 하면서 365일 매일 가게를 열고있다. 그래서 그런지, 모처럼 집에서 쉬는 날이 오하려 불편하다고 한다. 일하는 것이 미덕으로 자라난 한국인, 정말 부지런하게 일을 참 잘한다.

어려운 박사공부를 끝낸 닥터 한은 좋은 연봉과 알아주는 바이오 케미칼 회사에 취직을 하였다. 어렵게 얻은 성취로 기뻐했지만, 부모님이 훨씬 더 행복해하셔서 너무 좋았다.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 5시 퇴근 후, 집에오면 할 일이 없었고 무기력해지기 시작했다. 한국에서 대학교와 대학원 시절을 마치고 미국에서의 6년 박사과정을 거쳤다. 그동안 그녀에게는 취미나 운동, 여행은 사치일 정도로 정말 쉽 없이 공부하며 열심히 살아왔다. 취직 후, 갑자기 쉴 시간이 많아지면서 매진해야 할 일이 없어지니, 외로움이 한층 한층 다가오기 시작하였다. 자신의 스튜디오 아파트에 햇살이 가득하였던 화장한 어느 주말, 침대에 앉아 공허해지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삶의 의미에 대한 회의가 느껴지면서 마음이 고통스러워졌다. 그 일

이 있는 후, 닥터 한은 테라피 요청을 하였다. 테라피를 받고싶은 이유는 쉬는 방법을 배우고 싶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학업면에서나, 일을 처리하는 능력은 박사였지만, 마음공부에서는 처음 학교를 입문하는 신입생의 그녀였다.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일에 매우 야박하게 하며 살아오다 보니, 자신의 마음에 생겨난 상처를 볼 여유가 없었고, 자신의 마음을 위로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테라피를 통해 그녀는 자신마음 안에 있던 고통을 풀어내기 시작했다. 닥터 한은 오빠와 남동생 사이의 둘째로 자라나며, 부모님의 관심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 아버지는 해외에서 일을 하였고, 어머니는 삼남매를 어렵게 키우느라 힘겨워하셨다. 해외에서 일을하시는 아버지는 일년에 몇 번 보는 정도였다. 중학교에 가면서 아버지가 해외일을 관두시고 식구들과 같이 살게되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전통적인 가부장적 모습으로 많은 요구를 하셨다. 그녀는 칭찬보다 질책이 우선이었던 아버지가 참 많이 버거웠다. 자신을 빼고 오빠와 남동생에게만 공부 공부하시는 아버지이지만,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해 드리고 싶었다. 드디어 그녀는 오빠와 남동생을 제치고 반에서 일등을 하였다. 그때 처음, 아버지에게 들은 칭찬은 그녀에게 공부에 대한 원동력을 갖게하였다. 하지만 그녀의 공부에 대한 원동력은 강박관념으로 변하기 시작했고, 아버지의 칭찬에 집착하게했다. 그녀가 박사가 되어 유명한 바이오 케미칼회사에 취직했을때 기뻐하시던 아버지의 모습은 잠시였다. 이제는 더 나이들기 전에 결혼을 해야한다는 잔소리를 귀에 못이 박히게 하신다.

테라피 치료이후 그녀의 달라진 모습이 있다. 아버지의 잔소리가 주는 짜증을 느끼고 표현할 줄 아는 것이다. 테라피 과정 중, 자신이 공부에 몰입을 한 근본적인 원인은 아들을 눈에 띄게 선호하는 아버지의 차별에 대항하였음을 인지하였고, 아버지에게 대결하고 싶은 반항심이 었음을 알았다. 그리고, 아직도, 아버지의 칭찬에 목 말라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헤민 스님은 말한다. “마음공부는 일반공부와는 정반대로 해야 해요. 일반 공부는 모르는 것을 배워서 지식으로 채워가지만, 마음공부는 반대로 ‘안다’는 생각을 쉬고 또 쉬면서, 텅 빈 채로 이미 충만한 마음자리를 밝히는 것입니다.” 헤민 스님의 말은 너무나 타당한 말이다. 그녀의 아버지에 대한 복잡하게 엉켜있는 마음을 쉬게할 수 있는 마음공부는 그녀가 해왔던 일반 공부의 방법과는 정반대여야 한다. 헤민 스님 말처럼 그녀의 마음 공부는 무언가를 자꾸 배워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쉬고 또 쉬고’ 를 해야 하는 것이다. 그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 운동, 기도, 참회, 명상, 일기쓰기, 여행, 그리고 테라피를 통할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자신에게, 타인에게 배려와 칭찬과 감사하기를 권유한다. 배려, 칭찬, 감사는 나쁜 생각을 없애주는 명약이다. 휴식보다 일을 중시하고, 나보다 너를 중시하고, 위계질서를 중시하는 한국의 문화속에서 자란 한국 부모는 아이들을 배려하고, 칭찬하고 감사를 하는 일을 어색해한다. 혹은 배려와 칭찬과 감사를 하면 좋다는 말에 칭찬과 감사를 지나치게 하려고 하기도 한다. 그리하여 하지 않던 행동에 아이들이 더 거부감을 느낄수 있다. 배려, 칭찬, 감사를 특별한데서 찾기

보다 지극히 평범한데서 찾으면 된다. 닥터 한의 아버지는 칭찬에 인색했고 배려보다는 복종을 요구했다. 아버지가 단 한번이라도 두 남자형제에게 치어서 힘들어하는 자신을 배려하는 따뜻한 한 마디가 있었다면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훨씬 줄어들어있었을 것이라고 닥터 한은 말한다. 자신이 큰 일을 이루었을때만 하는 칭찬이 아닌 평범한 일상생활에서 칭찬을 받고 자랐다면, 자신이 이렇게 타향에 와서 외로움에 힘들어 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냐고 말을 한다. 자신은 단 한번도 아버지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들어 본적이 없다고 말을 한다.

오스카 와일드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흙통안에 있다. 하지만 어떤이는 별을 본다.(We are all in the gutter, but some of us are looking at the stars.)” 필자는 이 의미를 이렇게 본다. 우리는 하늘에 찬란히 빛나는 무수한 별을 무시한 채, 세상이 요구하는 성공을 위해 흙통 안에서 열심히 살아 가고 있다. 하지만 별을 보려면, 흙통 안에서 나와서 평범함속에서 쉬어야 한다. 아이들이 이 여름, 흙통에서 나와 별을 보게 하자. 그러기 위해선, 배려, 칭찬, 감사의 말과 행동으로 아이들 마음속에 있는 짜증, 화, 미움, 절망, 슬픔을 비어주어야 한다. 학교 공부를 떠나 아이들의 일상 평범한 생활 중에서 배려와 감사를 전해보자. 아주 작은 일에 공감하려 하고 칭찬해주자. 그렇게 마음을 쉬게 하면서 살아감에 감사를 느끼게 하자. 그러면, 나쁜 생각이 없어지고, 좋은 생각이 생기면서 아이의 마음이 쉴 수 있다. 편안하게 쉬는 이번의 여름은 아이들에게 수 많이 떠 있는 별들을 보게하는 큰 선물을 주게 될 것이다.

TBO PLAY
보스톤권역
MA, RI, NH 지역 공식 딜러

내가 보고 싶은 한국방송 · 영화를 원하는 시간에 고화질로 즐기세요

무제한 시청 월: **\$39.99**

이동 고객 특별 할인
타 방송사에서 티보 플레이로 갈아 타시는 분에 한해 월 \$30도 특별 우대해 드립니다

KBS, MBC, SBS, SBS Plus, tvN, Xtv, Mnet, O'live, OCN

The Best Underworld, TBO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c@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한 차원 높은 고국방문 의료서비스 이제 **휴람**을 통해 이용해보세요!

상담 및 문의 보스톤코리아 617-955-9112



보건복지부 인증 의료기관

중앙대학교병원



전문 의료진 75명 / 40여개 의료장비(MRI, MRA, MDCT, PET CT 포함)

- ◎ 전담 간호사 1:1 사전 맞춤 상담
- ◎ 위대장 내시경 당일 통시검사 시행
- ◎ 1:1 에스코트 / RFID 전자 태그 시스템
- ◎ 진료과목별 전문의 교수의 시술 및 판명
- ◎ 첨단장비를 통한 신뢰성 있는 조기진단
- ◎ 신속한 외래진료 법인 및 응급 의료 시스템
- ◎ 검진센터 내에서 모든 검사 시행
- ◎ 결과 및 영양상담과 과거 검진결과와의 비교분석

휴람
 3주년기념
 특/별/할/인
 12월 31일(목)까지

기본검진 프로그램

남성	여성
[50세이상] ————— 55만원 → 49만6천원 신장계측, 체지방분석, 안압진단, 안저, 시각, 청각, 폐기능, 흉부촬영(흉선, 유선, 흉선), 혈액형, 알코올, 간기능, A형간염, B형간염, C형간염, 신장기능, 혈액질, 당(공복시혈당, 당화혈색소), 고지혈증, 요산, 고혈압기능, 골밀도(자극간섭), 대장암, 위암, 전립선, 복부, 유방, 소변, 대변검진, 기생충, 피부초음파, 위내시경, 치과진찰(구강질환, 치과우식증, 치과예방진) 4차검진 [50세이상] ————— 67만원 → 60만3천원 50세이전 기본검진 + 신장검사 1 (계산상 흉부 CT 또는 심장초음파)	[50세이상] ————— 69만원 → 63만1천원 신장계측, 체지방분석, 안압진단, 안저, 시각, 청각, 폐기능, 흉부촬영(흉선, 유선, 흉선), 혈액형, 알코올, 간기능, A형간염, B형간염, C형간염, 신장기능, 혈액질, 당(공복시혈당, 당화혈색소), 고지혈증, 요산, 고혈압기능, 골밀도(자극간섭), 대장암, 위암, 전립선, 복부, 유방, 소변, 대변검진, 기생충, 피부초음파, 위내시경, 치과진찰(구강질환, 치과우식증, 치과예방진) 4차검진, 핵심지표(당부당량, 유산균, 대장균)
★ 휴람을 통한 예약시 할인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정밀검진 프로그램

남성	여성
신장내시경 정밀검진 1. 소화기정밀 : 50세이전 기본검진 + 대장내시경수술, 복부초음파CT ————— 100만원 → 90만원 2. 심장정밀 : 50세이전 기본검진 + 심장정밀촬영, 심장초음파, 관상동맥CT ————— 100만원 → 90만원 3. 뇌정밀 : 50세이전 기본검진 + 뇌정밀촬영, 뇌 MRI & MRA, 경동맥초음파 ————— 150만원 → 135만원 방광정밀 1. 알코올 : 50세이전 기본검진 + 저선량 흉부CT, 갑상선 초음파, 골밀도, 심장초음파, 경동맥초음파, 전립선초음파, 남성호르몬, 대장내시경수술, 복부초음파, VT-D ————— 200만원 → 190만원 2. 고령예방정밀 : 암정밀검진 + 뇌·심장정밀촬영, 뇌 MRI & MRA, 폐·심장촬영CT ————— 300만원 → 270만원 50세이전 기본검진 + 갑상선초음파, 골밀도, 심장초음파, 경동맥초음파, 전립선초음파, 남성호르몬, 대장내시경수술, VT-D, 복부초음파, 뇌·심장정밀촬영, 뇌 MRI & MRA, 저선량폐CT	신장내시경 정밀검진 1. 소화기정밀 : 50세이전 기본검진 + 대장내시경수술, 복부초음파CT ————— 110만원 → 99만원 2. 심장정밀 : 50세이전 기본검진 + 심장정밀촬영, 심장초음파, 관상동맥CT ————— 110만원 → 99만원 3. 뇌정밀 : 50세이전 기본검진 + 뇌정밀촬영, 뇌 MRI & MRA, 경동맥초음파 ————— 154만원 → 139만원 방광정밀 1. 알코올 : 50세이전 기본검진 + 저선량 흉부CT, 갑상선초음파, 골밀도, 심장초음파, 경동맥초음파, 자궁초음파, 인유무통배이리스 DNA, 유방초음파, 대장내시경수술, 복부초음파, VT-D ————— 220만원 → 199만원 2. 고령예방정밀 : 암정밀검진 + 뇌·심장정밀촬영, 뇌 MRI & MRA, 폐·심장촬영CT ————— 320만원 → 289만원 50세이전 기본검진 + 갑상선초음파, 골밀도, 심장초음파, 경동맥초음파, 유방초음파, 자궁초음파, 인유무통배이리스 DNA, 대장내시경수술, 복부초음파, 뇌·심장정밀촬영, 뇌 MRI & MRA, 저선량폐CT

속박(다이아몬드)검진 프로그램

남성	여성
490만원 → 432만원 1. 소화기정밀 : 헬리코박테리아(헬식), 대장내시경수술, 복부초음파CT 2. 심장정밀 : 심장정밀촬영, 심장초음파, 관상동맥CT 3. 뇌정밀 : 뇌정밀촬영, 뇌 MRI & MRA, 경동맥초음파 4. 폐정밀 : 저선량 흉부 CT / 5. 알코올 : PET-CT 6. 핵수정밀 : 경추MRI, 요추MRI 7. 대변정밀 : 갑상선초음파, 골밀도, 복부촬영CT 8. 방광정밀 : 남성호르몬, 전립선초음파 9. 기타 : 변질촬영, 치과 X-선촬영	500만원 → 460만원 1. 소화기정밀 : 헬리코박테리아(헬식), 대장내시경수술, 복부초음파CT 2. 심장정밀 : 심장정밀촬영, 심장초음파, 관상동맥CT 3. 뇌정밀 : 뇌정밀촬영, 뇌 MRI & MRA, 경동맥초음파 4. 폐정밀 : 저선량 흉부 CT / 5. 알코올 : PET-CT 6. 핵수정밀 : 경추MRI, 요추MRI 7. 대변정밀 : 갑상선초음파, 골밀도, 복부촬영CT 8. 방광정밀 : 인유무통배이리스 DNA, 자궁 초음파, 유방초음파 9. 기타 : 변질 촬영, 치과 X-선 촬영

★ 토요일엔 : 매월 2회, 4매주 토요일 / ★ 위치 : 서울시 동작구 흑석로 102 중앙대학교병원 다정관 3층 건강검진센터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340)

브렉시트(Brexit)와 불안한 투자자 마음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로 국제금융시장이 대폭락했습니다. 주식시장에선 이러한 현상을 ‘블랙스완(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한 번 일어나면 엄청난 충격을 주는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미국의 다우 존스도 611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2016년 수익이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브렉시트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며 영국뿐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제를 한동안 짓누를 것’이라는 월가 금융권 인사들의 우려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투자자 마음이 심란해집니다. 신문, 방송, 뉴스를 잠시 떠나서 생각해 볼 몇 가지를 함께 나누어 봅니다.

* 미국 주식시장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1년 3월 일본의 쓰나미가 왔을 때, 2011년 8월 의회 빚 수준(Debt Ceiling Standoff) 협상 때, 2012년 스페인 파산 상황일 때 보다도 적은 폭입니다. 작년 8월 24일에는 중국 경제문제로 3.9%까지 하락했습니다. 2008년 주식시장 대폭락은 금융위기로 시작되었지만, 영국의 문제는 정치적인 이유로 시작된 것입니다.

주식시장은 불확실한 상황을 싫어하므로 당

분간 오름과 내림을 반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장기투자자에게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20세기에 지구 위에 큰 사건이 51번이 있었습니다. 9/11과 같은 사건입니다. 과거의 주식시장은 이런 이유로 대폭 하락했지만 결국에는 다시 상승하여 과거의 높은 점보다 더 많이 올라갔음을 보여줍니다.

* 브렉시트가 세계 경제에 실제로 얼마만 한 영향이 있을지는 가능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불확실한 미래로 영국의 화폐가치는 하락할 것이며 미국 돈 가치가 더욱 강해집니다. 이것은 미국이 수출하는데 어려움이 더해질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미국의 이자율은 현상을 유지할 것이며 다른 나라도 이자율을 내려 시장에 막대한 돈을 풀 것입니다.

* 브렉시트는 투자할 좋은 기회입니다. 며칠 전만 해도 투자하고 싶었지만, 너무 비싸진 것 같아 투자하지 못한 종목이 대폭 하락했습니다. 여성들이 기다렸던 ‘세일’ 이 시작된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분위기에서는 투자한다는 것이 너무 비싼 것 같아 투자 결정을 망설

입니다. 이와 반대로 주식시장이 폭락하면 더 떨어질 것 같아 투자하는 것을 중단합니다. 투자 중단은 물론 투자한 돈도 손실을 감수하며 시장에서 나옵니다. 일반 투자자가 투자 실패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 투자의 스승인 벤저민 그레이엄(Benjamin Graham)은 1963년 이러한 말을 언급했습니다. “나의 50년 투자 경험으로 배운 것은 주식시장이 어떻게 변동할지는 경험이 많아질수록 더 모르겠지만 투자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더욱 명확해졌다.” (In my nearly fifty years of experience in Wall Street I’ve found that I know less and less about what the stock market is going to do but I know more and more about what investors ought to do.)

* 은퇴가 가까운 투자자에게는 브렉시트는 좋은 경험이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브렉시트로 주식시장이 10% 하락(Correction)이나 20% 이상 하락(Beat Market)한다면 은퇴를 목적으로 둔 사람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손실한 돈에 대해서 회복할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금융위기 시절 은퇴를 준비하던 50대 후반의 투자자는 은퇴자산이 주식에 집중해서 투자되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금융위기가 오기 전 여러 해 동안 주식시장이 꾸준히 상승한 이유로 주식에 투자된 부분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은퇴플랜(IRA, 401(k), TSP, 등)의 자산을 재조정(Rebalance)하지 않은 것도 주식에 집중적으로 투자된 다른 이유입니다.

* 브렉시트의 여파가 은퇴자에게 재정적으로 큰 영향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 예로 은퇴자 한 분이 주식과 채권에 각각 50%씩 투자했다면 주식시장 하락으로 받는 영향은 절반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은퇴자산을 자산분배와 분산투자로 제대로 형성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었다면 실제로 받는 손실은 훨씬 적어집니다.

주식시장은 당분간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움직일 것입니다. 우리가 조절(Control)할 수 없는 주식시장 변화는 잠시 잊어버리고 나의 소중한 자산이 제대로 형성되어 운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우석 변호사 법률칼럼

장우석 변호사 (메사추세츠 주, 뉴욕 주, 메사추세츠 지역 연방법원)
 게시글 관련 문의: 781-712-1706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일들 중에서, 교민들이 알아두면 대처하기에 좋을 주제들을 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순서로 경기와 소득에 민감하고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채무관련한 내용입니다.

부주의 태만 운전, 운전 중 통화 및 문자

오늘은 교통관련 법에 대해 몇가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메사추세츠주는 운전 중 전화사용하는것이 금지는 아닌데요, 뉴햄프셔나 뉴욕주는 운전 중 전화사용하면 위반하는 경우가 될 수 있어 각별한 유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뉴욕에 왕래하시는 분들이 많은 관계로, 뉴욕주는 모든 운전자들이 휴대전자기기를 사용하실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상황 중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간주하는 경우는,

1. 운전자가 휴대전자기기를 몸에 붙여 잡아두고 있으며,
2. 다음 네가지 형태의 행위에 해당할 때입니다.
 - a. 말을 하고 있거나
 - b. 전자자료의 작성, 전송, 일기, 접속, 탐색, 저장, 검출 등, 예를 들면, 이메일, 문자, 인터넷 접속
 - c. 영상자료 보기, 촬영, 전송 등
 - d. 게임하기

휴대전자기기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셀폰, 스마트폰, 랩탑 컴퓨터, 노트북 컴퓨터, 패배, 광대역 개인 통신 기기, 양방향 문자 전송기기, 전자 게임, 휴대용 컴퓨터 기기 등입니다.

사용이란, 이메일, 문자메세지 혹은 기타 다른

전자 정보를 보거나, 영상을 찍거나, 전송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문자작성하거나, 전송하거나, 읽거나, 보거나, 보려고 클릭하여 접속하거나, 찾아보거나, 전송하거나, 저장하거나, 뽑아보거나 하는것을 말합니다.

물론 무조건 사용하지 못하게 아는것은 아니며, 아래와 같은 예외는 있습니다.

1. 운전자가 어느 손도 사용하지 않고, 핸드프린리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
2. 차량 표면에 장착된 휴대전자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3. 차량 표면에 장착된 GPS를 사용하는 경우
4. 응급상황에 사용하는 경우 - 경찰, 소방, 병원, 의사, 구급차 등
5. 공적의무를 수행하는 구급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상업용 운전면허를 가진 운전자는 위의 규정 이외에 별도의 규정이 있으므로, 이를 잘 숙지하시고 운전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메사추세츠 주는 어떠한가요?
 현재는 운전 중 문자를 주고받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 2010부터 총 10,000건의 티켓이 발부되었습니다. 주의회에서는 계속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부주의 태만운전을 예방할 수 있는 법

안을 만들어 내기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하는 큰 사고를 살펴보면, 전화기와 관련한 사고가 많습니다. 눈을 도로에서 떼어 전화기에 집중하는 순간,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운전자들, 오토바이, 자전거 운전자들, 혹은 걸어다니는 행인들까지 모두 위험에 노출되게 합니다.

운전 중 문자금지된 주는 46개 그리고 워싱턴 디시이며, 운전 중 이런 휴대전자기기를 한손에 들고 말하는 것을 금지한 주는 14개 와 워싱턴 디시입니다.

운전 중 휴대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 되었습니다.

메사추세츠 주의회에서 발의한 내용이 최종 법

안으로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지해야 할 사항은, 운전을 하면서 다른 부분으로 정신팔려서 부주의 하면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최근 많은 수의 충돌사고가 노우즈 다 이브 (nose dive)가 없는 그냥 무제동 충돌입니다. 충돌할 때까지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기성세대 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청소년들, 그리고 청장년들이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성숙된 문화를 가꾸어야 하겠습니다. 지키고 가꾸는 운전자들에게는 독려를 하고, 이를 망치려는 운전자들은 운전할 수 있는 특권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칸 영화제에서 쏟아진 전세계의 극찬과 환호!
올여름 사상 최악의 재난과 맞서라!



OFFICIAL SELECTION
OUT OF COMPETITION
FESTIVAL DE CANNES

끝까지 살아남아라



"역대 칸느 영화제 최고의 미드나잇 스크리닝 상영작"

- 칸 영화제 집행 위원장 리에리 프레모 -

공유 정유미 마동석 김수안 송무로 호화군단 열연!
칸느의 흥아 세계적 비주얼 마스터 연상호 감독!
천만 영화 흥행 제작진이 만든 최고의 스퀘일!

부산행

TRAIN TO BUSAN

공유 | 정유미 | 마동석 | 김수안

NEXT ENTERTAINMENT WORLD PRESENTS WELL GO USA ENTERTAINMENT DISTRIBUTION

7월 28일 대개봉

AMC Loews Boston Common 19 175 Tremont St, Boston, MA 02111 (617) 423-5801

상영관 정보 및 티켓 예매 | TRAINTOBUSAN-MOVIE.COM FACEBOOK.COM/HITKMOVIE

앤젤라 엄



앤젤라 엄 (Angela Suh Um)
 보스턴 아카데미 컨설팅 그룹(Boston Academic Consulting Group) 대표

앤젤라 엄은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에 본사가 있는 보스턴 아카데미 컨설팅 그룹(Boston Academic Consulting Group, Inc.)의 창립자이자 수석 컨설턴트입니다. 앤젤라 엄은 하버드 학부를 졸업하고 하버드 케네디스쿨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하버드와 MIT에서 수석 입학사정관(Senior Admissions Officer)을 역임하였습니다. 보스턴 아카데미는 12학년 학생들의 대학 지원과 6학년에서 11학년 학생들의 교육 가이드 및 카운슬링을 전문으로 하는 유수의 교육 컨설팅 회사입니다. 상세 정보 Tel: (617) 497-7700, Email: info@bostonacademic.com 을 통해 문의하시거나 Homepage: www.BostonAcademic.com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No portion of this article shall be published, re-produced, or otherwise used in any form without the express written consent of the author.

최고 명문 대학 입학 전략

“대학 진학을 위한 GPS : 분석 및 전망”

“작년(Class of 2020) 하버드 지원자 수는 기록적인 39,044명!”

“2016학번은 버클리 역사상 가장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선발되었다!”

“컬럼비아 역사상 가장 많은 학생이 지원하였다.”

“바너드(Barnard) 칼리지의 합격률이 역대 최저로 떨어졌다.”

“듀크 대학의 정시 합격률이 처음으로 9%를 못 미쳤다.”

“코넬은 학교 역사상 가장 많은 지원자를 기록하였다.”

지난 3월과 4월에 걸쳐 미국의 모든 대학들이 신입생 합격자를 발표하자 위와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웹사이트나 신문, 블로그에 넘쳐났다. 자기가 꿈꾸던 대학에 합격한 행운아들에게는 이런 엄청난 기록들이 오히려 자신들이 이룬 것을 더욱 특별하고 돋보이게 만들었을 것이다. 반면에 불합격 통지를 받고 꿈이 깨져 버린 학생들에게는 결코 자신만 떨어진 것이 아니며, 이처럼

미친 것 같은 경쟁 때문이라고 조금은 자신을 달랠 수 있었을 것이다. (생각해 보라. 올해 스탠포드를 지원한 학생 중에서 95% 이상 낙방했다.) 앞으로 대학 진학을 앞둔 학생과 학부모들은 올해의 대입 경쟁을 지켜 보면서 불안하고, 두렵고, 긴장될 것임이 틀림없다.

대학 진학 경쟁이 갈수록 더욱 치열해지고 있긴 하지만 사실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너무 움츠러들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이처럼 미친 듯한 대학 진학 경쟁에서 승리하기 (그리고 제정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가 필수적이다: 1) 일찍 준비하기, 2) 정확한 정보 확보, 그리고 3) 자녀를 위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전략 수립. 이 세 가지만 구비한다면 자녀들이 꿈꾸는 대학에 합격할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높일 수 있다.

“일찍 준비하기” 는 자녀들의 고등학교 생활을 위한 분명한 계획과 방향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어떤 AP/Honors/IB 과목이나 수학 과정을 선택할 것이며, 언제 SAT와 SAT

과목(Subject) 시험을 응시할 것인지, 그리고 몇 개의 AP 시험을 목표로 할 것인지 등을 미리 정해야 한다. “정확한 정보” 란 입학사정관들 (Admissions officers, AO's)이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아는 것이다. 이것은 자녀들이 포부와 희망을 가지면서도 현실을 직시하고 구체적으로 목표와 방향을 정해 나아가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이다. 자녀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함에 있어 이웃이나 다른 부모들이 (사실 그들도 당신만큼 잘 모른다) 제공하는 루머나 개인적 일화에 의존해서는 절대 안 된다. “명확한 전략” 은 자녀들에게 최적화되어 그들이 인성, 목표, 장점과 약점을 잘 반영한 전략을 말한다. 이것이야말로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으로서 대학 진학에서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이다.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여전히 다른 학생들이 누구나 하는 것들을 똑같이 따라 하고 있다 - 특히 아시아계 학생들이 그렇다. 똑같은 학교활동을 하고, 성품도 비슷하게 재미없으며, 심지어 피상적인 과외활동도 같은 학생들이 너무 많다.

하버드와 MIT에서 수 년간 입학사정관을 역임한 사람으로서, 필자는 너무나도 열심히 공부하면서, 참으로 의욕이 넘치고 근면하며, 똑똑하고 포부가 많은 젊은 사람들은 수 없이 만나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 많은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던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들의 경우를 보면서 필자가 거듭 발견한 사실은 그들이 일찍부터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자신에게 맞는 제대로 된 목표와 계획을 세우지 못했으며, 루머나 막연한 기대, 오래된 자료, 그리고 비현실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잘못된 선택을 너무 많이 했다. 매일 매일 정말 열심히 노력하며 “노를 젓고” 있었지만, 막상 자기 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모르고 있었다. 이번 시리즈를 통해 필자는 일종의 “대학 진학 GPS” 를 제공하기 원한다. 이것이 학생들에게 정확한 최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대학 진학 성공을 위해 최선으로 준비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Song Law Firm의 법률칼럼 법정에서 강하고, 고객에게 편안한 “Song Law Firm”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송동호 로펌 법률 칼럼 - [프랜차이즈법/지적재산법] 내 독특한 프랜차이즈 아이디어, 어디까지 보호될 수 있나요?

Song Law Firm (www.songlawfirm.com)은 뉴저지에 본사, 뉴욕에 사무소를 두고 현재 한국지사설립을 준비 중에 있는 종합 로펌입니다. 각 분야에서 인정받은 유대인, 한인변호사들이 이민법, 지적재산법, 사고상해, 기업법, 가정법, 민형사 소송 등의 분야에서 최고의 법률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미국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미래를 개척하시는 여러 분들과 함께 새로운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소속변호사 : 송동호 대표 변호사, NJ 법무부 Deputy Attorney General출신의 Howard Z. Myerowitz 외 10여명
 www.songlawfirm.com, 보스턴 사무실 전화: 617-489-1327

프랜차이즈는 프랜차이즈 사업자(Franchisor)가 개발한 상표, 사업 비법, 그리고 운영 방식등을 프랜차이즈 가맹점주(Franchisee)가 계약으로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주고 대신 가입비를 받는 사업형태입니다. 예를 들면, 맥도날드 가맹점주는 계약을 통하여 맥도날드의 웃는 표정의 노란색 상표를 쓸 수 있게 되고, 맥도날드 사업자에게 빅맥과 맥머핀의 요리법을 전수 받으며, 주문을 받고 음식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들어 전달하는 방식을 배워 맥도날드 식당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프랜차이즈 식당을 연상하게 하는 상표권은 프랜차이즈 사업자(Franchisor)에게 매우 중요한 자산입니다. 따라서, 상표권, 특허와 같은 지적재산권법은 프랜차이즈법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자(Franchisor)는 상표권 등록을 통하여 자신이 개발한 상표를 보호합니다. 던킨 도너츠의 오렌지색과 핑크빛의 DD 상표라든지, “America Runs on Dunkin” 이라는 독특한 슬로건은 물론이고, 코카콜라 병의 독특한 모양도 보호 대상입니다. 문자, 그림, 색깔만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Mister Softee라는 유명한 이동식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의 경우, 차가 움직이면서 트는 특

특한 음악까지도 상표권으로 등록을 해 놓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Musical Jingle, Registration # 2218017). 아이들이 이 음악소리에 “아이스크림 차가 왔다” 며 자동 반응을 하는 것을 보면 이 음악은 분명히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상표권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프랜차이즈의 독특한 복장이나 연상이 되는 모든 형태를 상표권법인 “Trade Dress” 라고 부르며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Trade Dress” 의 정의에 대한 기존 판례를 보면 “상품이나 서비스의 총괄적인 이미지로 사이즈, 형태, 색깔, 혹은 색의 조합, 촉감, 그래픽 혹은 특정한 판매 방식을 포괄한다” 고 법원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위는 점점 확대되어 최근 2015년 판결에서는 “어떤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Almost everything at all that is capable of carrying meaning)” 라고 법원은 말하고 있습니다. 피자헛의 상표 자체 뿐만 아니라 피자헛의 지붕 라인, 내부 디자인의 색깔 조합, IHOP의 파란색 지붕까지 해당 프랜차이즈가 연상이 되는 모든 것을 상표권법으로 보호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상표권법 자체가 프랜차이즈 “사

업이 운영되는 방식 (Method or style of doing business)” 혹은 “사업의 독특한 컨셉 (Core Concept of a business)” 을 보호하는 것은 아니며 보호의 대상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한 소송이 생각보다 흔합니다. 예를 들면, 패스트푸드라는 사업 형식 자체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사업의 독특한 컨셉” 으로 파고들면 그 경계가 더 불분명해집니다. 예를 들어, 1990년도에 있었던 케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타지마할” 이라는 인도식 프랜차이즈 식당 사업자는 인도식 카지노와 호텔을 지은 트럼프의 “타지마할” 을 고소하면서 자신의 “인도식” 이라는 “독특한 사업 컨셉 (Core Concept of a Business)” 을 트럼프가 훔쳐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면, 직원들이 모두 인도전통의 상을 입는 다든지, 코끼리 동상을 가져다 놓고 인도식 인테리어를 꾸민다든지 하는 것들을 트럼프가 훔쳐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법원은 인도식 분위기를 느끼고 싶은 고객이 인도식당을 찾을 때 인도 복장이나 내부 장식은 어쩔 수 없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러한 복장이나 장식이 식당 주인이 개발한 것이 아니라 인도는 국가의 독특한 문화 상징이기 때문에 상표권으로 보호될 수는 없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타지마할 식당의 직원들이 인도전통

의상이 기본이되 독특한 무늬가 들어있어 그 옷을 보면 타지마할이라는 식단이 연상되었다면 어떨까요? 법원은 조금 다른 결정을 내렸을지도 모릅니다. P.F. Chang의 거대한 중국식 말동상은 어쨌든 상표권으로 보호받고 있으니 말입니다.

프랜차이즈와 상표권이 연결되어 있는 소송을 하다보면 딱 떨어지는 확실한 답이 있다기 보다는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계약서나 상표 등록을 얼마나 확실하게 하는가가 관련 소송의 결과를 많이 좌우합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자로서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상표법 등록부터 세심한 관심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독자분들에게 유용한 법률정보를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더욱 편안하게 확인하여 보세요. 이번에 신규 런칭한 Song Law Firm의 Mobile Website로 기존의 칼럼 및 뉴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songlawfirm.com
 Facebook으로 친근해진 송로펌
 www.facebook.com/songlawfirmllc
 생활속의 법률 매거진, 송로펌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songlawfirm1
 대륙으로 진출하는 송로펌
 www.weibo.com/p/1005055593845027

SONGLAWFIRM

고객이 **신뢰**하는 법률 브랜드
송동호 종합로펌

songlawfirm.com



송동호 대표 변호사

법률업은 일반 비즈니스와 달리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니다.
 변호사의 판단 하나는 고객 케이스에 신의 한수가 되기도 합니다.
 송동호 종합로펌의 변호사들은 신중함의 중요성을 늘 생각합니다.
 고객 여러분이 저희의 신중함을 발견하고 신뢰하게 되기를,
 케이스 하나 하나에 장인 정신으로 다가갑니다.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법률 브랜드, 송동호 종합로펌은
 오늘도 고객의 케이스를 신중하게 고민합니다.



송동호 종합로펌 뉴저지 본사 소속 변호사 및 Summer Associates

기업 고객

- 국제법
- 금융법
- 노동 및 고용법
- 보험회사 관련 소송
- 부동산
- 상법 및 M&A
- 수송
- 이민법
- 임대법, 임차법 관계법
- 지식 재산법
- 프랜차이즈법

개인 고객

- 가정법
- 노동 및 고용법
- 부동산
- 사고 손해
- 상법
- 채금, 상속, 유언
- 수송
- 이민법
- 임대법, 임차법 관계법
- 지식 재산권
- 타겟, 지역 범위 관련 업무
- 파산
- 강변



BOSTON OFFICE | 385 Concord Ave. Ste 002 Belmont, MA 02478 T | 617.489.1327 MAIL@SONGLAWFIRM.COM

MANHATTAN New York	HORRNETT New Jersey	WASHINGTON DC	FLUSHING New York	EDISON New Jersey	SAN DIEGO California	SEOUL Korea	HANGZHOU China
-----------------------	------------------------	------------------	----------------------	----------------------	-------------------------	----------------	-------------------

사업의 시작은

Lee Associates

이경해 부동산

1.800.867.9000



Broker & Realtor(1985년부터 보유) 사업 및 부동산 무료 상담

비즈니스 용자 일선: 20% 현금다운, 프로젝트 700+
상가건물, 콘도, 아파트건물 투자하실 분 환영
1031 Exchange(상가건물세금혜택)서비스
미 전역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E2비자 사업에 전문, 비즈니스 무료상담
크고작은 세바스톤, 런드로맷(Laundromat) 상물
주유소, 식당, 편의점, 주류판매점 등 다양한 사업체
항상 리스팅 80~100 보유

Cell.....508.962.2689
Tel.....781.297.5679
www.leebrokers.biz
Email..kayleebrokers@aol.com

캠브리지 지역 동양식당 연매상 \$500,000 계속적인 매상 증가

보스턴 북쪽 세탁소 셔츠유닛, 연매상 \$99,000 좋은 위치

네일살롱 고급동네 연매상 \$600,000 소유자 은퇴

보스턴 서쪽 세탁소 셔츠 유닛만, 고급몰 안, 연매상 \$148,000

보스턴 서쪽 런드로맷 연매상 \$236,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동양식당 로드아일랜드 프로비던스 대학가 근처, 연매상 \$350,000

네일살롱 여러장소 연매상 \$160,000 - \$800,000

보스턴 서쪽 드롭스토어 2곳, 연매상 \$300,000 과 \$250,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런드로맷 연매상 \$190,000 + 100% 주인부재 중 운영 좋은 위치

뉴햄프셔 세탁소+런드로맷 연매상 \$110,000 18년만에 은퇴, 매매가격 \$35,000

드롭 보스턴 북쪽 연매상 \$100,000 매매가격 \$35,000

드롭 스토어 보스턴 서쪽, 연매상 \$260,000 부유한 동네

메인 포틀랜드 컨비니언스, 연매상 \$700,000 좋은 위치, 변화한 플라자

보스턴 북쪽 건물; 2층 아파트, 1층 상가, 매매가격 \$980,000

뉴햄프셔 남쪽 고급동네들, 풀 플랜트, 연매상 \$550,000

드랍스토어(연매상 \$345,000 / \$180,000) 각각 매매가능, 좋은위치

뉴햄프셔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225,000 변화한 플라자 안

보스턴 풀 플랜트+드랍, 연매상 \$750,000 35년 경영, 소유자 은퇴

버몬트 남쪽 동양식당 연매상 \$390,000 Beer&Wind 면허증, 34년간 지속 영업
매매자 소유 건물 - 좋은 리스

보스턴 북쪽 드롭가게 연매상 \$208,000 고급동네

동양그로서리 연매상 \$700,000 - \$900,000 여러장소

보스턴 남쪽 Meat+컨비니언스+로터리, 연매상 \$910,000+

보스턴 북쪽 런드로맷+부동산+임대수입 유닛, 매매가격 \$529,000

보스턴 서쪽(I-495)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500,000 고급동네

보스턴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50,000+ 새 기계들, 부유한 동네

보스턴 서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80,000 이상 소유자 은퇴

보스턴 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소유자 은퇴



보스톤 교육원

명문 중.고.대학 진학상담 및 수속

전문적인 맞춤형 진학상담
최고 에세이 편집자
최고 권.험적 입학 담당자 상담

섬머/윈터 프로그램

전문적인 관리 및 실질적인 프로그램
MIT/Harvard 특별 프로그램
다양한 주말 프로그램

가디언 업무

수시 교사 면담 및 성적관리
아카데믹 로드맵 작성 및 실행
다양한 경시 대회 준비, 섬머 및 교외 활동

2016 보스톤 교육원 여름방학 프로그램

I. SAT, ACT 정규반

- 기간: 6.20~8.19 (3주단위, 3 sessions) 월~금요일 수업
- 특징
 - 처음 시험준비를 시작하는 세내기 학생을 위한 class
 - 3시간의 수업을 포함한 풀타임 프로그램(8:00~8:30)
 - 과학별 기본개념과 문제유형 숙지
 - 실전연습문제 풀이 및 리뷰
 - 학교의 전문 강사진
 - 엄격한 학생 및 학사관리
 - 다양한 선택 가능성

II. SAT, ACT 실전문

- 기간: 6.20~8.19 (3주단위, 3 sessions) 월~금요일 수업
- 특징
 - 단기간내 목표점을 목표로 하는 학생을 위한 class
 - 반복적인 모의고사를 통한 실제시험의 적응도를 높임
 - 많은 실전문제 확보

III. 저학년을 위한 Writing Class

- 기간: 7.11~8.19 (2주단위, 2 sessions)
- 수업: 주 3일(2시간)
- 특징
 - 다양한 장르별 글쓰기 수업
 - 오랜 경험의 writing 전문가
 - 문법 및 어휘에 향상

상담전화:
339.234.5255~7

Korean Education World, Inc.
보스톤 교육원

128 Wheeler Rd. #301, Burlington, MA 01803
Tel. 339.234.5255~7 / Fax. 339.234.5258

www.bostonedu.org 문의: info@bostonedu.org
수업문의: academic@bostonedu.org